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09-41호에 따른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

총 론

교육과학기술부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목 차

Ⅰ. 교육과정의 이해 ····· 4

1. 교육과정의 개념 ····· 4
2. 교육과정의 법적 근거 ····· 12
3. 중학교 교육과정의 변천 ····· 15
4.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개정의 배경 및 기본 방향 ····· 20

Ⅱ. 교육과정의 구성의 방향 ····· 25

1. 추구하는 인간상 ····· 25
2. 교육과정 구성의 방침 ····· 29

Ⅲ. 중학교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 32

1. 중학교 교육목표 ····· 32
2. 편제와 시간(단위) 배당 기준 ····· 33
3. 중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중점 ····· 37
4. 교육과정 편성·운영 고려 사항 ····· 44
   가. 교육과정 편성·운영 ····· 44
   나. 평가활동 ····· 71

Ⅳ. 학교 교육과정 지원 ····· 78

1.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 78
2. 특수한 학교에서의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 94

[부록1]2009 개정 교육과정 총론 ····· 99
[부록2] 신·구 중학교 교육과정 비교 ····· 129
[부록3] 교육과정의 법적 근거 ····· 150
[부록4] 중학교 교육과정 변천 ····· 165

총 론

소진형 (교 육 과 학 기 술 부)
경지숙 (교 육 과 학 기 술 부)
김진숙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이근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이영섭 (인제신남중·고등학교)
안연순 (광 남 중 학 교)

Ⅰ. 교육과정의 이해

1. 교육과정의 개념

가. 교육과정의 의미

교육과정(敎育課程)이라는 말은 관점이나 맥락에 따라 다양하게 이해될 수 있다. 예컨대 교육을 지식의 전달로 보면 교육과정은 전달하려는 지식 또는 그 한 단위로서의 교과들의 체계로 파악할 수 있고 그와는 달리 교육을 인격의 함양 또는 바람직한 능력·특성들의 형성으로 보면 교육과정도 그러한 인격 또는 능력·특성 형성에 최적한 학생들의 경험들을 지칭하기도 한다. 한편으로 그것은 교과 또는 경험들의 계획에 초점을 두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그 계획의 시행을 통해 기대되는 학습결과에 주목하기도 한다. 이러한 교육과정 개념의 다의성은 상당 부분 교육과정의 역사와 함께 형성·변화되어 왔다.

교육과정(curriculum)은 원래 라틴어 '쿠레레'(currere)'에서 비롯된 술어로 그 본래의 뜻은 경마장에서 말이 달리는 경주로(race course)를 가리키는 말이었다고 한다(Wiles and Bondi, 1989: 6). 이 말이 학교교육에 적용되면서부터 초기에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해 나가는 책, 교과, 교육내용들과 그 학습 순서 등을 나타내는 '학습과정 또는 교수요목'(course of study)의 의미로 사용되어 오다가 그 후 시대와 사회 또는 교육관의 변천에 따라 점차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특히 16, 17세기 이후 서구사회의 큰 변혁, 곧 종교개혁·과학혁명·정치혁명 등은 교육사상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켜 교육의 목적·내용·방법 등에 큰 변화를 초래하였으며 그에 따라 교육과정 개념도 달라져 왔다. 말하자면 종래의 교육과정 개념, 곧 경주로나 교수요목에 함축되어 왔던 고정성·불변성·폐쇄성이 그 동안의 사회변혁과 교육관의 변천으로 변화 가능성·개방성으로 대체되었고 교육과정 내용에 있어서

도 7자유학과 등 귀족들의 삶에 의미 있는 언어중심·관념중심의 지식들만 아니라 인간 모두의 삶과 관련하여 자연과학·기술 등 사물중심·생활중심의 지식·기술·가치들이 크게 부각되었으며 그 논의의 초점도 '교사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하는 문제보다 '학생이 무엇을 경험하는가'하는 문제로 이행되어 왔다.

교육과정 영역이 교육학의 한 전문 분야로 본격적으로 탐구되기 시작한 시기는 대체로 19세기 말 또는 20세기 초부터라 할 수 있다. 이 무렵 영국·미국을 중심으로 기존 교육내용에 대한 의문이 팽배하고 그에 대한 대안들이 개인 또는 집단적으로 활발하게 탐색되었으며(Spencer의 어떤 지식이 가장 가치 있는 지식인가?, 1861; Dewey의 민주주의와 교육, 1916; Bobbitt의 교육과정, 1918 등) 이른바 진보주의 교육운동이 요원의 불길처럼 일어났던 것도 이 시기였다. 이후 교육과정의 정의는 '교육목적 달성을 위해 아동·청년들이 가져야 할 경험들의 연속(F. Bobbitt, 1918)', '한 사회의 총체적 문화(Dewey, 1916)',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주요 교과들(Bestor, 1956)', '학교의 지도아래 학생이 가지는 모든 학습경험(G. Bosner,1920; 정범모, 1956)', '교육목표들과 그 달성을 위한 학습경험 계획(J.G.Saylor 등, 1935; H. Taba, 1956)', '의도된 학습결과의 구조화된 목록(M. Johnson,1967)' 등으로 다양하게 제시되어 왔다.

오늘날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정은 학생이 경험하는 총체 또는 학교가 제공하는 경험의 총체라는 광의의 의미로 정의해 볼 수 있다. 그렇지만 학교에서 계획하고 실천하는 교육과정은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는 달성하고자 하는 교육목적 및 목표를 포함한다. 즉, 학교에서 계획하고 실천하는 교육과정은 학교의 교육목적 및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교육내용 또는 학습경험을 선정하고 조직하고 실천하고 평가하는 제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학교 교육에 적용하고자 하는 교육과정은 '교육목표와 경험 혹은 내용, 방법, 평가를 체계적으로 조직한 교육 계획'으로 정의할 수 있다.

또한 제도로서의 교육과정은 법령에 근거하여 마련되고 실천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초·중등학교 교육은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교육기본법 제2조에는 우리나라의 교육 이념이 제시되어 있으며,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는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도 교육감은 이에 근거하여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으며(동법 제23조 제2항),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동법 제23조 제1항). 이와 같은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국가에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결정하고 고시(공포)하여 시행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문서화된 계획이 제정, 고시 또는 공포된 순서에 따라 제7차 교육과정 혹은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이라는 명칭을 부여해 왔으며, 2009 개정 교육과정은 2009년 12월 23일에 개정 고시되었다.

우리나라의 법령 문서에서 '교육과정'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것은 문교부령 제35호(1954. 4. 20)로 공포된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사범학교 교육과정 시간배당기준령'으로, 여기서는 교육과정을 "각 학교의 교과목 및 기타 교육활동의 편제를 말한다."라고 규정하였다(제1장 총칙의 제2조 ;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 www.ncic.re.kr). 그 이후, 문교부령 제119호(1963. 2. 15.)로 공포된 제2차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을 "학생들이 학교의 지도하에 경험하는 모든 학습 활동의 총화"를 의미한다고 하였다(제2장 교육과정 구성의 일반 목표). 또한 제4차 교육과정의 개정 시안을 연구・개발한 한국교육개발원의 보고서[1]에서는 "교육과정이란 학교에서 전개되고 실현될 교육 실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일정 학생에게 무엇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를 국가 수준에서 규정하는 의도되고 문서화된 계획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제5차 교육과정(문교부 고시 제87-9호, 1987. 6. 30.)에서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라는 용어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었다. 국가에서 정하는 계획은 어디까지나 개괄적이고 일반적인 성격으로 제시될 수밖에 없

---

1) 한국교육개발원 "초등학교 교육과정 개선 연구", 연구 보고 제110집, 1979.12, p.1.
이 답신 보고서에서는 교육과정을 '문서화된 계획'이라는 입장에서 교육과정의 의미를 규정하였는데, 다음과 같이 교육과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밝혔다.
○ 교육과정에는 학생에게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식, 기능, 태도를 갖추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 목표와 내용이 분명히 나타나 있어야 하고, 교수・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운영 계획, 학습 지도, 학습 평가 등의 지침이 제시되어야 한다.
○ 교육과정의 내용은 교육 철학, 국가・사회의 요구, 학생의 발달 단계 및 교과의 학문적 특성을 바탕으로 하여 가치 있는 지식, 기능, 태도를 갖도록 하는 데 필요한 것을 일정한 원리와 절차에 따라 선정・조직하여야 한다.

으므로 교육과정으로 고시되는 문서는 '교육과정 기준', '교육과정 요강' 혹은 '교육과정 지침'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교육과정'이라고 부르는 것보다 타당하다는 것이 논의의 주요 내용이었다. 즉 교육과정은 '학생의 교육적 성취를 의도하여 마련된 계획'으로서 국가 수준의 계획에서부터 교사와 학생 수준의 계획까지를 포함하는 종합적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국가 수준, 지역 수준, 단위 학교의 교사와 학생 수준에 이르기까지 학교에서 학생들에 대한 교육적 성취를 의도하여 기성세대의 핵심적 문화 내용으로서의 지식과 사고 양식, 경험을 재구성한 계획이라는 점이 강조되었다.[2] 이러한 논의는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전개되어 왔다.

제6차 교육과정[3]에서는 처음으로 교육과정의 성격을 명시함으로써 국가 수준에서 문서로 고시하는 교육과정의 법제적 성격을 분명하게 밝혔다. 즉 교육부 장관이 법령에 의거 결정, 고시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은 초·중등학교의 교육 내용에 관한 전국의 공통적, 일반적 기준을 말하며, 여기에는 초·중등학교에서 편성·운영해야 할 교육과정의 목표, 내용, 방법, 평가, 운영 등에 관한 국가 수준의 기준 및 기본 지침이 제시되어 있다. 또한 이와 같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편성·운영하는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은 단순히 교육 목표와 내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교육 경험의 질'을 관리하는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것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교육 프로그램은 교육 목표와 내용, 방법, 평가, 운영 방식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이러한 구성 요소에 영향을 주는 제 요인이 관련된다.

제7차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1997-15호, 1997. 12. 30.)은 제6차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교육 법령에 따라 고시한 국가 수준의 기준임을 명시하고, ① 교육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교육과정, ②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 ③ 교원·학생·학부모가 함께 실현하는 교육과정, ④ 학교 교육을 교육과정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한 교육과정, ⑤ 교육의 질적 수준을 발전시키기 위한 교육과정이라는 구체적 성격을 강

2) 한국교육개발원. '제5차 교육과정 총론 개정 시안의 연구 개발 답신 보고서', 1986. 6. 30., pp.84-85.

3) 초등학교의 경우 교육부 고시 제1992-16호(1992. 9. 30,), 중학교는 교육부 고시 제1992-11호(1992. 6. 30.), 고등학교는 교육부 고시 제1992-19호(1992. 10. 30)이다.

조하였다. 특히 제6차 교육과정에 이어 제7차 교육과정의 이론 모형은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학교 교육에서 우리나라의 교육 실정과 미래 교육에 적합한 현실적 접근을 시도하기 위해 교육과정 탐구의 현실적, 상황적 패러다임(paradigm)을 택하여 여러 가지 이론의 절충적, 종합적인 입장에서 교육과정의 개념을 규정하였다.[4] 이러한 교육과정의 개념적 입장은 이후 개정된 2007년 개정 교육과정과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견지되고 있다.

교육과정은 그동안 우리나라 국가 교육과정에서 드러난 바에 비추어 볼 때, 학문적 접근이나 단순히 교육 내용 및 교과서 내용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교육과정은 학생들에게 왜, 무엇을, 언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의 기본적 물음에서 출발하여 학습자에게 제공할 학습 경험을 선정하고 조직하여 실행하고 평가하고 개선해 가는 실천적 행위이다. 국가 교육과정은 이를 위한 기준을 제시한 것이고 각 학교는 이러한 국가 교육과정의 기준을 기반으로 학교 특성 및 실정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창의적으로 계획하고 운영하게 되는 것이다.

나. 교육과정의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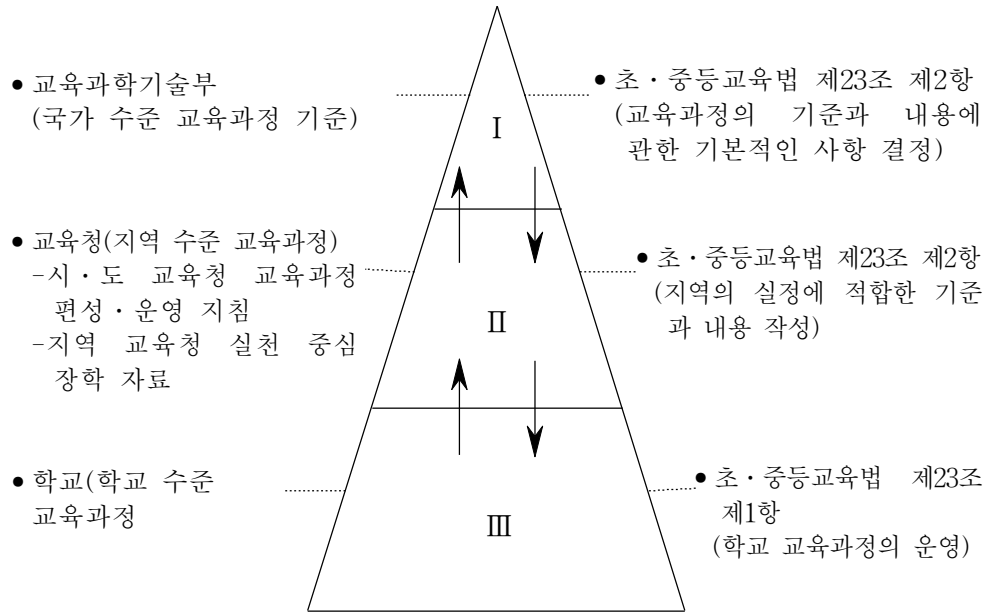
1) 교육과정 결정의 분권화와 수준 분화

교육과정 개발·운영과 관련하여 그것을 결정하고 통제하는 주체가 누구이며 그 결정과정이 중앙집권적인가 분권적인가 하는 문제는 교육과정 실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국가의 교육과정 통제방식은 대개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방식(central control), 지역 학교구(school districts)가 주도하는 방식(local control), 교사들이 주도하는 방식(teachers control) 등으로 구분되는데(Lawton, 1980), 우리나

4) 제7차 교육과정에서도 제6차 교육과정에서 정의된 교육과정의 의미가 그대로 강조되었다. 즉 교육과정의 의미 속에는 교육부 장관이 고시하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기준과 시·도 교육감이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각급 학교에 제시하는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그리고 이들 기준과 지침을 근거로 하여 실제로 교육에 투입될 수 있도록 각 학교에서 실정에 알맞게 조정, 편성된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다. 또한 여기에 부가적으로 학교 교육과정에 따라 실제 교실 수업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교사가 계획해 놓은 구체적인 교수·학습 계획(연간, 월간, 주간)도 교육과정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라의 경우 제5차 교육과정까지 주로 교육부 주도의 중앙집권적 교육과정 결정방식을 채택하여 학교 교육과정의 모든 것이 중앙에서 결정되고 학교는 이를 시행하는 역할로 규정되었다. 그러나 교육과정 결정의 분권화 및 교육과정 자율화가 확대되면서 제6차 교육과정 이후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도 초·중등 교육의 다양화·지역화·자율화를 위해 교육과정 결정방식의 분권화를 시도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교육과정 결정의 주체에 따른 각 수준은 [그림Ⅰ-1]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그림Ⅰ-1] 교육과정의 수준

[그림Ⅰ-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가에서 고시한 교육과정의 공통적, 일반적인 '기준(Ⅰ)'과 이 기준에 따라 지역별로 그 지역의 특성과 역사, 전통, 자연, 산업, 사회, 문화 및 주민·학부모의 요구, 의견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만든 교육청의 '지역 수준 교육과정'(Ⅱ)이 있다. 또한 각 학교의 실정 및 학생의 실태, 학교 환

경, 교원 실태 등을 고려하여 창출한 '학교 교육과정'(Ⅲ)이 있다. 특히 (Ⅰ)과 (Ⅱ)는 학교 수준 교육과정과 교사 수준의 교수·학습 계획 수립의 바탕이 되는 기준과 지침인 동시에 그 지원 관리 체제라고 할 수 있다.

2) 국가 수준 교육과정

우리나라의 '국가 수준 교육과정'이란 초·중등학교의 교육 목적과 목표 달성을 위해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5]에 입각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결정, 고시하는 교육내용에 관한 전국 공통의 일반적 기준을 의미한다. 이 기준에는 초·중등학교에서 편성·운영하여야 할 학교 교육과정의 교육 목표와 내용, 방법과 운영, 평가 등에 관한 국가 수준의 기준 및 지침이 제시되어 있다.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하여 고시되는 국가 수준 교육과정은 의도적인 제도교육의 목표와 내용, 방법, 평가의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교육의 지원과 관계되는 교육행정 및 재정, 교원의 양성·수급·연수, 교과서 등의 교재 개발, 입시 제도, 교육 시설·설비 등에 대한 정책 수립과 집행의 근거가 되는 '교육의 기본 설계도'로서 기능하게 되며, 학교 교육과정의 기준으로서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된다. 국가 수준 교육과정 기준은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성격에도 그 의미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다. 국가 수준 교육과정 기준에는 법적 구속력이 있지만 동시에 이 기준은 교육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교육적 기준이므로 국가 교육과정 기준을 지역 및 학교의 실정에 알맞게 운영하는 것 또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3) 지역 수준 교육과정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기준은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편성·운영하여야 할 교육내용의 공통적, 일반적인 기준이므로 각 지역의 특수성과 각 학교의 다양한 요구와 필요를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 모두 반영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

5) 초·중등교육법(법률 제8917호, 일부 개정 2008. 3. 21) 제23조 제2항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 안에서 지역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다.

라서 시·도 교육청 수준에서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서 획일적으로 제시하기가 어렵거나 세밀하게 규제함이 바람직하지 않은 사항을 그 지역의 특수성과 학교의 실정, 학생의 실태, 학부모 및 지역 사회의 요구, 그리고 해당 지역과 학교의 교육 여건 등에 알맞게 정하여야 한다. 또한 그 지역의 교육 중점 등을 설정하여 관내의 각급 학교에서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때 준거로 삼게 하려면 각 시·도 교육청에서는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작성하여 학교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 지역 수준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은 국가 기준과 학교 교육과정을 자연스럽게 이어 주는 교량적 역할을 하게 되며, 장학 자료, 교수·학습 자료 및 지역 교재 개발의 기본 지침이 될 수 있다.

지역 수준의 교육과정을 설정하는 법적 근거는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 등에 제시되어 있다. 또한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교육청 수준 지원 사항으로 그 근거가 제시되어 있다. 즉 지역의 특수성, 교육의 실태, 학생·교원·주민의 요구와 필요 등을 반영하여 교육 중점을 설정하고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기준이 제시된 이러한 근거는 각 시·도 교육청에서 각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전문적이고 기술적으로 지원적 관여를 할 수 있음을 적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 학교 수준 교육과정

국가 수준에서 학교 교육과정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종래의 경우 교사의 역할은 위로부터 부여받은 교육과정을 단순히 실행하는 것으로 한정되었다. 이러한 역할은 교육과정을 받아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 것인가 하는 교수(teaching)에 국한된 것이다. 그렇지만 교육과정 결정의 분권화와 교육과정에 대한 학교의 자율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오면서 교사의 역할이 종래와 같이 교육과정 실행자 및 사용자, 교수자에만 한정되지 않고 교육과정의 결정자로 확대되었다. 말하자면 교육과정의 최종적 실천자인 교사가 바로 교육과정의 최종 결정자이고 개발자로 자리매김된 것이다.

따라서 교육의 실천자이고 교육의 주체인 교사가 교육 내용과 방법을 결정하고

어떻게 실천하고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주요한 역할 과제가 되었다. 각 학교에서 일련의 교육 실천 계획을 수립하고 중점 교육 내용과 방법을 선택하고자 할 때 그 근거가 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국가 교육과정 기준과 시·도 교육청 지침이기 때문에 교사들은 이 기준과 지침을 자세히 분석하는 동시에 학교의 교원·학생 실태, 교육 실태, 교육 시설·설비, 자료 등의 교육 여건 등을 잘 파악하여야 한다. 학교의 여건과 실태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에 기초하여 학생들에게 실천 가능한 교육 설계도를 마련하고, 그러한 설계도에 담긴 특색을 구현할 수 있는 운영 계획 및 세부 실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학교의 교육 목표와 중점, 경영 철학, 전통, 특성 등을 치밀하게 반영하고 창의적이고 독특한 교육 내용, 방법과 운영 방식으로 학교 나름의 특색 있는 교육과정 창출을 도모하도록 한다.

이렇게 학교 수준 교육과정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교사는 스스로 교육과정에 대한 역량이 고양되며 소속한 학교 특유의 교육과정이 창출되는 것이다. 교사에게 이러한 역할이 요구되는 까닭은 각 학교에 적합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교육과정을 다양화하고 학교 자율성을 강화하고자 함이며, 결국 이를 실현할 수 있는 핵심 주체는 교사이기 때문이다. 교사는 학교 교육과정의 최종적 실행자인 동시에 학생들의 능력과 요구를 가장 잘 파악하고 학교의 지역적 특수성을 가장 아는 사람이다. 따라서 교사들은 단순히 교육과정 사용자가 아니라 교육과정의 실천가임과 동시에 개발자 및 결정자로서의 전문적 역량 신장이 지속적으로 요구될 것이다.

2. 교육과정의 법적 근거

교육과정과 관련되는 법령은 크게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그리고 그 외의 기타 법령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교육과정의 법적 근거가 되는 법령의 개요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하고 각 조항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부록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① 헌법

헌법 제31조에는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의 자주

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등이 보장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다.

② 교육기본법

교육기본법 제2조에는 우리나라의 교육이념과 목적이 명시되어 있다.

③ 초·중등교육법

가. 초・중등학교의 교육 목적 : 초·중등교육법 제38조, 제41조, 제45조에는 초・중・고등학교의 교육 목적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중학교의 경우 '초등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 위에 중등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음), 이에 따른 각급학교 교육 목표는 교육과학기술부 고시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다.

나. 교육과정 및 교과 :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는 학교가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함을 명시함으로써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법적 근거가 되고 있다. 그리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교육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 안에서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수준 교육과정과 시・도교육청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작성의 근거가 되고 있다.

또한 학교의 교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3조는 중학교의 기본 교과로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및 외국어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로 명시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는 교육과학기술부 고시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다.

다. 학기, 학급 편성, 수업 운영 등 : 초·중등교육법 제24조에는 학교의 학년도를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규정하고, 그 밖의 학교의 학기・수업 일수・학급 편성 및 휴업일과 반의 편성・운영 기타 수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즉 관련된 규정을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4조, 제45조(수업 일수), 제46조(학급 편성), 제47조(휴업일 등), 제48조(수업 운영 방법 등), 제49조(수업 시각) 등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라. 학년제,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학습부진아 교육, 수업 연한 : 초·중등교육법 제26조는 학생의 진급 또는 졸업은 학년제에 의하도록 하되, 학교의 장은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학년제 외의 제도를 채택할 수도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초·중등교육법 28조에

는 학습 부진 또는 성격 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어려운 학생 및 학업을 중단한 학생을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일수 및 교육과정의 신축적 운영 방식 등을 강구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42조에 중학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만 동법 제27조에 예외적으로 학교장은 재능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수업연한의 단축에 의해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조기진급및조기졸업에관한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마. 교과용 도서의 사용 : 초·중등교육법 제29조에 학교에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한 교과용도서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그 밖의 교과용도서의 범위, 저작, 검정, 인정, 발행, 공급, 선정 및 가격 사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5조에 따른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바.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 초·중등교육법 제32조에는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 교과용 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국·공립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사립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사. 장학 지도, 학교 규칙, 학생 자치 활동 : 초·중등교육법 제7조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에 대하여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 방법 등에 대한 장학 지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장학 지도 실시 세부 계획 수립에 관하여서는 대통령령(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조)으로 규정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8조에는 학교의 장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도·감독기관의 인가를 받아 학교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17조에는 학생 자치 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자치 활동이 권장, 보호되도록 하고 있다.

아. 평가 및 학교 생활 기록 : 초·중등교육법 제9조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지방 교육 행정 기관과 학교에 대해서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동법 제25조에는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업 성취도 및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학생 지도 및 상급 학교의 학생 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기준(학교생활기록의작성및관리에관한규칙)에 따라 작성·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④ 기타 법령 : 기타 교육과정과 관련되는 법령으로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교육과정심의회규정, 학교보건법, 과학교육진흥법, 영재교육진흥법,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유아교육법,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 등을 들 수 있다.

3. 중학교 교육과정의 변천

광복 후 60여 년 동안 우리나라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은 모두 10여 차례 이상 개정되어 왔다. 미군정기의 교육에 대한 긴급조치, 교수요목 등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의 1-7차 교육과정, 그리고 2000년대 수시개정체제 이후의 2007년 개정 교육과정 등이다. 여기서 이를 각 시기별 특징을 중심으로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교육에 대한 긴급조치기(1945～1946)

1945년 8.15 광복과 더불어 미군정청은 초·중등학교 개교의 시급성을 절감하고 그 해 9월 17일 교육에 대한 긴급조치로 일반명령 제 4호를 공포했다. 그들은 '새 조선의 조선인을 위한 교육'을 표방하고 우선 기존 교육과정에서 '수신'을 폐지하고 '공민'을 신설하였으며 일본어, 일본 역사 대신 우리 말, 우리글과 우리 역사를 복원시켜 중학교의 경우 공민, 국어, 지리·역사, 수학, 물리·화학·생물, 가사, 재봉, 영어, 체육, 음악, 습자, 도화, 수예, 실업 등을 교육과정에 포함시켜 주 32-35 시간씩 가르치도록 했다. 교수 용어도 당연히 한국어를 사용하게 했다.

나. 교수요목기(1946～1954)

광복 직후 전국적으로 통일된 교수요목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때마침 1947년부터 중등학교 6년제 개편이 예정되어 있어 이에 대비하기 위해 각 교과의 교수요목 제정과 함께 1946

년 9월 초·중등학교 교과과정이 공포되었다. 비록 그 명칭은 '교수요목' '교과과정표'이었지만 미군정청 주도하에 제시된 교육과정이었기 때문에 초급중학교의 경우 교과통합, 선택과목·특수과목 개설 등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 특히 교과통합과 관련하여 공민, 지리·역사가 '사회생활'로, 물리·화학·생물이 '일반과학'으로, 가사·재봉·수예·실업 등이 '실과'와 '수공'으로, 습자 ·도화가 '미술'로 통합되어 이후의 교과 구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필수과목에는 국어, 사회생활, 수학, 일반과학, 체육·보건, 실과, 음악 등 7과목만 포함되어 있고 외국어, 미술 등은 선택과목으로 제시되어 있다. 주당 학습시간 수도 39시간으로 크게 증가했다.

다. 제 1차 교육과정기(1954～1963)

1948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1949년에 교육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우리 손으로 만든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제정이 절실하였다. 그러나 6.25 전쟁으로 지지부진하다가 1953년 부산 피난 정부에서 다시 추진되어 1954년에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시간배당 기준령 (문교부령 제 35호)이, 1955년에 교과과정(문교부령 제 45호)이 제정, 공포되기에 이르렀다. 광복 후 우리 손으로 만든 최초의 교육과정이라 해서 '제 1차 교육과정'으로 명명되었다. 명칭이 '교과과정'이라 흔히 교과중심 교육과정으로 일컬어지고 있지만 실제상으로는 미국 교육사절단의 영향으로 경험중심 교육과정의 정신이 스며들어 있다. 중학교 교육과정에 있어 그 편제는 전인교육을 표방하여 교과와 특별활동으로 구성되었다. 교과는 필수와 선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필수교과에 '미술'이 추가되어 모두 8개 교과가 되었다. 전쟁 후의 사회적 혼란과 도덕적 타락을 극복하기 위해 반공·도의교육이 강조되었고, 실업 교과들이 실업·가정으로 통합되어 매우 강화되었다. 주당 학습시간 수도 34-38 시간으로 하향 조정되었다.

라. 제 2차 교육과정기(1963～1973)

미국교육사절단의 활동으로 경험중심·생활중심 교육과정 사조가 대세를 이루어 1963년 문교부령 제 119호 - 제 122호로 경험중심의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이 제정 ·공포되었다.

교육과정이 '학교의 지도아래 학생이 가지는 모든 학습경험'으로 규정되고 교육과정 내용에서 자주성, 생산성, 유용성이 강조되었으며 그 조직 ·운영에서 합리성, 지역성이 중시되었다. 또한 박정희 군사 정부의 요구가 반영되어 반공·도덕 교육이 크게 강화되었다. 중학교의 경우, 교육과정 편제는 교과활동, 반공·도덕 생활, 특별활동으로 구성되고 교과 활동은 종래 선택교과였던 외국어(영어)를 포함시켜 모두 9개 교과의 필수 교과 체제로 전환하였으며 사회생활 교과의 명칭이 '사회'로 바뀌었다. 1교시의 수업 시간 량도 종래 50분 단위에서 45분 단위로 감축되었다.

마. 제3차 교육과정기(1973～1981)

제3차 교육과정은 1968년에 선포된 국민 교육헌장의 이념과 당시의 학문중심 교육과정 사조가 반영되어 1973년, 1974년에 문교부령 제 310호, 제 325호, 제 350호로 개정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이다. 국민 교육헌장에 나타난 창조의 힘과 개척정신, 협동정신, 국민정신 등과 학문중심 교육과정운동에 내재되어 있는 지식의 구조와 탐구학습, 그리고 1970년대와 1980년대의 시대적 상황 등이 반영되어 ① 자아실현 ② 국가발전 ③ 민주적 가치 등을 교육과정 일반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① 도덕을 교과에 편입시켜 강화하고 ② 국사를 사회과에서 분리하여 독립시켰으며 ③ 실업·가정을 필수와 선택으로 나눠 필수에서 남학생에게는 '기술'을, 여학생에게는 '가정'을 이수하게 했다. ④ '한문'은 이미 1972년의 부분 개정(문교부령 제 300호)에서 교과에 포함되어 그대로 유지되었다. 따라서 교육과정 편제는 교과와 특별활동으로 재구성되고 학생들의 이수 교과수가 13개로 대폭 늘어났다. 수업방법으로 탐구와 발견이 크게 강조되었다.

바. 제4차 교육과정기(1981～1987)

제4차 교육과정은 5공화국의 출범과 7·30 교육개혁 조치 등을 배경으로 한다. 한국교육개발원을 중심으로 연구 개발 (R&D)형 교육과정을 구성하였으며, 특정 교육과정 사조에 얽매이지 않는 종합적 교육과정 모형을 제시하려 했다. 제3차 교육과정에서의 ① 너무 어려운 교육내용 ② 과다한 학습내용 ③ 분과주의 등을 극복하고 ① 국민정신 교육의 체계

화, ② 전인교육의 강화 ③ 과학 기술교육의 심화 ④ 교육내용의 양과 수준의 적정화 등을 강조했다. 실제 교육과정 편제에 있어서는 초등학교의 경우 1, 2 학년 과정에서의 통합교육(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등 중요한 변화가 있었으나, 중학교에서는 '자유선택'의 신설, 실업 가정에서의 이수시기 조정, 2·3학년의 이수 시간 축소 등 이외에는 큰 변화는 없었다.

사. 제5차 교육과정기(1987～1992)

교육과정의 적정화·내실화·지역화를 목적으로 1987년 문교부 고시 제87-7호, 제87-9호, 제88-7호로 개정된 교육과정이다. 제4차 교육과정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그 내실화에 초점을 맞춰 ①기초교육의 강화, ②정보화 사회에 대응하는 교육, ③특별활동 강화, ④ 특수학급 운영지침 명시 등이 시도되었다. 중학교의 경우, 교육과정 편제와 시간배당에 있어 '실업·가정'에서 남녀가 공통으로 이수할 수 있는 기술·가정 과목의 신설, 3학년의 수학과 과학 시간 증가, 자유선택 시간 증가 등의 변화가 있었다. 교육과정 시행에서 지역화가 강조되었다.

아. 제6차 교육과정기(1992～1997)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다가오는 21세기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교육개발원과 그와는 별개의 교육과정 개정·연구 위원회를 중심으로 교육과정 개정이 추진되어 교육부 고시 제1992-11호, 제1992-16호, 제1992-19호로 공포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이다. 제6차 교육과정의 가장 큰 특징은 교육과정의 분권화·다양화·자율화라 할 수 있다. 말하자면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결정 과정을 종래와는 달리, 교육부는 국가 수준에서 전국 공통의 일반적 기준만 제시하고 각 학교에서 실시되는 교육과정은 시·도 교육청과 학교의 협력을 통해 결정한다는 것이다. 이른바 국가 수준 교육과정, 시·도 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학교교육과정 등 새로운 술어들이 유행했다. 이와 같이 교육과정 결정의 분권화를 통해 그 획일성·경직성을 극복하고 교육과정의 다양화·자율화·지역화를 도모하였다. 이러한 방침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으나 중학교에 있어서도 우선 ① 실업·

가정 영역이 '가정' '기술·산업'으로 재구성되어 남녀 공통으로 이수하게 하고 ② '국사'가 '사회'에 통합되었으며 ③ 종래 필수교과였던 한문과 컴퓨터, 환경 등이 선택교과로 신설되는 등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 연간 수업 시간수도 1156시간으로 감축되었다.

자. 제7차 교육과정기(1997～2007)

1995년 교육개혁위원회의 5·31 교육개혁안을 토대로 교육과정 특별위원회에 의해 추진되어 교육부 고시 제1997-15호로 제시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이다. 무엇보다도 "21세기의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한국인 육성"을 목적으로 ①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 ② 교과군 개념 도입 ③수준별 교육과정 도입 ④재량활동의 신설·확대 ⑤교과별 학습량의 최적화와 수준 조정 ⑥고등학교 2,3학년의 선택중심 교육과정 등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했다.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하나의 체제 속에 통합하여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10년간의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과 고등학교 2, 3학년의 선택중심 교육과정으로 조정하고,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에는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실과, 체육, 음악, 미술, 외국어(영어)의 10개 교과만 포함시켰으며, 학생들의 개인차를 고려하여 수학·영어와 국어·사회·과학 그리고 선택중심 교육과정에 수준별 교육과정을 도입했다. 종래 중학교의 선택교과는 재량활동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하게 했다. 제6차 교육과정의 지역화 기조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차. 2007년 개정 교육과정

제7차 교육과정 이후의 여러 가지 현실적 어려움과 그 동안의 국가·사회적 요구, 주5일 수업제 시행 등을 반영하여 제7차 교육과정의 골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2007년 2월 부분적인 총론 개정이 이루어졌다(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 2007-79호). 이에 앞서 2003년부터 교육과정 수시 개정체제가 도입되어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명칭도 '2007년 개정 교육과정'으로 명명되었다. 중학교의 경우 ①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의 사회 교과에서 '사회' '역사'의 과목 분화가 이루어져 별도의 학년과 시간이 배당되고 ②수준별 교육과정이 수준별 수업으로 바뀌고 '단계형' '심화 보충형' 등의 구분이 폐지되었으며 ③집중이수제가 강화되어

학기별로도 교과목 이수가 가능해졌고 ④ 주5일 수업제 시행으로 재량활동 시간 수가 감축되었다.

4. 2009 개정 교육과정 개정의 배경 및 기본 방향

가. 교육과정의 개정 배경

국가 교육과정은 학교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 초·중등교육의 질을 높이며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과정이 보다 포괄적이며 실효성 있는 기준으로서 학교 교육 전반을 이끌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진단과 함께 교육과정 개선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고시를 전후로 하여 2007년 10월부터 2009년 2월에 걸쳐 두 차례의 '국가 교육과정 포럼'을 추진하였다. 2007년 포럼에서는 교육과정 체제 구조 검토 및 개선, 학교 교육과정과 대학입시의 연계, 미래 사회와 학교 교육의 과제, 창의력 함양과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관한 연구를 주요 문제로 다루었다. 2008년 포럼에서는 미래 지향적 교육과정의 방향 및 편성·운영이 다루어졌으며, 고등학교 교육과 대학입시 연계 방안을 다루었고, 향후 교육과정 정책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와 같은 두 차례의 포럼은 교육과정 체제 개편으로서 국민공통교육기간 하향 조정, 교과목 축소, 공교육과 대학입시의 연계로서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연계, 미래 학교의 역할을 재조명하여 '흥미롭고 깊이 있는 학습 기회' 제공과 자율권 확대 등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이와 더불어, 2008년 국정 과제로 수행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선진화 개혁 방안 연구'에서는 첫째, 교육과정 선진화와 교육과정 설계의 합리화 방안, 둘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의 적정화 방안, 셋째,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특성화 방안, 넷째, 단위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화 방안, 다섯째, 초·중등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두 차례의 국가 교육과정 포럼과 교육과정 선진화 개혁 방안 연구를 발판으로, 대통령직속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의 교육과정특별위원회는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의 미래 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미래형 교육과정'을 구상하면서 '글로벌 창의인'[6]을 학교교육이 추구하는 인간상으로 설정하였다. 미래형 교육과정

구상의 주안점은 교육과정 적합성 제고, 교육과정의 적정화, 교육과정의 다양화, 교육과정의 자율화, 교육과정의 책무성 강화이다. 이를 바탕으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선에서는 첫째, 과잉 규제 완화 및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 확대, 둘째, 공통 교육과정과 선택 교육과정의 합리적 범위 설정, 셋째, 학습자・지식・사회 측면에서 교육 내용의 적합성 확보, 넷째, 학년군간・학교급간・교과간 계열성과 통합성 제고에 중점을 두었다.

1) 미래형 교육과정 구상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에 걸친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을 중학교 3학년까지로 하향 조정하고, 고등학교 3년간의 교육과정을 선택 교육과정으로 확대하였다.

2) 교육과정의 편제는 교과와 교과외 활동으로 이원화하여 체계적인 교과 학습을 비롯하여 보다 풍부하고 활성화된 교과외 활동(범교과적 학습, 봉사활동, 프로젝트 활동 등)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였다.

3) 교과 영역의 편제에서는 교과(군) 접근을 통해 학기당 이수 과목 수를 축소하고, 교과 간에 소통과 통합 지도의 가능성을 확대하였다. 또한 학년군별 교과 교육과정 기준 제공으로 학생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하여 단위 학교에 교과 및 시간 운영의 융통성과 자율성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4) 수업 시수 편성의 자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최소 수업 시수'를 적정하게 설정하되, 지역과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며, 학년별·교과별 세분에 의한 구획성, 경직성을 탈피하고, 학생 집단의 특성과 필요에 따라 수업 시수를 융통성 있게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5) 고등학교 교육과정 개선에서는 학생의 진로와 적성 계발을 증진하고자 선택 교육과정을 3년으로 확대하고, 교과영역별・교과(군)별 최소 필수 이수 단위를 제

---

6) 국가교육기술자문회의 제1차 회의에서 글로벌 사회를 주도하는 창의 인재의 육성을 제안하고, 다음과 같이 능력있는 사람, 실용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을 미래형 교육 인간상으로 제시하였다(국가교육과학기술정책의 비전과 전략, 2008.10.29 자료).

능력있는 사람	실용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지구촌 어느 곳에서나 역량을 충분히 발휘	변화를 수용하고 미래를 개척하며 무한히 성장	고정 관념을 뛰어넘어 새로운 대안을 제시

공하고자 하였다.

6) 교과 교육과정 개선을 위해서 교육 목적과 목표 달성의 효과성(effectiveness)을 제고하고, 학습 에너지의 효율성(efficiency)을 추구하며, 교수-학습 활동 여건 대비 실행가능성을 제고하여 교과 교육과정의 경쟁력을 제고하였다. 그리고 교과별 최소 필수(minimum essential) 학습 내용을 정선하였다. 이 과정에서 교과 간 · 활동 영역 간 과다한 중복 또는 과도한 반복을 해소하고, 교과 내용과 '범교과학습' 주제의 중복을 해소할 것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교과 교육의 목표와 내용 수준을 고려하여, 9학년말까지 갖추어야 할 공통 기본 소양과 10~12학년에서의 심화 소양을 위한 내용 수준과 범위를 고려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교과(목) 개설에서의 이수 방식을 고려하고, 교과 교육과정 개선 및 질 관리 체계를 확립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구조(편제)에 대한 미래형 교육과정 구상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제안이 이루어졌다. 첫째,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 기간을 하향 조정한다. 둘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구조 개편으로서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을 교과외 활동으로 재편하여, 글로벌 창의인이 구비해야 할 핵심 역량을 획득할 수 있는 학습 기회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셋째, 고등학교 교육과정 구조 개편으로 무학년제와 교과 교실제 도입을 활성화하고, 교과(군)별 보통교과와 전문교과를 재정비하며, 학교간 프로그램 연계 운영을 지원하고,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확대하도록 하였다. 넷째, 교과 교육과정 개편을 위해 총론에서 교과별 기준 개발을 위한 공통 기준을 제시하고, 교과별 교육과정은 해당 분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서 개발하되 합의 가능한 교과부터 먼저 수정 고시할 수 있도록 한다. 다섯째, 교육과정 질 관리를 위하여 자율성에 따른 책무성을 확대하고, 기초학력 결손 학생의 보정교육을 위해 3, 6, 9학년 초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한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시·도 교육청 및 학교 평가를 실시한다.

나. 중학교 교육과정 개정의 방향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방향은 '하고 싶은 공부, 즐거운 학교'가 될 수 있도록 1) 학생의 지나친 학습 부담을 감축하고, 2) 학습 흥미를 유발하며, 3) 단편적 지식·이

해 교육이 아닌 학습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하고, 4) 지나친 암기중심 교육에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창의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으로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유의미한 학습과 전인적 성장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이 구성되어야 한다. 2009 교육과정 개정의 방향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교육과정 편제 구조 개선을 위해 '학년군', '교과(군)' 접근을 시도하였다. 학년군 접근은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경직성을 탈피하고 학년간 상호 연계와 협력을 통하여 교육과정의 유연성을 부여하며, 학년별, 학기별 집중 이수를 통해 학기당 이수과목 수를 줄일 수 있다.[7] 교과(군) 접근은 교육과정의 수평적 연계성을 통하여 교과간 소통과 교육 내용의 통합 가능성을 증진시키고, 교과 편제와 수업 시수 배정에서의 경직성과 폐쇄성을 탈피하여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교육과정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8]

2) 학습자들이 유의미한 학습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학습 부담의 적정화를 추구하였다. 현재 초등학교 고학년은 주당 10개 과목을, 중등학생들은 11~13개의 과목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어 학습 부담이 과중하며, 학습 효과 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매 학년 매 학기에 모든 교과목을 편성해 온 관행에서 벗어나 주당 수업 시수가 적은 교과목은 특정 학기, 학년에 집중 이수하도록 하는 '교과 집중 이수제'를 통하여 학습 부담을 적정화하는 동시에 학습 효과를 제고하도록 하였다.[9]

3)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선택 교육과정을 확대하고 교육과정 편제 구조와 교과목을 조정하였다. 현행 10개 학년에 걸친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에서는 거의 모

---

7) 외국의 경우 국가 교육과정 기준을 제시하면서도 학년과 교과 시수 제시 방식 등에서 지역과 학교의 여건, 필요, 요구를 감안하여 자체적으로 편성・운영할 여지를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학년군 운영 사례로서 프랑스는 1-2학년/3-5학년, 영국은 1-2학년/3-6학년/7-9학년/10-11학년, 싱가포르는 1-2학년/3-6학년, 미국 루지애나주는 1-3학년/4-6학년/7-8학년, 대만과 중국은 학년별 접근과 함께 교과(군)별 학습 단계를 다양한 학년군으로 구분하고 있다.

8) 교과군 접근은 제7차 고등학교 선택중심 교육과정에서 적용되었다. 즉 선택 과목은 학생들의 균형적인 이수를 위하여 ① 인문・사회 과목군(국어, 도덕, 사회), ② 과학・기술 과목군(수학, 과학, 기술・가정), ③ 체육 과목군(체육), ④ 예술 과목군(음악, 미술), ⑤ 외국어 과목군(외국어), ⑥ 교양 과목군(한문, 교양)으로 나눈다. 모든 학생은 ①~④ 과목군에서는 각각 1과목 이상, 외국어 과목군에서는 영어를 제외한 외국어 중 1과목 이상, 교양 과목군에서는 2과목 이상을 이수한다.

9) 집중이수제 : 수업시수가 적은 일부 과목의 이수시기를 특정 학년이나 학기에 집중이수하게 하는 방식

든 계열의 고등학교에서 10학년에 공통 기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점에서 학생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거나 교육과정 자율화를 시도하는 고등학교에서는 장애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첫째,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을 9년(중학교 3학년까지)으로 조정하여 국민기초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초·중학교 과정으로 명확히 하고, 전 학생의 기초 학력을 강화하였다. 둘째,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기초 핵심 역량을 강화하며, 교과 영역간 균형 있는 학습을 위하여 기초 영역(국어, 수학, 영어)과 탐구 영역(사회, 과학)을 강화하는 동시에 체육· 예술 영역, 생활 및 교양 영역을 설정함으로써 균형 있는 교육과정 이수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셋째, 지나치게 세분화된 선택 과목을 통합하여 재설정하고, 학생의 적성과 소질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구현하고자 하였다.

4) 학습자들의 전인적 성장을 위해서 '창의적 체험활동'을 신설하였다. 현재 재량활동은 창의적 재량활동(자기주도학습, 범교과학습)과 교과 재량활동으로 구성되며, 특별활동은 자치활동, 적응활동, 계발활동, 봉사활동, 행사활동(순서 확인)으로 지나치게 세분되고 상호 중복되며, 국가·사회적 요구가 우선되는 등 원래의 취지에 벗어난 면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별활동과 창의적 재량활동을 통합하여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개편하여 전인적 성장이 가능한 학교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창의적 체험활동의 수업 시수는 초등학교는 주당 최소 2시간, 중학교는 주당 최소 3시간, 고등학교에서는 주당 최소 4시간을 운영하도록 하였다.

5) 단위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였다. 기존의 교육과정은 지역, 학교, 학생 집단의 특성과 무관하게 전국적으로 획일적인 교육과정이 편성·운영되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단위 학교의 실정과 요구에 기반 하여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을 편성·운영하는 데는 여러모로 제약이 있었다. 아울러 학습 부진이 심한 교과목에 대해 단위 학교 교육과정에서의 탄력적 대응이 어려우며, 학생의 적성과 진로, 능력의 다양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국가 수준에서는 교육과정 운영의 기본 틀만 제시하고 단위 학교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을 대폭 강화하여 학교교육의 실질적인 다양화와 특성화를 유도하여 교육과정 운영의 유연성을 증대하고자 하였다.

Ⅱ. 교육과정의 구성의 방향

1. 추구하는 인간상

국가 교육과정에서는 우리 초·중등교육이 추구해 나가야 할 교육 비전으로서 인간상을 제시해 왔는데,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이러한 틀을 유지하면서 미래 사회에서 요구되는 핵심 역량 등 오늘날 사회에서 요구되는 측면을 부각시킨 인간상을 새롭게 제시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는 교육기본법(제2조)에 제시된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을 구체화하여 제시한 것이다.

1. 추구하는 인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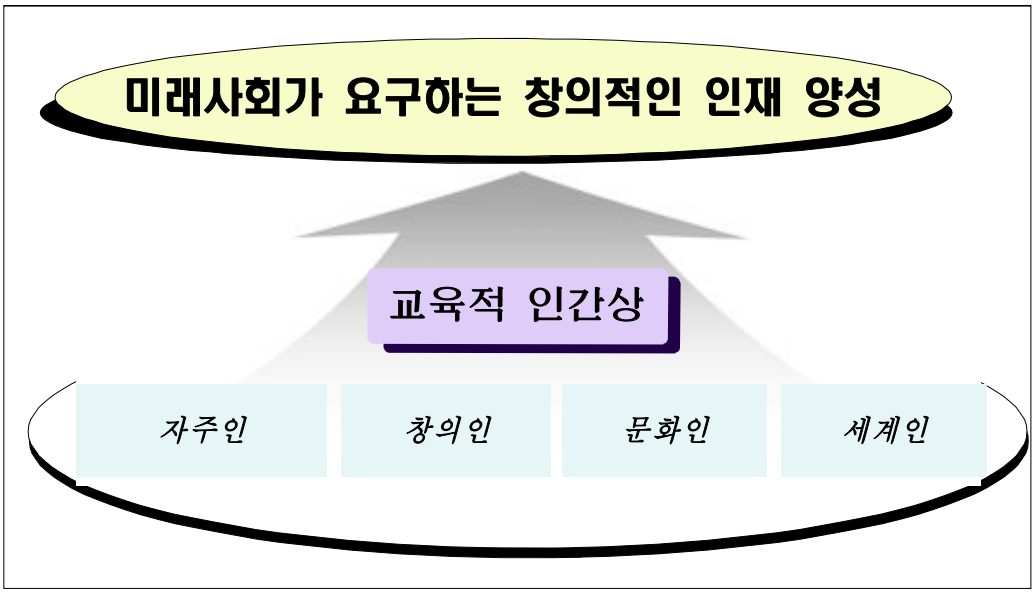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 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 이념을 바탕으로, 이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은 다음과 같다.

가. 전인적 성장의 기반 위에 개성의 발달과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
나. 기초 능력의 바탕 위에 새로운 발상과 도전으로 창의성을 발휘하는 사람
다. 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품격 있는 삶을 영위하는 사람
라. 세계와 소통하는 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의 정신으로 공동체 발전에 참여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교육과정에 제시된 인간상의 의미를 좀더 명료하게 이해하기 위해 각 진술문을 요약적으로 표현하고, 이를 도표화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자주인 (self-directed person)	창의인 (creative person)	문화인 (cultivated person)	세계인 (global-minded person)
지·덕·체의 고른 발달, 개성의 발휘, 진로 개척, 자기 주도성 등	기초능력 구비, 확산적 사고, 문제 해결능력, 독창성, 새로운 가치 창출 능력 등	다양한 문화적 소양,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 삶의 질 추구 등	의사소통능력, 세계 시민의식, 지구 공동체 문제 해결, 인류공영, 배려와 나눔 등



[그림 Ⅱ-1] 추구하는 인간상[10)]

이상과 같이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은 세계 속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진로를 개척하고 국가와 지구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전인적 성장의 기반 위에 개성의 발달과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

초·중등학교 교육에서는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전인(全人)적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 전인적 성장이란 학생들의 몸과 마음 곧 지(智)·덕(德)·체(體)가 고루 발달하여 균형 잡힌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말한다. 학생들은 미래 사회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

10) 이 [그림]은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미래형 교육과정에 대한 논의 가운데 핵심 사항으로 제시된 것을 요약한 것임을 밝혀 둔다.

술, 태도와 행동을 배울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발달·유지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전인적 성장은 평균적인 인간의 육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 각자가 가진 개성을 찾고, 발달시키는 것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공통 교육과정과 선택 과정을 두어 학생들의 적성과 진로 등을 고려할 수 있게 하는 변화 등이 바로 이러한 개성의 신장 등과 연관이 될 것이다.

이러한 학생들의 발달은 궁극적으로 학생들이 성공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다양한 진로를 모색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야 한다. 곧 학교 교육을 통한 전인적 성장과 개성의 발달을 토대로 학생 각자가 자신이 원하는 진로를 찾아 미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한 몫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기초 능력의 바탕 위에 새로운 발상과 도전으로 창의성을 발휘하는 사람

위에서 언급했듯이,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글로벌 창의 인재'로 요약되는 미래 사회의 인재를 기르기 위해 교육과정을 새롭게 구성하였다. 그런데 다음의 창의성 구성 요소에서 보듯이, 창의성은 단지 우연적인 독창적 사고만으로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요구되는 맥락에 알맞게 구현할 수 있는 정교성과 비판적 사고력 등이 요구되는 것이다. 따라서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우선 기초 능력을 갖추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발상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을 기르고자 하였다.

창의적 인재의 특성이 무엇인가는 수많은 학자들이 제안하는 다양한 논의들이 있지만, 이 글에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종합적인 의미를 토대로 논의를 해보고자 한다. 영국의 창의·문화교육국가자문위원회(National Advisory Committees on Creative and Cultural Education: NACCCE)는 창의성을 '독창적이고 가치 있는 산출물들을 생산해 내기 위한 상상적인 활동'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이 위원회에서는 창의성에 대한 민주주의적 정의를 취하고 있는데, 이는 적절한 조건이 제공되고 관련 지식과 기능을 습득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몇몇 활동 분야에서 창의적인 성취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관점이다. 이러한 관점은 교육과정에서 창의성을 추구하는 것과 일관된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김영철(2006)은 창의성이란 '인간의 삶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가치 있는 문화 특성이나 문명 이기를 창출해 내고자 자연 현상이나 삶의 세계에 대하여 새로운 시각에서 통찰하거나 융통성 있는 발상의 전환과 사고의 전환을 통하여 가치 있는 지적, 과학적, 문화적 아이디어와 산출물을 생산해 낼 수 있는 능력'이라 정의하였다. 그리고 Guilford(1967)에 의하면, 특히 '확산적 사고'는 창의성이나 문제 해결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확산적 사고의 네 가지 하위 요소-유창

성, 융통성, 독창성, 정교성-가 갖는 주요 특성 때문이다.

최근 창의성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표Ⅱ-1>과 같이 확산적 사고와 함께 창의적 성향까지를 창의적 인재가 갖추어야 할 특성이라고 보고 있다.

<표 II-1> 창의적 사고와 창의적 성향

구분		
창의적 사고 능력	확산적 사고	유창성
		융통성
		상상력
		독창성
	논리적, 비판적 사고	정교성
		비판 및 평가
		논리, 추론
		분석
		종합
창의적 성향	개방성	
	과제 집착력/집중력	
	호기심	
	자발성	
	자기 신뢰감	
	민감성	

출처: '이종연 외(2005). 창의적 문제해결력 증진을 위한 Creative Thinker 프로그램 연구. 서울: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제시된 것을 재구성한 것임

3) 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품격 있는 삶을 영위하는 사람

미래사회에서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삶의 모습은 경제적 풍요를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학생 각자가 다양한 문화에 대한 감수성을 바탕으로 풍부한 학습 경험을 통해 문화적 소양을 갖추고 향유하는 것이다. 우리 문화에 대해 올바로 이해하고 향유하며, 다양한 문화의 세계를 경험하며, 우리문화 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교류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화에 대한 이해는 그 밑바탕에 다양한 가치에 대한 관용적 태도를 포함한다. 우리 사회가 다문화 되어 가면서 미래의 교육에서는 우리 문화에 대한 정체성 교육은 물론이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타문화에 대해서도 열린 자세와 편견의 극복을 요구한다. 따라서 교육과정에서는 이러한 방향에서 학생들이 다양한 학습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의 개개인이 문화에 대한 이해와 다문화적 감수성을 길러 품격 있는 삶을 영위할 때에 국가 전체의 품격도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4) 세계와 소통하는 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의 정신으로 공동체 발전에 참여하는 사람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글로벌 창의 인재는 무엇보다도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의사소통 능력, 정보통신 활용능력과 같은 역량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세계화 된 오늘날 우리의 삶을 올바로 이해하는 안목이 필요하다. 오늘날 우리의 삶은 이미 세계화되어 있다. 우리의 일상생활이 우리나라 안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동향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금융시장은 물론이고, 각종 수출입품의 활용, 유행성 질병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거의 모든 일들이 이제 우리나라만의 문제를 넘어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글로벌화가 가속화될 미래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은 이러한 세계의 추세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세계시민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자세를 갖추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세계 시민으로서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을 당당하게 누림과 동시에 지구 공동체의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인류의 발전을 위해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태도를 길러야 한다.

2. 교육과정의 구성의 방침

위와 같이 설정된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을 구현하기 위해 제시한 '교육과정 구성의 방침'은 다음과 같다.

가.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창의적인 인재를 기를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한다.

나. 이 교육과정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공통 교육과정과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선택 교육과정으로 편성한다.

다.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경직성을 탈피하고, 학년 간 상호 연계와 협력을 통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유연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학년군을 설정한다.

라. 공통 교육과정의 교과는 교육 목적상의 근접성, 학문 탐구 대상 또는 방법상의 인접성, 생활양식에서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교과군으로 재분류한다.

마. 선택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의 기초영역 학습 강화와 진로 및 적성 등을 감안한 적정 학습이 가능하도록 4개의 교과 영역으로 구분하고, 필수이수단위를 제시한다.

바. 학기당 이수 교과목 수 축소를 통한 학습부담의 적정화와 의미 있는 학습활동이 전개 될 수 있도록 집중이수를 확대한다.

사. 기존의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을 통합하여 배려와 나눔의 실천을 위한 '창의적 체험활동'을 신설한다.

아. 학교 교육과정 평가, 교과 평가의 개선, 국가 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 실시 등을 통해 교육과정 질 관리 체제를 강화한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구성 방침은, 기존 교육과정의 교육과정 구성 방침과 비교할 때에 큰 흐름은 유지하되 좀더 구체적인 교육과정 편제의 구성 방침을 제시하여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이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09 개정 교육과정의 학교급별 내용 구성은 앞에서 제시한 개정 교육과정의 인간상이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침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방침은 교육과정 총론은 물론이고 이에 따라 개선하게 될 교과 교육과정에도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2009 개정 교육과정 편제 구조상의 변화로 공통 교육과정과 선택 교육과정의 이원적 구성 방침을 제시하였다. 이는 기존 교육과정의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의 기간을 축소하고 선택중심 교육과정 기간을 확대한 것으로 고교 교육과정의 다양화와 효율화를 기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와 아울러, 관련 용어를 '공통 교육과정'과 '선택 교육과정'으로 변경하여 의미를 명료하게 함과 아울러 그 성격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하였다.

[교육과정 편제 구조의 개선]

2007년 개정 교육과정	2009 개정 교육과정
•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 1-10학년 • 선택중심 교육과정: 11-12학년	• 공통 교육과정: 1-9학년 • 선택 교육과정: 10-12학년

셋째,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년군과 교과군을 설정하여 학교에서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융통성을 크게 확대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초·중·고교 12년의 교육기간을 5개 학년군-1～2, 3～4, 5～6, 7～9, 10～12학년군-으로 설정하여 학년간 상호 연계와 협력을 통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유연화, 효율화를 기하고자 하였다. 이와 동시에 기존의 10개 국민공통기본교과를 초등학교의 경우 7개 교과(군)인 국어, 사회/도덕, 수학, 과학/실과, 체육, 음악/미술, 영어로 설정하고, 중학교의 경우는 8개 교과(군)인 국어, 사회(역사 포함)/도덕, 수학, 과학/기술·가정, 체육, 음악/미술, 영어, 선택교과로 설정하여 교과 교육과정 운영의 융통성과 다양성의 폭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넷째, 고등학교에서는 선택 교육과정의 특색을 살려 학생들의 진로와 적성 등을 감안한 적정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수 교과목을 제시하지 않고, 교과(군)별 및 교과 영역별 필수 이수 단위를 제시하였다.

다섯째, 기존의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을 통합하여 다양한 교육 활동이 가능한 '창의적 체험활동'을 신설하였다.

여섯째, 학교 교육과정 질 관리 체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곧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화와 동시에 강조되어야 할 학교 교육과정 평가,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교과 평가의 개선, 그리고 국가 수준의 학업성취도 실시 등을 교육과정의 구성 방침에 제시함으로써 본 교육과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평가 체제를 구축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제시하였다.

Ⅲ. 중학교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1. 중학교 교육목표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추구하는 인간상'과 교육기본법 제2조의 교육목적, 초·중등교육법 제41조의 중학교 교육목적 등에 기초하여 중학교 교육목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11]

중학교의 교육은 초등학교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학습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 능력을 배양하며 다원적인 가치를 수용하고 존중하는 민주시민의 자질 함양에 중점을 둔다.

1. 심신의 건강하고 조화로운 발달을 추구하며, 다양한 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익혀 적극적으로 진로를 탐색한다.
2. 학습과 생활에 필요한 기초능력과 문제해결력을 바탕으로 창의적 사고력을 기른다.
3.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 대한 경험을 토대로 다양한 문화와 가치에 대한 이해를 넓힌다.
4. 다양한 소통능력을 기르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태도를 갖춘다.

우리나라 학제에 있어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보통교육기관으로, 특정영역의 전문인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인간다운 삶과 민주시민생활에 요구되는 자질의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고등학교는 보통교육과 전문교육이 병행되는 곳으로 그 중 일반계는

11) 현행 초·중등교육법에서는 제 41조에서 "중학교는 초등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 위에 중등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규정 이외에 그것을 구체화한 교육목표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과거의 교육법에서는 "중학교는 초등교육의 기초 위에 중등 보통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00조)는 교육목적과 함께 ①중견국민으로서의 품성과 자질 ②직업적 지식과 기능, 근로정신,..... 등 중학교 교육목표가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었다(제101조), 학교급별 교육목표를 교육법규가 아닌 교육과정에 제시한 것은 21세기의 급격한 변화와 날로 복잡화· 다양화되어 가는 사회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상대적으로 개정이 쉽고 빈번한 각급학교 교육과정에 이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보통교육에 실업계와 기타계는 전문교육에 역점을 둔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또한 의무교육기관이다. 그러므로 개인적 필요뿐만 아니라 국가적 요구도 포함된다. 교육기본법 제2조의 인격 도야, 자주적 생활능력, 민주시민적 자질 등은 당연히 그 주요 목적이 되겠지만 보다 구체적으로는 언어능력, 수 능력,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이해와 기능, 직업에 대한 안목 등의 기본적인 지식·능력· 태도 등이 그 주요 목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언어능력, 수 능력 등은 학생들의 현재와 장래의 삶뿐만 아니라 후속되는 학습에 있어서도 주요 도구가 된다.

그 중 초등학교 교육은 상대적으로 더 기본적이고 초보적인 수준의 능력, 특성들에 역점을 두고 중학교는 이를 중등 수준으로 더욱 심화·확대한다. 뿐만 아니라 중학교 시기인 청년전기는 이른바 형식적 조작기, 곧 가설·연역적 사고, 논리적 사고가 가능한 시기이고 자아정체감이 형성되어 가는 시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경험의 폭과 깊이를 크게 확장할 수 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육목표에서 '일의 세계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초)에서 '적극적인 진로 탐색'(중)으로, 또는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상상력'(초)에서 '창의적 사고력'(중)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초등학교와 중학교 간의 정도의 차이를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추구하는 인간상'도 각급학교 교육목표에 대응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중학교 교육목표에서 '다원적 가치를 수용하고 존중하는' '창의적 사고력' '다양한 문화와 가치에 대한 이해' '다양한 소통능력' 등의 문맥에서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강조점은 교육기본법 제2조의 전인교육, 인격 도야, 자주적 생활능력, 민주시민적 자질 등과 어우러져 전체적인 균형을 이루고 있다. 요컨대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중학교 교육목표는 교육기본법 제2조의 교육목적과 초·중등교육법의 중학교 교육목적, 그리고 그들이 내세우고 있는 '글로벌 창의인재'의 결합으로 보다 구체적인 수준에서 ① 심신의 조화적 발달과 적극적인 진로 탐색 ② 기초능력·문제 해결력을 토대로 창의적 사고능력 함양 ③ 넓은 세계, 다양한 문화와 가치에 대한 이해 확장 ④ 다양한 소통능력, 민주시민적 자질과 태도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2. 편제와 시간 배당

2009 개정 교육과정은 다양성과 창의성, 나눔과 배려의 인성, 더불어 세계적 안목을 갖춘 미래세계의 인재를 길러내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기존의 경직된 국

가 주도형 체제에서 벗어나 단위학교가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졌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의 편제와 시간배당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편제

2009 개정 교육과정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공통 교육과정'과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선택 교육과정'으로 구성된다. 중학교는 공통·의무 교육의 완성을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고 기초능력을 배양하며, 동시에 고등학교 기간 동안 학생이 자신의 진로, 요구, 희망, 진학 계열에 맞는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정하고 있는 중학교 교육과정 편제는 아래와 같다.

㈎ 중학교 교육과정은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한다.

① 교과(군)는 국어, 사회(역사 포함)/도덕, 수학, 과학/기술·가정, 체육, 예술(음악/미술), 영어, 선택으로 한다. 선택은 한문, 정보, 환경, 생활 외국어(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보건, 진로와 직업 등 선택 과목으로 한다.

②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으로 한다.

2009 개정 중학교 교육과정은 '교과(군)'와 교과 외 활동으로서의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구성된다. 교과(군)는 국어, 사회(역사 포함)/도덕, 수학, 과학/기술·가정, 체육, 예술(음악/미술), 영어, 선택 등 8개의 교과(군)로 편성되며, 이 중 선택은 한문, 정보, 환경, 생활 외국어(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보건, 진로와 직업 등의 과목으로 구성된다. 교과군은 기존의 교과들을 교육목적상의 근접성, 학문 탐구대상 또는 방법상의 인접성, 실제 생활양식에서의 상호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광역군 개념으로 유목화하여 제시하는 것을 말하며, 이와 같은 교과군 설정의

이유는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이고 학습을 적정화 하며 학습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2009 개정 교육과정은 선택과목 활성화를 위해 기존 재량활동에 속해 있던 선택과목을 교과 활동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학교의 필요에 의해 새로운 선택 과목의 개설·운영도 허용한다. 특히 사회 변화와 다양한 직업 유형의 선택권을 보장, 반영하여 학교 교육 전체가 진로 교육을 다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고등학교에 편제되었던 '진로와 직업'을 중학교 선택 과목으로 신설하고 있다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

한편 2009 개정 교육과정은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으로 이원화 되어 있던 교과 외 활동을 통합하여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창의 인재 양성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등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며, 학생들의 도덕성 함양, 준법정신 및 윤리의식 강화를 위해서 기존의 교과 중심 교육에서 배려와 나눔의 실천 활동을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나. 시간 배당 기준

2009 개정 중학교 교육과정에서의 시간 배당 기준은 다음의 <표 Ⅳ-1>과 같다.

<표 Ⅲ-1> 중학교 시간 배당 기준

구 분		1~3학년
교과(군)	국어	442
	사회(역사 포함)/도덕	510
	수학	374
	과학/기술·가정	646
	체육	272
	예술(음악/미술)	272
	영어	340
	선택	204
창의적 체험활동		306
총 수업 시간 수		3,366

① 이 표에서 1시간 수업은 45분을 원칙으로, 기후 및 계절, 학생의 발달 정도, 학습 내용의 성격 등과 학교 실정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② 학년군 및 교과(군)별 시간 배당은 연간 34주를 기준으로 한 3년간의 기준수업시수를 나타낸 것이다.

③ 총 수업시간 수는 3년간의 최소 수업 시수를 나타낸 것이다.

공통 교육과정에서 중학교에 배당된 시간은 다음과 같은 성격을 갖는다.

첫째, 중학교에서 수업은 '시간제'로 운영되며, 1시간 수업은 45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후 및 계절, 학생의 발달 정도, 학습 내용의 성격 및 학교 실정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편성 · 운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즉 경우에 따라 1시간 수업은 기준 시간 보다 적게 운영하거나 블록 타임제로 운영하는 등 융통성 있게 구성할 수 있다.

둘째, 2009 개정 중학교 교육과정의 시간 배당 기준에 제시된 수업 시수는 현행 최소 수업 시수와는 다른 형태를 취하고 있다. 즉 이전 교육과정의 교과 및 학년별 수업 시수와 연간 총 수업시간 수가 최소 수업 시수로 제시되었던 것과는 달리, 2009 개정 중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최소 수업 시수'와 '기준 수업 시수'의 이원적 제시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리하여 2009 개정 중학교 교육과정의 3년간 총 수업시간 수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최소 수업 시수'를 의미하지만[12], 학년군 및 교과(군)별 시간 배당은 '기준 수업 시수'를 나타낸다. 최소 필수 시간이 아닌 기준 수업 시수이기 때문에 학교는 교과(군)별 20% 범위 내 증감을 통해 보다 융통성 있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 · 운영을 도모할 수 있다. 단, 어느 교과(군)에서 20%를 감축한다면 감축한 분량을 다른 교과(군)에서 증배하여 총 수업시수를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단위 학교의 재량으로 위에 제시된 총 수업시수 이상으로 수업 시수를 편성할 수도 있다.

셋째, 창의적 체험활동의 영역별 시간 배정은 학교의 실정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시간 배당 결정권을 단위 학교에 부여하였다. 학교에서는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 가운데 학교 나름대로 중점 영역을 설정할 수 있으며, 지역이나 학교의 실정, 학생의 요구를 반영하여 배당 기준에 제시된 시간 외에 별도 시간을 확보할 수도 있다.

12) 즉, 모든 중학교는 3년간의 최소 수업 시수인 3,366시간 이상을 반드시 편성·운영해야 한다.

3. 중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중점

가.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 편성과 탄력적 운영

(1) 학교는 학생들이 이수해야 할 3년간의 교과목을 학년별, 학기별로 편성하여 안내한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은 교과군·학년군이 적용되고, 학교 실정에 맞는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입학 시와 학년 초에 학생들이 배워야 할 교과목과 시기를 안내하도록 하고 있으며, 학생·학부모 등 교육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해 학교마다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중학교 편제에서 학년군 및 교과(군)별 시간 배당은 연간 34주를 기준으로 한 3년간의 기준 수업시수를 나타낸 것으로, 단위학교별로 학생이 이수해야 할 3년간의 교과목과 창의적 체험활동 이수 등을 학년별·학기별로 편성하여 학년(학기) 초에 학교 알리미 서비스(http://www.schoolinfo.go.kr/)의 '학교 정보 공시'와 NEIS 학부모 서비스(http://www.parents.go.kr/) '내 자녀 바로 알기' 및 학교 홈페이지, 학교 발간 리플릿, 가정통신문, SMS 서비스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단위학교에서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안내할 수 있을 것이다.

- ○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중점
- ○ 3년간의 교과(군)별 편제 및 시간 배당 총괄표 및 학년·학급별 일과표
- ○ 수업일수 산출 및 탄력적인 시간 확보의 절차
- ○ 창의적 체험활동 계획표 및 시간 배당표

나. 교과(군)별 이수시기와 수업시수의 자율화

(2) 교과(군)의 이수 시기와 수업 시수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간 우리 교육과정의 고질적인 문제로 국가 교육과정의 경직성이 거론되어 왔다. 즉, 국가가 정해준 동일한 이수시기와 획일적인 교과목 편성·운영 등으로 인한 학교의 자율화·다양화의 저해가 계속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유연하고 창의적인 학교교육 실현을 위하여 교과(군)의 이수 시기와 수업 시수를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성 증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따라 단위학교에서는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경직성을 탈피하고 학년 간 상호 연계와 협력을 통한 유연성을 부여하며 수업 시수가 적은 교과목의 경우 집중이수를 원활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전의 교육과정은 국가 수준에서 학년별·교과목별 수업 시수 및 이수 시기를 거의 지정한 상태여서 학생들의 핵심 역량 강화와 학교 교육의 다양화에 소극적이었던 측면이 있었다. 그러므로 2009 개정 교육과정은 단위학교가 학생의 관심과 수준을 적극 반영한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서 학습자 개개인의 잠재력 계발 촉진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예컨대, 중학교에서도 학생 적성과 학습 능력에 따라 교과(군)별 이수시기 및 수업시수를 다르게 제시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운영되는 교육과정이 학교별로 차별화되고, 시간표도 고정된 것이 아니라 이수시기의 다변화 등을 적극 모색해 볼 수 있게 되었다.

다. 교과(군) 별 수업시수의 20% 범위 내 증감 운영

> ⑶ 학교의 특성, 학생·교사·학부모의 요구 및 필요에 따라 학교가 자율적으로 교과(군)별 수업 시수를 20% 범위 내에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009년 6월 11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학교 자율화 조치의 일환으로 발표한 '교과(군)별 20% 증감 범위 내 허용' 조치와 연계하여,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단위학교에 재량권을 부여하여 교과(군)별 20% 증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학교는 학교가

위치한 지리적, 지역적, 사회적 여건과 학생들의 수준과 능력 등을 감안하여 학교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편성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과(군)별 20% 증감'은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자율권 발휘의 기회를 각 단위학교에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단위학교에서는 학교의 특성, 학생·학부모·교사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반드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중점사항을 발굴하고 이를 교육과정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기초·기본교육, 인성 교육, 예술 교육 등은 학교 교육활동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교과 활동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해당 교과의 수업내용, 수업량 등을 고려하여 증감 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제 단위학교에서는 학생·교사·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요구, 학교의 특색, 시설 등 교육 여건을 고려하여 교과(군)별 20% 범위 내에서 시수를 증감하여 운영함으로써, 다른 학교와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는데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때 특정 교과의 시간을 20% 감축하는 것은 단원 재구성, 교육과정 압축 등과 같은 방식으로 교과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운영함을 의미하는 것이지 일부 내용을 삭제하여 가르쳐도 된다는 말은 아니다. 다시 말해서 특정 교과 교육과정 기준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음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수업 시수를 감축하더라도 교과 교육과정 기준은 반드시 성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라. 학기당 이수 교과목 수 축소 편성·운영

⑷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학생의 학기당 이수 교과목 수를 8개 이내로 편성하도록 한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교과군 및 학년군이 도입되고 교과 집중이수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학생이 한 학기에 이수하는 교과목 수가 학기당 8개 교과목 이내로 편성되어야만 한다. 이는 2011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되며, 학기당 이수 교과목 수를 8개 이내로 편성해야 하는 강제 조항이므로 이를 위해 단위학교에서는 학년 단위로 편성·운영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수업 시수가 적은 교과목은 특정 학기, 학년에 집중 이수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선택과목 중 교양과목 성격을 갖는 환경, 보건, 진로와 직업 등의 과목은 '8과목 이내로 편성'하도록 한 교과목수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참고하여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학교 실정과 학생의 요구를 반영하여 교과를 편성할 수 있다.

집중이수를 통해 학기당 이수 과목이 8과목 이내로 줄어들게 된다는 것은 단지 학습 부담, 과제 부담, 평가 부담이 줄어든다는 의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교실 수업 개선으로 이어진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교과목 수 축소는 하루에 배우는 교과목 수가 3~4개로 줄어들게 되는 것을 의미하며, 기존의 시간표와 차별화된 수업 시간표 즉, 블록 타임 등 교과목 별로 2~3시간 연속 수업이 가능하도록 편성되게 된다. 이렇게 될 경우 기존의 강의식 수업이 아니라 다양한 탐구 수업, 토론 수업, 실험 교육 등 학생 참여 수업으로의 변화가 이루어짐으로써 교사 중심 수업에서 학생 중심 수업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교과목 수가 많으면 자연히 학생들의 책가방 무게도 무거워지지만, 집중이수로 하루에 2~4과목을 배우게 되면 책가방도 가벼워질 뿐만 아니라 시험 과목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 학생들의 학습 부담과 과제 부담이 한층 줄어들 것이다. 하루에 배우는 과목 수가 적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시간표도 블록타임제의 운영이 확대될 것이다. 예를 들어 미술 수업이 주당 1~2시간인 경우, 학생들이 주어진 시간을 활용하여 작품을 완성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나, 집중이수를 통해 블록타임제를 실시하여 3~4시간 연속 수업을 진행할 경우 학생들에게는 과제의 완성도를 높여 성취감과 정서 함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교사의 편에서는 효과적인 수업이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간혹 집중이수로 인해 예술, 인성교육 등의 불균형을 우려하고 있는 바, 집중이수로 특정 교과를 배우지 않게 되는 시기의 경우, 창의적 체험활동의 각종 활동과 연계 또는 보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총 6개 학기 중, 2개 학기에만 '음악', '미술'을 편성하였다면 미 편성된 나머지 4개 학기에는 창의적 체험활동에 '음악', '미술' 교과 관련 활동 등을 편성·운영 할 수 있을 것이다.

마. 예술교과(군) 편성·운영

(5) 예술(음악/미술)은 음악과 미술 교과를 중심으로 편성·운영한다.

예술은 기교나 양식 등으로 감상의 대상이 되는 아름다움을 표현하려는 인간의 활동 및 그 작품을 말한다. 예술의 영역은 공간예술과 시간예술, 종합예술 등으로 매우 광범위한 바, 초·중·고등학교에서의 예술 교과(군)은 음악과 미술로 국한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2009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편제와 시간배당에서 예술 교과(군)은 음악과 미술교과로 국한하며, 기준 수업시수 272시간을 학생의 요구, 흥미를 반영하여 양 교과의 적정학습 기회를 보장하고 인성과 창의성 교육 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아울러 단위학교별로 필요하다면 지역 내 중점학교 및 지역사회 학습장 등의 활용도 적극 고려해 볼 만하다.

또한 단위학교에서 예술(음악/미술) 교과를 학기 또는 학년 집중이수로 편성·운영할 때, 만약 이 교과를 배우지 않는 기간에 해당 교과 학습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해결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음악이나 미술을 지속적으로 더 공부하고 싶은 학생의 경우 역으로 학습의 기회를 잃게 되어 결국 사교육으로 보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준 수업시수 272시간의 편성에 있어서 학생의 적성과 학습 능력과 선택에 따라 음악·미술의 수업시수를 달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예술(음악/미술)계열로 진로를 선택하려는 학생들에게 조기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바. 선택과목의 개설

(6) 선택과목을 개설할 경우, 학교는 2개 이상의 과목을 개설함으로써 학생들의 선택권이 보장되도록 한다.

(7) 학교는 필요한 경우 새로운 선택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새로운 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도 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의거하여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선택과목을 개설할 경우 2개 이상의 과목을 개설함으로써 학생들의 선택권이 보장되도록 하였다. 또한 학교는 필요한 경우 시·도 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의거하여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새로운 선택 과목을 개설할 수도 있다.

지금까지 중학교에서의 '선택'은 매우 제한적인 의미로 사용되어 왔다. 재량활동의 교과 재량활동 선택 과목에서 '선택'을 활용할 수 있었으며, "선택과목을 개설할 경우, 학교는 2개 이상의 과목을 개설함으로써 학생들의 선택권이 보장되도록 한다."는 지침은 7차 교육과정부터 존재하였다. 이제 교과가 아닌 재량활동으로서의 '선택' 이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교과로 격상되고, 배당 시간도 '204시간'으로 확보되어, 향후 중학교 선택 과목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국가 수준에서 제시한 선택 과목[한문, 정보, 환경, 생활 외국어(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보건, 진로와 직업 등]들 외에 학교는 필요한 경우 '공통교육과정'의 심화·보충 교과로 분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선택 과목을 개설할 수도 있게 됨으로써,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중학교는 이른바 '대안학교' 및 '특성화 학교'에서 실험적으로 개설한 과목들과 같이 학교와 학생, 교사의 여건에 따라 새로운 과목을 개설할 수도 있게 되었다.

또한 단위학교에서는 선택과목 개설과 관련하여 학생 개개인이 흥미에 부합하는 선택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하는 학습 체제의 무학년제 도입도 고려해 볼만하다.

사. 진로교육 강화

(8) 학교는 학생의 직업 및 진로에 대한 탐색과 선택을 돕기 위해 진로 교육을 강화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한다.

중학교 교육과정 개정의 중점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진학·진로 교육의 수요는 고등학교에서 점차 중학교로 하향되어 강조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교육과정 전반에 걸쳐 진로 교육을 강화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진로 교육의 강조로 중학교 교육은 '선택'의 활성화와 함께 진로 교육의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정체성 정립이 요청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공통 교육과정 이수 기간이 중학교 3학년까지로 조정됨에 따라 중학교 단계에서 진학·진로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자신과 직업 및 교육 세계의 폭넓은 탐색을 토대로 중학교 졸업 이후의 진로를 적극적이며 자기 주도적으로 개척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할 필요가 강조되고 있다. 이를 위해 선택과목으로서의 '진로와 직업' 신설, 진로교육 강화를 위한 지침 신설, 창의적 체험활동의 하위 영역으로 '진로 활동'을 설정하였다. 따라서 단위학교에서는 학생 개개인의 진로와 희망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을 위해 학생 개개인의 진로와 적성을 파악하고 진로와 연계된 학습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학생 자신이 재능을 발견하고 진로 결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게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해야 한다.

또한 단위학교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기존의 세분화된 영역 구분을 통합하여 진로활동과 연계된 봉사활동, 동아리 활동과 연계된 진로활동 등 다양한 교육과정으로 학생들의 인성 및 창의성을 폭넓게 신장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학교에서도 학생 개개인의 희망이나 적성, 진로, 수준 등과 관계없이 같은 학급에 속했다는 이유로 거의 같은 과목을 이수해야 했던 과거의 관습에서 벗어나 각자의 필요와 요구에 적합한 과목을 선택하여 배울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비교과 영역 활동인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는 학생들이 교실 수업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창의적으로 사고하며, 활동 중심의 체험이 가능하도록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 활동 등 학생에게 필요한 내용을 어떤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것인지 모두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계획적으로 활용하고, 실질적인 체험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지역사회의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연계·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아. 전입 학생의 학습 결손 방지를 위한 '보충 학습 과정' 운영

⑼ 전입 학생이 특정 교과목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교육청과 학교에서는 '보충 학습 과정' 등을 통해 학습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년 및 학기 집중 이수의 실시를 강조함에 따라 전입학생이 특정 교과목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교육청과 학교에서 '보충 학습 과정' 등을 통해 해당 학생의 학습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전입학 학생들은 교과 집중 이수로 인해 교과 미이수나 중복이수를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관할 교육청과 학교에서는 전입 학생의 미이수 교과목 이수를 위한 '보충학습 과정' 개설을 통해 해당 학생이 학습 결손을 보충할 기회를 제공해야한다. 이를 위해 관할 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지침'을 바탕으로 학교 수준의 학업성적관리규정 등에 전학 등으로 해당과목을 배우지 못하게 되는 학생들을 위한 지침 또는 규정등을 통해서 학생의 성취수준 등을 확인하여 이수 인정을 해주거나(귀국 학생 등의 사례 참조), 방학 중 보충 학습 과정을 개설하여 학습 결손을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전학 등으로 교과 중복 수업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학생의 선택에 의해 이수 교과목을 면제하고 다른 교과 수업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학생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강화를 위하여 단위학교에서는 입학년도 별로 학생이 이수해야 할 3년간의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입학시기와 학년 초에 안내하여야 할 것이다.

4. 교육과정 편성·운영 고려 사항

가. 교육과정 편성·운영

1)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 운영

가)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방향

> ⑴ 학교는 이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학교 실정에 알맞은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한다.

학교에서 교육 목적과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도

록 법률에 정해져 있다. 학교 교육의 발전은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효과적인 질 관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학교는 교육과정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계획을 바탕으로 학년별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교과목별 교육과정도 편성·운영하여야 하며, 국가 수준 교육과정과 시·도 교육청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근거하여 학교의 특성과 실정에 맞추어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해야 한다.

국가 수준 교육의 기본 방향과 목표·내용·방법·평가의 기준이 교육 현장에 실현되고 정착되려면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 교육청 및 지역 교육청에서 행·재정적인 지원, 지도를 받아 학교에서 나름대로의 특색과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해야 한다.

교육과정 컨설팅 지원단은 시·도 교육청 및 지역 교육청의 교육과정 핵심요원으로 교육과정 관련 연수 강사, 자료 개발 등과 같은 기능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지역 수준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선도적 역할을 하는 기구이다. 개정 교육과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시·도 및 지역교육청 단위로 교육과정컨설팅지원단, 교육과정연구회, 교과별 연구회 등 다양한 지원 조직이 더욱 활성화되어 '교육과학기술부↔시·도교육청↔학교↔교사'로 이어지는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흐름 속에서 각 수준에서 담당해야 하는 역할과 기능을 인식하고 실천하면 국가가 의도하고 있는 중학교 교육의 목표가 실현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나) 학년 및 교과목별 교육과정 편성

> ⑵ 학교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계획을 바탕으로 학년 및 교과목별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다.

학교에서는 매 학년도 시작 전에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학교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학기별 혹은 학년별 교과 시간 편성과 교수·학습 운영 계획, 평가 계획 등을 포함한 교과목별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것이 교과별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

특히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새롭게 도입한 학년(군) 및 교과(군)의 개념을 이해하고 학생들의 발달 정도와 학습 수준에 맞춰 학년 및 교과목별로 교과의 학습 목표 및 방법, 학습 운영 계획, 평가 계획 등을 포함하여 교과목별 교육과정을 편성해야 한다.

2)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한 협의 체제 구성

가)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한 협의 체제 구성 방향

> ⑶ 학교 교육과정은 모든 교원이 전문성을 발휘하여 참여하는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을 거쳐 편성·운영한다.

교육과정이 교육자 중심에서 교육수요자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에서 자율성 및 창의성을 어느 정도 발휘하여 교육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이느냐는 것은 교사의 역할과 의지에 달려있다. 교육과정의 변화에 맞춰 그 목적을 달성하려면 학교 여건을 최대한 살리면서 교육만족도가 높은 교육과정이 되도록 수요자 요구를 적극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앞으로의 학교교육은 종래의 국가 주도적인 획일적 교육과정 운영을 탈피하여 지역의 여건과 학교의 실정에 맞게 각 학교별로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실현하여야 한다. 학생의 능력과 흥미를 존중하고, 적성과 진로 및 희망에 따라 선택하여 배울 수 있도록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이 되어야 하고, 학교는 교육과정을 다양하고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운영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학교에서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기준과 지역 수준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근거로 지역·학교·학생의 실정에 알맞게 '학교 교육과정'을 다양하게 편성·운영할 수 있게 되는 등,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교의 자율성이 크게 확대되었다. 이는 국가로부터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교육과정에서 학교가 주체가 되어 다양하게 '만들어 가는 교육과정'으로 교육과정 체제가 변화되었음을 의미한다.

학교 교육과정을 어떤 체제로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재량권을 갖게 된 각 학교에 부여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장의 교육적인 판단과 신념, 그리고 전 교직원의 공동 사고와 참여 속에 창의성을 발휘해 특색 있게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해야 한다.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의 주체는 교사이다. 이에 교사는 교육목표를 명확히 인식하고 교육과정을 다양하게 구성하려는 열린 사고를 갖고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적극 의견을 제시하고 편성에 동참하여야 한다. 학교 교육과정의 발전과 개정 교육과정의 정착을 위해 교원들의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와 사고의 전환이 요구되는 시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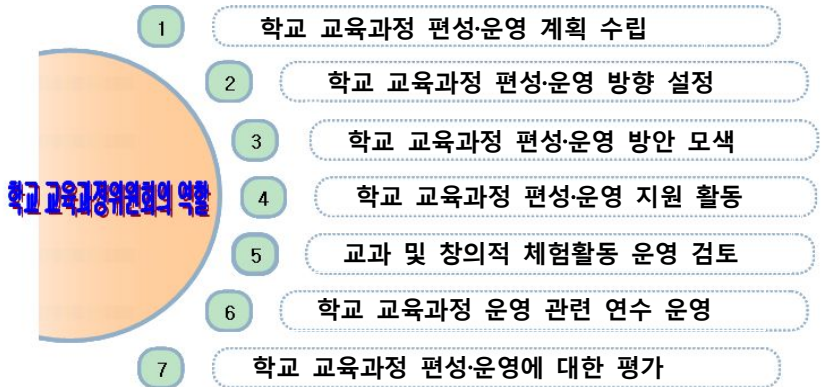
나) 학교교육과정위원회 조직 및 역할

⑷ 교육과정의 합리적 편성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교원, 교육과정(교과 교육) 전문가,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학교 교육과정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며, 이 위원회는 학교장의 교육과정 운영 및 의사 결정에 관한 자문의 역할을 담당한다.

학교교육과정위원회는 학교장이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는 자문 역할을 하는 조직으로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 명시되어 있다. 학교에서는 학교교육과정위원회를 반드시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학교교육과정위원회는 교원들의 재량권을 주체적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며 민주적 절차에 따라 구성원의 합의를 끌어내기 위함이므로 모든 교직원이 학교교육과정위원회를 통해 능동적,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는데 참여하여야 한다.

학교교육과정위원회가 형식적이 아닌 제 구실을 다하기 위해서 수행해야 할 역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학교교육과정위원회는 학교의 특성과 여건에 따라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하위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업무 중심	기획·조정 분과, 편성·운영 분과, 교과 활동 분과, 창의적 체험활동 분과, 시안 작성 연구 분과, 운영 평가 분과
교과 중심	기획·조정 분과, 영재교육 분과, 부진학생 지도 분과, 교과 활동 분과, 창의적 체험활동 분과, 평가 분석 분과
추진단계별	연구·기획 분과, 교육과정 편성 분과, 교육과정 운영 분과, 자료 제작 분과, 평가 분과
편제 중심	기획·조정팀, 기획 지원팀, 교과 운영팀, 수준별 수업팀, 창의적 체험활동팀, 운영 준비팀, 교육 지원팀

학교교육과정위원회에는 교원뿐만 아니라 학부모 및 지역인사, 전문가 등 다양한 인사들이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시 말하면, 학교교육과정위원회에는 학부모는 물론, 지구자율장학협의회, 교육과정컨설팅지원단, 교육과정연구회, 교과교육연구회, 교원 양성 대학 교수, 지역 교육관련 단체 및 교육 전문기관의 연구원 및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참여토록 하여 교원들의 의사 위주로 학교 교육과정이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학교 교육과정은 학교의 여건을 다각적인 각도로 분석하여 반영할 수 있

는 여러 기관의 조언과 위원들의 협의를 통하여야 교육과정 편성 방향이 바람직하게 설정되기 때문이다.

학교 교육과정이 자율적이고 특색 있게 편성되려면 교육과정 편성·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하는 학교교육과정위원회, 교육과정 편성·운영 심의를 맡은 학교운영위원회와 교육과정 실천을 직접 담당하는 교과협의회 및 학년협의회가 상호 역할 분담을 적절하게 하면서 협력체제가 원활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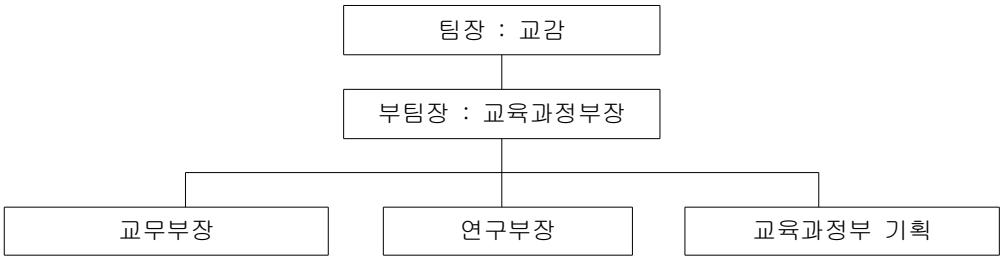
[그림 6]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한 조직

학교교육과정위원회의 교원 위원은 담당 업무별, 교과별로 충분한 인원을 확보하여 회의 주제에 따라 구성원을 탄력적으로 편성하여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교육전문가나 학부모 위원은 전체 회의에는 참석하도록 하는 것이 좋으나 분과회의 등에는 꼭 참석이 필요할 회의를 사전에 미리 협의해 두는 것이 좋다.

학부모위원은 자녀의 학년별, 성별 등으로 다양하게 편성해야 학생들의 요구를 다양하게 수렴할 수 있다. 교육전문가를 여러 명 확보하기가 쉽지 않으면 회의를 개최할 때 회의 날짜를 우선 고려하여 불참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불참을 할 경우 사전에 회의 자료를 제공하여 회의 내용에 대한 제언을 미리 받아 회의 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 학교 교육과정이 학교 자율화의 단계적 확대로 더욱 다양화되어 가고 2009 개정 교육과정으로 보다 더 자율성이 확보되고 있으므로 교육 전문가(교육일반, 교과교육, 교육과정 등)의 적극적 참여 유도와 검토 의견의 반영은 아주 중요하다.

한편 학교 교육과정위원회 안에 운영 방향을 정립하고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소수 정예의 TF팀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회의 진행 인원이 많으면 회의를 개최하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회의 결과도 쉽게 도출해 내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내용에 따라 소수 정예로 일을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

<표 Ⅲ-2> 조직도(예시)



이와 같이 학교 교육과정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는 다르게 융통성 있는 구성과 운영이 필요하다. 그러나 소위원회만 활성화하게 되면 편중된 방향으로 흐를 수 있으므로 진행 상황에 따라 적절히 혼합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다)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여건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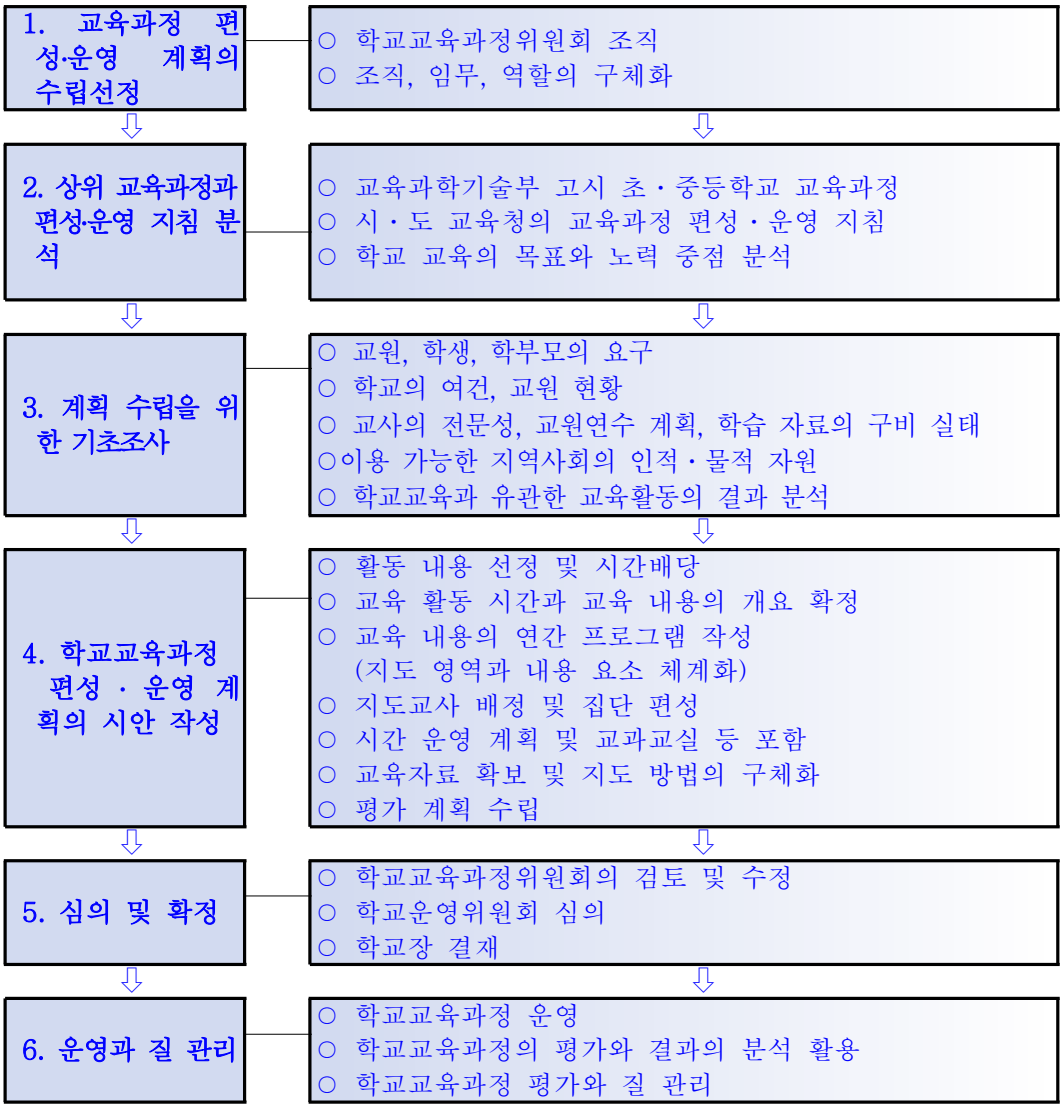
(5)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함에 있어서는 교원의 조직, 학생의 실태, 학부모의 요구, 지역 사회의 실정 및 교육 시설·설비 등 교육 여건과 환경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한다.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한 교원의 조직, 학생 실태, 학부모 요구, 지역 사회의 실정 등을 파악하고자 하는 활동은 연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월 별로 교육과정 편성·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학년도 편성·운영을 검토해 보고 학교에서 다음 학년도 교육과정 운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되어야 한다. 1학기에는 당해년도 교육과정 편성에 대한 협의와 설문조사 등을 통한 만족도 조사와 이에 대한 개선 방향이 수립되어야 하며 2학기에는 다음 학년도 운영을 위한 설문조사와 협의회로 학교 여건을 최대한 살리는 교육과정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학교교육과정위원회는 안건이 있을 때 수시 개최되어야 하며 회의 안건에 따라 참여 위원을 적절히 조정하는 것이 좋지만 교육공동체가 모두 참여하는 교육과정위원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도록 한다.

<표 Ⅲ-3>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일반적 절차



3) 교육활동 개선을 위한 교사 연구 활동

⑹ 학교는 동학년 모임, 교과별 모임, 현장 연구, 자체 연수 등을 통해서 교사들의 교육 활동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교사들은 수업 방법 개선과 학생 지도를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으나 개인적인 연구 활동으로는 변화와 발전의 한계가 있으므로 동학년, 교과별 등 동료 교사와의 협의와 정보 교환을 통한 교사들의 교육 활동 개선이 필요하다.

동학년 및 교과별 단위의 지식 조직화와 교육 과정 작성을 통해 교과별 교육과정을 재편성하고 교사들의 교육 활동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학기 초 혹은 학기를 준비하는 기간은 학년 및 교과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공유하는 기회가 제공되어 교육과정의 발전과 변화를 시도하는 기간이다. 정기적인 동학년 및 교과별 모임의 정례화를 통하여 각자의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 전문 분야(교과목)를 나누어 자기 계발을 하고 연구 활동의 분위기를 조성하여 변화된 교육과정이 학교 현장에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교과연구회 운영, 수업 개선을 위한 동료 장학, 요청 장학 실시와 교원의 지속적인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로 교원 능력 개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학교는 교사들의 능력 개발을 위한 중장기 연수 발전 방향을 정립하고 교사들의 요구를 반영한 연수 과정 개설로 연수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 연수는 교사들의 현장 연구 활동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위한 효율적인 교수·학습방법의 연수가 필요하며 강의 위주의 연수에서 실질적인 학습 위주의 연수, 교사의 희망을 고려한 수요자를 존중하는 맞춤식 연수를 확대하고 현장 적용과정과 토의과정을 거치는 새로운 연수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한편 연구 활동 및 연수 혁신을 위해 예산이 뒷받침 되도록 추진하고 연구 활동 및 연수 내용이 수업에 즉시 활용되도록 하여 수업의 질을 제고하고 교원의 지속적 학습 개선 체제를 구축한다. 학교 단위 자율연수의 내실화를 위해 학교 현장을 찾아가는 자율연수 지원단 등을 활용한다.

4)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편성

가) 종교 과목 개설

> ⑺ 학교가 종교 과목을 개설할 때에는 종교 이외의 과목을 포함, 복수로 과목을 편성하여 학생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세계 각국은 교육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교육의 종교적 중립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13] 이에 국·공립학교는 종교 교육을 할 수 없으며 교사들도 종교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갖고 학생들을 교육해야 한다.

종교계 사립학교는 설립의 목적에 따라 종교적 특징을 가질 수 있고 종교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학생들은 학교 진학시 자신의 종교나 신념에 관계없이 학교에 임의 배정되므로 학생들에게 특정 종교 교육을 일률적으로 강요하면 안 된다. 종교계 학교라 하더라도 종교 과목을 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할 수 없으므로 종교 과목 이외의 과목을 포함, 복수로 과목을 편성하여 학생에게 종교과목 외의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나) 교과 지도 방향

> ⑻ 각 교과의 기초적, 기본적 요소들이 체계적으로 학습되도록 계획하고, 이를 일관성 있고 지속성 있게 지도한다.

교과 교육과정의 교육 내용은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필수 학습 요소'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교과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때 교과의 특성에 알맞게 선정되고 배열되어 있는 핵심적인 개념을 바탕으로 기초적, 기본적 요소들이 체계적으로 학습이 되도록 해야 한다.

교과 목표와 내용을 밀접하게 관련시키고 학생들이 학습을 통해서 성취해야 할 능력이나 특징의 폭과 깊이를 나타낼 수 있도록 교과 교육과정이 편성되어야 하며, 체계적으로 학습되도록 재구성한 계획은 일관성 있고 지속성 있게 운영되어야 한

13) 교육기본법 제6조 ②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가 설립한 학교에서는 특정한 종교를 위한 종교 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또한 교육과정은 충실히 운영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융통성을 가져야 한다. 교육과정 운영의 융통성은 시간, 장소, 조직 등에서 각 학교가 창의성을 발휘하여야 한다.

다) 학습지도 방향 정립

⑼ 각 교과목별 학습 목표를 모든 학생이 성취하도록 지도하고, 능력에 알맞은 성취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학습의 기회와 방법을 제공하며, 이를 위한 계획적인 배려와 지도를 하여 학습 결손이 누적되거나 학습 의욕이 저하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각 교과에는 학생들이 성취해야 할 학습목표가 제시되어 있다. 학생들은 개개인이 다양한 적성과 능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교과별로 성취해야할 최소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개별 학생에게 맞춤식의 학습이 필요하다. 획일적인 학습 방법은 다양한 학생들의 성향에 맞출 수 없다. 따라서 학습의 기회와 방법은 다양해져야 하며 특히 성취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에 대한 특별 지도 등의 배려가 필요하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에게 배려와 나눔의 정신으로 공동체 발전에 참여하는 사람 육성을 강조하고 있다. 협동심, 공동체 의식 배양과 같은 정의적 측면의 교육은 어느 특정 교과에서 의도적이고 체계적으로 지도하는 표면적 교육과정만이 아니라, 잠재적 교육과정에 의해서 오히려 효율적으로 육성될 수 있다. 따라서 전 교과, 전 영역에 걸쳐 공동 학습 과제를 제시하고, 소집단 활동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많이 가지게 해야 한다.

라) 수준별 수업

(1) 운영 방향

⑽ 공통 교육과정에서는 학생의 능력과 적성, 진로를 고려하여 교육 내용과 방법을 다양화 한다. 특히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교과에서는 수준별 수업을 권장한다.

획일적이고 폐쇄적이며 경직된 교육 체제와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교육의 다양성, 융통성, 탄력성을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것은 시대적 요청이다.

교육 내용과 방법이 획일적이고 폐쇄적이면 전체성, 통일성, 평등성, 능률성 등은 효과적으로 유지되지만 개별성, 수월성, 다양성, 효율성은 확보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즉 교육과정을 획일화 하는 것은 공동체의 필요와 요구, 교육 기회를 접할 수 있는 교육의 양적 기회균등과 평등성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학습자 개개인의 독특한 개성, 적성, 능력, 흥미, 관심, 진로 등을 살리고 학습의 성공적 성취를 보장할 수 있는 교육의 질적 기회 균등을 실현하고, 타고난 소질과 수월성을 최대한으로 신장·발휘하도록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재검토되어야 할 문제이다.

국가·사회적인 발전과 전망에 부응한 공동체의 필요와 요구를 충족시키면서도 긍정적인 사고를 갖게 하는 교육을 위해서는 교육의 기초와 기본을 유지하여 공통성과 평등성을 기본적으로 확보하면서도 교육의 다양성과 수월성을 조화롭게 추구해 나가야 한다.

제7차 교육과정과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이어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모든 학생들이 공통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공통 교육과정에서는 학생의 능력과 적성, 진로를 고려하여 교육 내용과 방법을 다양화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학생의 능력과 적성, 필요, 흥미에서의 개인차를 최대로 고려하는 수업을 통해서 학생 개개인의 성장 가능성을 일깨워주고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며, 이를 위하여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등 5개 교과에서 수준별 수업을 권장하고 있다.

(2) 수준별 수업 집단 편성 및 운영

⑴ 수준별 수업 운영을 위한 학습 집단은 학교의 여건이나 학생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편성할 수 있으며, 학습 결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특별 보충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특별 보충 수업의 편성·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학생들은 능력이 각각 다르며, 서로 다른 방식으로 그리고 서로 다른 속도로 학습한다. 이런 차이를 존중하며 만족시켜 주는 것이 학교의 역할이므로 개개인의 발달 속도

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수준별 수업은 학생의 흥미·능력 등을 고려하여, 몇 개의 수준별 집단으로 나누고, 각 집단의 수준에 적합한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제공하는 수업으로 학생들의 학업 성취 가능성을 구현하고 학생 능력수준, 흥미, 진로의 개인차까지 고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그리고 학교 실정 및 여건을 고려하여 자율적·탄력적으로 운영하며 단위학교에서 교사 협의, 학생·학부모 의견 조사 등을 통하여 수준별 집단 편성 방법 및 운영 방안을 마련한다. 수준별 수업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형식적·편의적 운영은 지양하여야 하며 수업 내용의 차별화, 집단 편성 인원의 다양화 등 수준별 수업의 본래 취지에 맞도록 편성·운영한다.

수준별 수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고려해야 할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준별 집단 편성 시 학생의 학습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여 학생의 학습 능력, 속도, 희망 등에 따라 학생 스스로 수준별 학습 집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수준별 이동수업에서는 학생의 수준을 세분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므로 최소 3수준 이상, 가급적 4~5수준 편성을 권장하며, 심화반, 기본반, 보충반 학생 모두에게 차별 없이 잠재적 능력을 최대한 계발할 수 있는 최선의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셋째, 수준별 이동수업의 성패는 하위반 수업의 효과적 운영에 있다. 하위반 학생의 거부감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학생과 학부모는 하위반에 속해 있기 때문에 더 양질의 교육을 받는다고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하위반 학생 지도에 대한 학교와 교사의 열의와 관심, 지원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하수준의 인원을 축소해야 하며 이를 위해 2+1 또는 3+1, 3+2 등의 학급수 증설이 필요하다. 하위반에 대해서는 경력이 많고 학생들을 잘 지도하는 유능한 교사를 우선 배치한다. 그리고 수업도우미·보조교사 지원, 상담활동 강화, 다양한 교수·학습자료 지원 등의 방안을 모색한다.

넷째, 학생의 특성과 수준을 고려하여 적합한 수업방법을 적용해야 하며 수준별 집단의 특성에 적합한 학습 자료·방법을 활용하여 상수준 집단에는 도전적인 학습활동, 중수준 집단에는 협력학습 위주의 수업, 하수준 집단에는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활동 중심의 수업을 권장한다. 특히 하위반에서는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여 수업의 흥미도와 집중도를 높여야 한다. 수업시간을 2시간 단위로 블록화 하는 것은 토론, 발

표, 조작 등의 활동위주의 수업을 하는데 바람직하고 이동에 따르는 불편을 줄일 수도 있다.

다섯째, 수준별 수업 방법에 대한 교사의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해서는 한 교사가 여러 수준의 반을 맡는 것이나 자주 반을 변경하는 것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 한 교사가 특정 수준의 반을 지속적으로 지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정규 교육과정에서 학업 성취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에게는 일과 전후에 별도의 시간을 활용하여 특별 보충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특별 보충 수업은 교실 수업에서 부족한 학습내용을 재학습하는 과정으로 운영 시기와 대상 학생을 적의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속적인 학습이 필요한 교과의 경우에는 연속적으로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학부모와의 협조를 통하여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마) 학생 활동 중심 교육과정

(1) 운영 방향

> ⑿ 교과 수업은 탐구적인 활동을 통하여 개념 및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새로운 사태에 적용하는 기회를 많이 가지게 한다. 특히 여러 가지 자료를 활용한 정보 처리 능력을 가지도록 하는 데 힘쓴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의 탐구 활동 및 체험활동이 더욱 중요해졌다.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특히 학습 결손이 누적되지 않도록 교사의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학생들의 다양한 능력을 신장하기 위해서는 학습의 결과보다는 탐구하는 과정, 탐구하는 방법, 문제 해결 과정 등의 중요성을 지도하여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향으로 발전이 가능하도록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목적에 맞게 정보를 찾고, 분석하고, 평가하고, 진술하는 일련의 과정을 해낼 수 있도록 정보 처리 능력을 신장시키는데 힘써야 한다.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제시되는 각종의 정보를 처리해서 그 중에서 필요한 의미를 찾아낼 수 있는 능력과 자기의 의사결정을 위해서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가공해서 그것을 토대로 새로운 발상을 하며 최후에 그 발상의 적부를 판단하는 일련의 과정이 학생들에게 교육되어야 한다.

(2) 활동 중심의 학습 방법

⑬ 개별적인 학습 활동과 더불어 소집단 공동 학습 활동을 중시하여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많이 가지게 한다.

소집단 공동학습은 활발한 의사소통과 능동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집단을 조직하는 방법 중의 하나이다. 소집단 구성은 모든 학생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고립되는 학생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며, 사회적 상호 작용의 환경을 제공한다.

소집단 공동학습은 다음과 같은 장점을 지닌다.

첫째, 집단의 구성원이 적어 심리적으로 의사표현과 감정표현이 자유롭다.

둘째, 개인의 집단참여 기회가 많고, 사회적인 평가를 받게 되어 학습동기가 촉진된다.

셋째, 참가한 개인이 중시되어 개인의 책임감이 증대된다.

넷째, 구성원의 수가 적어 집단지도가 용이하다.

소집단 공동학습을 실시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1) 모든 학생들이 동등한 위치에 있도록 자리를 배치하여 특정 학생이 집단에 의해 무시되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한다.

2) 소집단 공동학습에서는 맡은 과제에만 충실하고 다른 소집단의 학습 혹은 의견에 무관심해지기 쉬우므로 전체 학습에 관심을 갖도록 지도한다.

3) 소집단별 학습활동에서 집단의 지도자나 몇몇 구성원이 집단의 학습을 독점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4) 소집단별 지나친 결속이 집단별 경쟁의식의 과열을 초래하지 않도록 새로운 집단편성을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5) 집단 활동에 적응하지 못하는 고립학생이나 부적응 학생들에 대한 개별지도를 수행한다.

공동 과제를 제시하고 소집단 학습 활동을 전개하려면 사전에 철저한 연구와 치밀한 계획이 요구되며, 동일 교과 교사간의 긴밀한 정보 교환과 협조 체제가 유지되어야 한다. 정보를 교환하고 협동적으로 지도하는 가운데, 학습을 통해 기르고자 하는 가치관이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3) 교과 학습에서의 체험활동

⑭ 각 교과 활동에서는 학습의 개별화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발표·토의 활동과 실험, 관찰, 조사, 실측, 수집, 노작, 견학 등의 직접 체험 활동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유의한다.

우리나라가 지속성 있는 국가 경쟁력의 기반을 구축하려면 국가의 모든 구성원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사회적 환경과 조건의 계속적인 변화에 적응하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하는 힘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식기반사회에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다양성을 추구하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에서는 교육의 목적을 창의성 신장과 올바른 인성 함양에 두고 학생 개개인의 다양한 능력을 계발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교육과정에 설정된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과 내용과 학생 실태에 따라 다양한 학습 방법이 제공되고, 학습의 개별화를 촉진하며 동기유발과 자신감을 갖게 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학급당 학생 수가 대도시와 개발 지역을 제외한 전국에서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교실 내 강의식 수업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발표·토의 학습을 통해 자율적으로 문제를 탐색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 익숙해지도록 학습 방법을 개선해 나가야 하며 실험·관찰, 조사, 수집, 노작, 토론, 견학 등 직접적 체험 활동 중심의 학습과 함께 학습의 개별화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제는 지식 쌓기 보다는 '학습하는 방법의 학습', '자율적인 학습', '창의성을 길러 줄 수 있는 학습'이 필요한 시대이다.

바) 지역사회 자원 활용

⑮ 학교는 창의적 체험활동이 실질적 체험학습이 되도록 지역사회의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연계·협력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⑯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 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계획적으로 활용한다.

중학교의 교육과정은 학생의 직접적인 체험 활동(실험, 관찰, 조사, 수집, 노작, 토론,

견학 등)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학생의 직접적인 체험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모든 학습 활동을 통하여 조사, 탐구, 견학, 답사, 실험, 실습, 관찰 등과 같은 학생들의 직접적인 체험 활동이 많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면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벗어나 지역 사회의 교육 시설·설비, 문화재, 고적, 전적지 등을 이용한 교육 활동이 매우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사회의 교육 시설이나 설비 등을 이용하기 위한 사전 준비와 해당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가 강구되어야 하며, 활동 주제에 따라서는 지역 사회의 자원과 인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지역 사회의 다양한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을 활용하는 경우 지역 사회의 다른 학교와 긴밀히 협조하여 공동 운영을 할 수도 있으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인근에 있는 각급 학교와의 협조를 통하여 학교 간 시설과 설비의 공동 활용, 자료의 공동 개발 활용, 교원의 원활한 교류 등의 방법도 활용할 수 있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지원 시스템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활동 내용이 계속적으로 기록되고 누적되어 상급학교 진학 자료 및 진로 교육 자료로 활용되어야 한다.

4) 교육과정의 다양화

가)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편성·운영

⑰ 창의적 체험활동에 배당된 시간 수는 학생의 요구와 학교의 실정에 기초하여 융통성 있게 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7차 교육과정의 특별활동과 창의적 재량활동을 통합한 것으로 7차 교육과정의 교과재량활동은 교과영역으로, 창의적 재량활동은 비교과영역인 창의적 체험활동에 포함시킴으로써 학교 교육이 교과활동과 비교과활동으로 크게 구분되게 되었다. 따라서 창의적 체험활동은 교육목적 및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교과 이외의 기타 교육활동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학교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학생의 창의력을 기르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의 자기주도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이 요구되며, 각 학교별로 특

색 있는 중점 영역을 설정하여 육성함으로써 학교의 전통을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

창의적 체험활동의 내용은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한다. 따라서 실천중심의 체험학습 내용으로 구성하고, 경험과 행동을 중시하는 실천을 통한 학습에 초점을 두고 활동 방향을 정한다.

창의적 체험활동 편성·운영에 대해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창의적 체험활동의 각 영역은 교육과정 편성상의 구분이며, 운영에 있어서는 영역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둘째, 활동의 조직 단위, 장소, 시설 등 규모와 여건을 고려하여 정일제, 격주제, 전일제, 집중제 등과 같은 융통성 있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각 영역별 활동과 하위 활동은 학교 및 학년 단위, 학급, 동아리 부서, 지역사회 중심 집단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넷째,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각 영역별로 활용 가능한 자원 인사와 시설, 기관, 자료 등의 실태를 파악하고,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창의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편성은 4가지 영역의 배분을 학교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 어느 영역에 중점을 두고 편성할 지를 결정한 후에는 운영 형태에 따라 시간 배분을 해야 한다. 중학교에서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은 3년간 306시간, 학년별 평균 주당 3시간 연간 102시간이므로 전일제와 정시제 운영 등의 시간 운영 방법이 결정이 되면 필요한 시간을 배정하고, 어느 요일 어느 시간에 활동을 할지 배정해야 한다. 또, 집중이수를 적용하여 학년별로 시수를 다르게 배정할 수도 있다. 창의적 체험활동을 편성·운영하는 몇 가지 예시를 들면 다음과 같다.

[예시1] 토요일 및 주중에 편성하는 방안

주당 2시간은 토요일에 주당1시간은 주중에 학년별 또는 학급별 정시제로 운영하는 경우이다.

<표 Ⅲ-4> 토요일 및 주중에 편성하는 경우의 운영 내용(예시)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비고
운영 방법	정시제 및 전일제	전일제	정시제 및 전일제	정시제	
운영 시간	14	44	10	34	총 102시간
시간 편성 내용	4×1회+10 =14시간	3시간×14회+2 = 44시간	4×2회+2 =10시간	34시간	
운영 내용	전일제 1회, 정시제 10시간	조직 2시간, 전일제 14회	전일제 2회, 정시제 2시간	정시제 34시간	
운영 시간	토요일 및 주중	토요일	주중 및 토요일	주중	
담당 교사	담임교사	담당교사(전교사)	담임교사	담당교사	
특 징	동아리 활동에 중점을 둔 형태이며 토요 전일제 활동을 3시간으로 편성함.				

<표 Ⅲ-5> 토요일 및 주중에 편성하는 경우 시간 편성(예시)

	월	화	수	목	금	토
1						창의적 체험활동
2						
3						
4						
5						
6						
7		창의적 체험활동				

주중에 1시간을 학급별 정시제로 운영하는 방법과 특정 요일과 교시를 정하여 운영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학급별 정시제로 운영하는 경우 담당교사는 교과 시수가 여유 있는 교과목의 교사가 지도할 수 있다. 그동안 창의적 재량활동 운영으로 대부분의 교사가 범교과교육 지도를 해 왔기 때문에 지도 역량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연간 34시간의 수업 준비를 해서 가르치기는 어려울 수 있다. 몇 학급씩 그룹으로 묶어 교사가 전 학급을 순회하면서 지도하는 방법으로 운영하면 수업을 준비하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어 교사들의 범교과 지도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다.

[예시2] 특정 요일의 오후 시간을 활용하여 블록타임으로 운영하는 방안

주중 특정 요일의 오후 시간에 창의적 체험활동 3시간을 배정하며 교과시간을 주중

에 28시간, 토요일에 2시간을 배정하는 경우이다.

<표 Ⅲ-6> 주중에 연속 3시간 블록타임으로 편성하는 경우의 운영 내용 (예시)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비고
운영 방법	오후 정일제	오후 정일제	오후 정일제	오후 정일제	
운영 시간	30	36	12	24	총 102시간
시간 편성 내용	3시간×10=30	3시간×12=36	3시간×4=12	3시간×8=24	
운영 시간	금요일 오후 5~7교시	금요일 오후 5~7교시	금요일 오후 5~7교시	금요일 오후 5~7교시	
특 징	금요일 오후 5~7교시에 3시간 블록타임으로 운영함.				

<표 Ⅲ-7> 3시간 연속 블록타임으로 편성하는 경우의 시간 편성(예시)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창의적 체험활동	
6						
7						

평일 중 하루를 정하여 오후에 블록타임으로 시간 편성하여 매 주 같은 시간에 창의적 체험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활동 영역에 따라 적절히 시간 배정하여 운영한다.

주중에 지역사회시설을 이용하면 지역사회 시설 이용이 용이할 수 있다. 지역사회 시설을 오전과 저녁에는 지역 주민이 활용하고 오후에는 초·중·고 학생들에게 시설을 제공하도록 하며, 학교가 서로 협의하여 요일을 안배한다면 지역사회 시설 이용 장소를 확대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요일은 교과수업을 운영하게 된다. 토요 휴업일이 격주로 있으므로 시간표 작성시 토요일에 두 과목을 편성해서 수업하는 토요일에는 두 시간씩 블록타임으로 네 시간을 운영하는 방안이 있으며, 주중 26시간, 토요일 4시간을 배정하여 시간표 작성을 한 후 토요휴업일에는 주중 비어있는 시간으로 옮겨서 수업하는 방안이 있다.

나)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방법

⑱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의 내용 배열은 반드시 학습의 순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예시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에 지역의 특수성, 계절 및 학교의 실정과 학생의 요구, 교사의 필요에 따라 각 교과목의 학년별 목표에 대한 지도 내용의 순서와 비중, 방법 등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그동안 교과서와 깊게 연결되어 교과서 중심의 학교교육이 이루어져 왔는데 이제는 교육과정과 연계되어 있지만 다양한 자료 중의 하나(주된 자료)인 교과서를 지향하며,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 교육에 적합한 교과서, 기능·태도 영역에 유의하고, 창의력, 사고력 배양을 강조하고 있다.

지역의 특수성, 계절, 학교의 실정 등을 고려하고 학생의 요구, 교사의 필요에 따라 지도 내용의 순서와 비중, 방법 등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학습 내용의 배열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도 내용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적절히 조정하여 운영하는 특색 있는 교육활동이 필요하다.

이 교육과정에서는 학년별 시수 배정에서 학년군 기준시수만 제시하고 있어 학교에서는 8개 교과목 이내로 편성하여 집중이수를 해야 하고, 교과(군)별 수업시수를 증감 운영할 수 있게 되어 교육과정의 재구성이 더욱 필요해졌으며 이를 통해 지도 내용의 순서와 비중을 조정해야 한다.

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교육과정

(1) 특수학급 운영

⑲ 심신 장애 학생을 위한 특수 학급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 학생의 장애 정도와 능력을 고려하여 이 교육과정을 조정·운영하거나, 특수학교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심신 장애 학생을 위한 특수 교육은 대상자의 자율성, 창의성 및 사회 적응력 신장에 중점을 두는 학생 중심의 학교 교육으로 구현해야 한다. 교육과정은 교원·학생·학부모·지역사회 인사가 참여하여 특수 교육의 목적과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여야 하며 특수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따라

학생의 장애 정도와 능력에 따라 교육과정을 조정하여 운영한다.

또한 학생들의 요구와 학생의 창의성 계발을 위한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학생의 능력에 맞는 학습 기회와 다양한 학습 방법을 제공하여 학습의 개별화 및 자율화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그리고 견학과 관찰 등 다양한 체험활동과 교수·학습 자료의 활용을 통하여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가정과 지역사회의 연계 지도에도 힘쓴다.

일반학교에 속해있는 심신 장애 학생은 통합교육으로 일반학생과 한 교실에서 수업을 받는다. 장애 학생과 일반학생이 함께 학습 목표를 달성하려면 학생 간의 사회적 통합을 넘어서 일반 교육과정과 장애 학생의 개별화 교육이 접목된 교수적 통합이 필요하다. 한 공간에서 수업이 이루어져 같은 수업을 듣고 함께 활동함으로써 심리적인 통합이 이루어져야 진정한 통합교육의 목표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다.

학교에서는 심신 장애 학생과 일반학생의 조화로운 학교생활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심신 장애 학생과 일반학생의 교육격차 해소와 원만한 사회 통합을 위한 교육적 지원 방안과 이들과 함께 소통하는 일반학생들의 이해 및 수용 실태를 파악하여 교사와 장애 학생 학부모의 요구를 알아보고 장애 학생과 일반학생이 갈등과 편견을 극복하고 상호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함께 소통하는 공동체를 위한 친화적인 학교환경을 만들어 나간다.

(2)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배려와 지원

⑳ 학습부진아, 장애를 가진 학생, 귀국 학생, 다문화 가정 자녀 등이 학교에서 충실한 학습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와 지원을 하도록 한다.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정신 지체, 지체 부자유, 정서 장애 등 심신 장애 학생들은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을 적용해야 하며, 귀국 학생, 다문화 가정 자녀 등 교실 학습 활동에 참여가 어려운 학생들에게도 특별한 배려와 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특별한 학생의 교육은 개별화되어야 하며, 학습 자료도 학생의 개별화에 알맞은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하여야 한다. 학교에서는 가급적 방과 후 혹은 방학 중 특설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학생의 개성과 소질을

신장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민족과 문화의 동질성을 강조하고 유지해 온 한국 사회는 학교 안에서 다양한 인종과 문화의 공존이 가속화되면서 여러 가지 유형의 문화적 갈등, 편견, 차별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한국 사회의 변화된 현실에 좀 더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학교 차원에서의 교육적 노력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학교교육은 중요한 사회화 과정임을 주지하고, 각기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그들의 문화를 열린 마음으로 이해하고 서로 소통하는 능력을 배양하며, 다양한 사회구성원이 조화롭게 공존하도록 하기 위한 효과적인 다문화 교육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라) 남녀 역할에 대한 교육

(21) 교육 활동 전반을 통하여 남녀의 역할에 관한 편견을 가지지 않도록 지도한다.

우리나라의 초·중등학교에서 이수하는 교과는 남녀 구분이 없이 모두 공통으로 이수하게 되어 있다. 교육과정에서 나타난 양성평등의 개념은 기회의 평등, 조건의 평등, 결과의 평등의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 이들의 관점들은 반드시 단계적으로 발전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양성평등에 대한 편견 없는 교육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각 단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초기 양성평등의 개념은 기회의 평등을 의미했다. 기회평등의 주장은 모든 남녀에게 동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관점이다. 주어진 기회를 누릴 수 있느냐 여부는 개인의 역량과 형편에 달린 것이고 법이나 제도상 특정집단에게 이익이나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지금은 남녀의 역할에 대한 편견 없는 교육을 통하여 남녀 모두 자신이 타고난 성에 관계없이 자신의 소질과 재능을 충분히 개발 활용함으로써 자아를 실현해 나갈 수 있게 해야 한다는데 관점을 두고 있다. 변화가 빠르고 선택의 폭이 넓은 미래 사회에서는 자신의 주관을 정립하고, 누구에게도 정신적으로 종속되지 않고 올바른 생각으로 비판하고 자주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양성평등교육은 타인의 특성과 개성을 존중하는 마음을 기르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나와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배타적인 생각은 남녀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작용하여 서로가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는데 인색하므로 양성평등교육은 다른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남녀가 서로 존중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남녀의 역할에 대한 편견 없는 교육을 통해 각자 타고난 소질과 능력을 개발할 실질적인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마) 범교과 학습

(22) 범교과 학습 주제는 관련되는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육 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다루어지도록 하고 지역 사회 및 가정과의 연계 지도에도 힘쓴다.

민주 시민 교육, 인성 교육, 환경 교육, 경제 교육, 에너지 교육, 근로 정신 함양 교육, 보건 교육, 안전 교육, 성 교육, 소비자 교육, 진로 교육, 통일 교육, 한국 정체성 교육, 국제 이해 교육, 해양 교육, 정보화 및 정보 윤리 교육, 청렴·반부패 교육, 물 보호 교육, 지속 가능 발전 교육, 양성 평등 교육, 장애인 이해 교육, 인권 교육, 안전·재해 대비 교육, 저출산·고령 사회 대비 교육, 여가 활용 교육, 호국·보훈 교육, 효도·경로·전통 윤리 교육, 아동·청소년 보호 교육, 다문화 교육, 문화 예술 교육, 농업·농촌 이해 교육, 지적 재산권 교육, 미디어 교육, 의사소통·토론 중심 교육, 논술 교육, 한국 문화사 교육, 한자 교육, 녹색 교육 등

주요 교육 시책, 자기 발전 계획상의 사업, 국가 시책·중점 사업 등은 학교 교육과정 속에서 통합 운영되어야 한다. 환경, 교통, 절약, 안전, 질서·준법, 경로 효친, 예절 등과 같이 국가적, 지역적, 시대적, 사회적으로 교육과정이나 교과서에 반영되기를 요구하는 범교과적인 학습 내용은 회의 자료나 장학 계획, 협의회, 공문 지시 등으로 해결하려 해서는 목표를 실현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학교 교육과정에 그 내용이 편성되어야 하고, 심도 있는 수업을 통하여 계획적, 조직적, 반복적으로 학습되고 실천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국가·사회적인 요구나 필요에 의한 범교과 학습 활동을

학교의 실정에 따라 다양하고 특색 있게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민주 시민 교육, 인성 교육을 비롯하여 위에 제시된 국가 사회적 요구 사항은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하여 학교 교육 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다루도록 명시되어 있다.

학교에서는 학교 여건 및 학생, 학부모, 사회적 요구에 따라 교과에서 실시하기는 어려우나 학생들에게 교육되어야 할 분야를 선택하여 학습 주제를 정하고 지역사회 및 가정과의 연계 지도도 적극 고려해 보아야 한다.

범교과 학습 활동의 주제는 학교보다는 학생의 요구를 반영하여 학생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학교의 독특한 교육적 필요도 반영해야 한다.

범교과 주제 학습은 교과 교육과정을 통해 교과 관련 내용과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고, 창의적 체험활동 '자율활동' 영역의 '창의적 특색활동'으로 특정 주제를 정하여 학교실정에 따라 학년별로 운영할 수도 있고,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지도할 수도 있다. 범교과 학습 주제에 따른 교육활동 사례는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 해설 부분에 상술되어 있다.

바) 계기 교육

(23) 학교에서는 교육과정에 제시되지 않은 사회 현안에 대해 학생들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계기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기 교육 지침에 따른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회 현안에 대한 학생들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계기교육이 필요하다. 계기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학년 및 교과협의회 등을 통해 작성한 교수·학습 과정안 및 학습 자료에 대하여 학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또한 계기 교육은 교육의 중립성과 교육과정의 정상화를 확보할 수 있는 범위에서 실시되어야 하므로 시도 교육청에서 제시하는 계기 교육 지침에 따라야 한다.

사) 교과용 도서 이외의 자료 활용

(24) 교과용 도서 이외의 교수·학습 자료는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개발한 것 등을 사용할 수 있다.

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과서, 참고 자료, 기타 교육 자료와 각종 교구, 교육 기자재 등의 적절한 선택과 활용이 필요하다.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수업시수의 20%이내 증감과 집중이수제 적용이 가능하므로 교수·학습 자료의 활용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학교는 교육 활동에 필요한 각종 교구를 구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각종 교육 관련 기관에서 개발한 자료에 대한 활용 방법을 강구하고, 그 외에 필요한 자료는 학교에서 자체 개발하여 활용한다. 그리고 시청각 기자재와 컴퓨터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담당 교사를 확보하고, 교사들에게 활용 방법에 대한 자체 연수를 실시하여 활용도를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1교과 다 교과서 체제'를 지향하고, 정보화 시대에 대비한 멀티미디어 학습 자료 개발 등을 표방하고 있다. 따라서 각 교과의 교수·학습 자료가 '서책'에 머무르지 않고,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다양한 자료의 형식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교과 교육을 위한 자료로서 교과서만이 아니라, 워크북, 워크 시트 등의 자료가 다양하게 개발, 보급될 것이므로 '교과서 중심'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교육 정보망, 멀티미디어 등 컴퓨터를 활용한 교육이 활성화되도록 해야 한다.

이때, 교육활동에 투입되는 교육자료에 대해 교육과정과의 적합성, 교육 목표, 학습 목표와의 일치도, 지도상의 유효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때로는 자작 교재, 교구, 수집 자료 등이 훌륭한 학습 효과를 낼 수도 있으므로 개인별 연간 교수·학습 계획에 반영하여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고, 누적·보존하여 반복해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자료로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 교과교실제

(25) 각 교과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과교실제 운영을 활성화 한다.

교과교실제는 교육 수요자의 능동적 학습 탐구형을 요구하는 21세기 인재 양성과 다양한 요구 수준을 담고자 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교육여건의 변화에 따른 교과교실제 운영을 위해 예상되는 문제점을 찾고, 그러한 문제점을 극복하는데 필요한 과정의 절차와 운영 혁신 방안을 고려하여 적용해야 한다.

따라서 학교별 교과교실제 운영에 따른 변화될 수 있는 항목에 대한 이해, 그러한 항목들의 의미, 학교에 적용될 때 예상되는 문제점, 그러한 문제점을 극복하는데 필요한 조건과 도입 절차 및 운영 혁신 방안 등을 파악하여 교과교실제가 학교 여건에 따라 잘 안착되도록 해야 한다.

교과교실제 도입을 위해 도입 절차 및 과정에서는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 및 연수를 실시해야 하며 교과교실제 운영을 위한 추진 기구를 구성·운영하고, 학교 여건을 분석하고 운영 유형을 결정하여 시행해야 한다. 이 준비 과정에서 중요한 절차로는 교과교실제 도입을 검토하는 시기, 교과교실제 시행을 위한 환경을 구축하는 시기, 교과교실제를 시행하고 성과를 축적해 가는 시기 등의 단계별 과정을 거쳐야 한다.

교과교실을 실제로 배치할 때는, 교과교실은 수업 장소로서의 기능과 함께 교사의 연구실 기능, 학습 자료를 축적하여 다음 수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자료실 기능도 포함하여야 하며 교과교실을 배치할 때에는 학교 건물의 구조 및 시설 조건, 학생 편의 시설 조성 위치, 학생의 이동 동선, 교원의 업무 및 수업을 위한 동선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홈베이스, 학생 휴게 공간 등의 설치를 포함하여 교과 블록형, 학년 블록형, 절충형 등의 교실 배치를 시설 여건과 규모에 따라 정해야 한다. 이 밖에도 학생 지원 시설, 교육과정 중심 교원 조직, 교무 행정업무 처리 보조 요원 도입, 행정 업무 처리를 위한 환경 개선 등 교과교실제를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26) 실험·실습이나 실기 지도에 있어서는 시설 및 기계·기구, 약품 사용의 안전에 유의하도록 한다.

과학, 기술·가정 등의 실험·실습이나 체육·예술 교과의 실기 지도에서는 실험·실습 시설 및 기계·기구 사용 시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학교에서는 수업 중 안전사고

가 일어나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 시설 및 기구를 미리 점검해 보고 수업에 투입해야 하며, 학생들이 안전 수칙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과학과의 경우 실험 도구와 약품의 종류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다르므로 교과 담당 교사는 대응방법을 숙지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특히 유의해야 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응급처치 방법도 익혀 두어야 한다. 실험실, 체육실 등에는 학생들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안전 수칙을 게시해 놓는 것도 필요하다.

자) 방과후학교 운영

(27)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바탕으로 방과 후 학교 또는 방학 중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학교는 학생의 요구를 바탕으로 방과 후 학교를 개설해야 하는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점차 학부모의 요구도 확대되고 있다. 7차 교육과정에서 특기 적성교육으로 예체능 등의 특기 교육을 위해 시작되었던 방과 후 학교는 교과 학습을 추가함으로써 현재의 방과 후 학교 형태가 이루어졌으며 방과 후 학교가 점차 활성화됨에 따라 미도달 학생이 전혀 없는 학교도 생겨나기 시작했다. 방과 후 학교가 부진 학생의 수를 감축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방과 후 학교는 본 교육과정, 정규 교실 수업과는 차별화되어야 하고 프로그램에 따라 적정 인원을 맞춰 학습 내용을 다양화해야 하며 특히 수준별로 구성해야 한다. 수준별로 반을 편성하려면 어느 정도 수강생을 확보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나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과 개별적으로 필요성을 안내하고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나. 평가 활동

1)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한 평가

(1) 학교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의 적합성, 타당성, 효과성을 자체 평가하여 문제점과 개선점을 추출하고, 다음 학년도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그 결과를 반영한다.

학교에서는 학기별로 학교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의 결과에 대하여 자체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국가 교육과정의 기준에 적합하게 편성하였는지, 지역과 학교의 특징, 학부모나 학생들의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타당성 있는 교육과정을 편성하였는지, 그리고 이를 잘 운영하여 어느 정도의 교육적 효과가 있었는지를 매년 자체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평가 결과를 토대로 새 학년도의 교육과정을 더 질 높게 편성·운영하려는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바로 이러한 평가가 교육과정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평가이다.

2) 학생 교육활동 평가

가) 평가 목적 및 방향

(가) 평가는 모든 학생들이 교육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교육의 과정으로 실시한다.

평가는 모든 학생들의 교육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교육의 과정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다양한 도구와 방법으로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의 교육 목표 성취도를 평가하여 학생의 목표 도달도를 확인하고, 수업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우선 교육 평가에 대한 의식의 전환이 요망된다. 평가는 등급을 매기고 서열을 정하기 위한 활동이라는 지금까지의 인식에서,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목표에의 달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활동이라는 개념으로 바뀌어야 한다. 또한, 학습의 결과로 도달하게 되는 도달점의 확인이라고 하는 평가에서 목표에 도달하기까지의 사고 과정 중심 평가로 전환되어야 하며, 교과서 내용의 암기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교육과정 중심의 이해 습득 정도에 대한 평가의 의미로 전환되어야 한다.

시·도 교육청은 국가 수준에서 제시한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의 평가 방향에 따라 시·도의 실정에 알맞게 각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의 구체적인 평가 지침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교사가 기획, 출제하고, 처리하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평가에 대한 전문성을 지닐 수 있는 연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중학교의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등 모든 교육 활동의 평가는 학생의 활동 상황과 특징, 진보의 정도를 파악하여, 특기할만한 사항은 서술식으로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교과별 성취도(평어 표기)와 석차를 기술하는 방식이 지니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서 '평가 결과 기록 방법의 개선'을 의미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기록 방법의 개선은 평가 방법 전체의 개선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다.

나) 평가 도구 및 방법의 다양화

㈏ 학교는 다양한 평가 도구와 방법으로 성취도를 평가하여 학생의 목표 도달도를 확인하고, 수업의 질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

중학교에서도 '학생 스스로 자신의 지식이나 기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산출물을 만들거나, 행동으로 나타내거나, 답안을 작성·구성하도록 요구하는 평가 방식', 즉 수행평가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수행평가란 교사가 학습자의 학습과제, 수행 과정이나 결과를 직접 관찰하고, 관찰 결과를 전문적으로 판단하는 평가 방식이다.

수행평가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서술형 또는 주관식 검사, 논술형 검사, 구술시험, 찬·반 토론법, 실기 시험, 실험·실습법, 면접법, 관찰법, 자기평가 보고서, 연구 보고서, 포트폴리오(portfolio) 등 다양한 기법들을 활용하여 창의성이나 문제 해결력 등을 파악해야 한다.

이 교육과정에서는 집중이수로 주당 수업시간이 3~4시간인 교과목이 대부분이므로 시수에 맞춰 평가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다. 시간 편성에 따라 다양하게 수업시간을 운영할 수 있으므로 개인별 평가에서 나아가 모둠활동에 대한 평가도 내실 있게 할 수 있다. 집중이수로 담당 학급수가 많지 않으므로 학생 개인의 평가도 다양하게 실시할 수 있다.

평가는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와 함께 교사의 교수 활동에 대한 평가 및 학교 교육

과정 편성·운영의 결과를 포함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 보완해 나감으로써 교육의 질을 충실히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다) 서술형, 논술형 평가

> ㈐ 교과의 평가는 선택형 평가보다는, 서술형이나 논술형 평가 그리고 수행 평가의 비중을 늘려서 교과별 특성에 적합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한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식정보화 사회는 창의적인 인재를 요구하므로, 학교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지식을 창출하고 자신의 생각을 스스로 표현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주입식, 단순 지식 암기 위주의 수업은 창의성을 키워주는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하므로 무엇보다 평가 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

정기 평가에서 선택형, 단답형, 완성형 문항보다 학생의 창의성과 표현력을 키워주는 서술형 평가를 지향해야 하며 특정 주제에 대한 논술, 실험·관찰보고서 등 교과의 특성에 적합하게 교육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수행평가를 활성화 하여야 한다. 아울러, 창의성 관련 수업 내용과 평가 결과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여 입학사정관제 전형 자료 등 상급학교 진학 자료로 제공할 필요성이 요구되므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평가는 직접 가르친 교사가 제작한 평가지를 활용하여 서술형 평가로 전환하여야 한다.

선다형 일변도의 지필 검사에서 서술형 평가로 전환하여 이제까지 행한 평가의 역기능 현상을 줄이고, 평가의 적극적 기능을 살려야 한다. 창의성 계발을 위한 평가 개선 방안이 실효를 거두려면 특히 교사의 의지와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라) 평가 기준 설정

> ㈑ 실험·실습의 평가는 교과목의 성격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세부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실시한다.

실험·실습의 평가는 사전에 합리적인 세부 평가 기준을 작성하여 학생에게 공개함으로써 학습 활동의 목표를 명확히 하여 학습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정의적, 기능적,

창의적인 면이 특히 중시되는 교과는 태도, 표현, 기능 평가를 위한 실기 평가 기준안을 마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실험·실습의 평가는 교과목의 성격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세부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실시한다.

> ㈐ 정의적, 기능적, 창의적인 면이 특히 중시되는 교과의 평가는 타당한 평정 기준과 척도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정의적, 기능적, 창의적인 면이 특히 중시되는 교과는 태도, 표현, 기능 평가를 위한 실기 평가 기준안을 마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지적인 능력, 창의력 등의 인지적 요인과 성격, 사회성 등의 정의적 요인, 학습과 교수과정에 대한 이해 등을 평가를 할 수 있는 서술형 평가 등의 수행 평가를 활용하여야 한다.

평가는 여러 가지 유형을 상호 보완적으로 사용하여, 수업과정을 개선하고 개별 학생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또한 수행평가를 시행하기 위해선 교사가 먼저 수행평가에 대한 전문적인 소양을 갖추도록 해야 하며 수행평가 목적에 가장 알맞은 평가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또한 평가의 타당도를 중요시 하여 평정 기준과 척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 평가 내용

> ㈑ 학교와 교사는 학교에서 가르친 내용과 기능을 평가하도록 한다. 학생이 학교에서 배울 기회를 마련해 주지 않고, 학교 밖의 교육 수단을 통해서 익힐 수밖에 없는 내용과 기능은 평가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평가는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교육 목표에 도달하기까지의 사고 과정 중심 평가가 되어야 한다. 이에 평가는 교육과정 중심의 이해 습득 정도에 대한 평가의 의미로 전환해야 한다. 그러므로 평가는 교과별 교육과정 내에서 교과 지도와 연계하여 학교에서 학생들이 배운 내용의 평가가 되어야 한다. 학교 밖의 교육 수단을 통해서 익힐 수밖에 없는 내용과 기능은 사교육을 확대시킬 뿐만 아니라 학교 교육의 불신을 가져오

게 된다.

평가는 학교 교육활동에 대해 성취도를 측정하는 것이므로 학교 교육과정 밖의 내용을 평가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바) 창의적 체험활동의 평가

> ㈐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한 평가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내용과 특성을 감안하여 평가의 주안점을 학교에서 작성, 활용한다.

평가란 추진 성과를 목표에 비교·검토하고, 그 결과를 모든 관계에 환류 시켜 보다 효과적인 계획의 수립·추진·결과를 낳게 하려는 일련의 활동이다. 평가의 관점이나 결과는 교육과정의 수립과 운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평가는 창의적 체험활동에서도 중요한 영역이다.

창의적 체험활동 평가가 가지는 일반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창의적 체험활동의 평가는 학생들의 태도 및 행동의 변화를 주된 대상으로 삼는다. 교과 활동에서는 주로 학생들의 지식, 이해, 기능의 성취도를 평가하는 데 반하여, 창의적 체험활동은 전인적인 성장 발달에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학생들의 태도나 행동 변화가 평가의 주된 목적된다.

둘째, 창의적 체험활동의 평가는 개인적인 성취도는 물론, 활동 집단의 변화도 중요한 대상이 된다. 교과 활동이 궁극적으로 학생 개인의 성취도 평가를 목표로 함에 비해, 창의적 체험활동은 참여와 봉사를 통한 개인의 변화는 물론, 집단 구성원 전체의 변화를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

셋째, 창의적 체험활동의 평가는 활동 결과에 대한 평가보다는 활동 과정에 대한 평가를 한다. 교과의 평가에서도 활동 과정에 대한 평가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창의적 체험활동의 평가에서는 활동의 결과보다는 활동 과정에 참여하는 태도, 노력의 정도, 집단 역할 수행, 인간관계, 봉사 의식 등이 더 비중 있게 다루어져야 한다.

넷째, 창의적 체험활동의 평가에서는 매우 다양한 평가 방법이 요구된다. 교과 활동에서도 다양한 평가 방법을 요구하고 있지만, 필답 고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편이다.

그러나 창의적 체험활동은 관찰법, 질문지법, 자기 평가, 상호 평가 등 교과에서 자주 사용하지 않는 평가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Ⅳ. 학교 교육과정 지원

1.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가. 국가 수준 지원 사항

이 교육과정의 원활한 편성·운영을 위하여 국가 수준에서는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지원한다.

1) 교육과정 지원 활동

⑴ 시·도 교육청의 교육과정 지원 활동과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활동이 상호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국가 차원에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원활한 편성·운영을 위하여 시·도 교육청의 교육과정 지원 활동과 단위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활동이 상호 유기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각종 지원 활동을 해야 한다.

첫째, 교육과정 개정 내용에 대한 대국민 연수·홍보를 강화하여 이전 교육과정과의 차별성, 즉, 단위 학교에서 학년별로 배우는 교과(군)별 교과목의 수업시수를 구체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교육과정의 자율성'과 함께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따른 '책무성'도 인식시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한 학교 구성원들의 역할에 따른 전문성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학교가 학교 교육과정 편성 시,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을 연계함으로써 학생들의 학력 향상과 인성 함양으로 승화시킬 수 있고, 학부모들은 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각종 정보 활용과 모니터링으로 학교 교육에 신뢰를 보낼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2) 교육과정의 질 관리를 위한 평가 활동

(2) 이 교육과정의 질 관리를 위하여 국가 수준에서는 주기적으로 학업 성취도 평가, 학교와 교육 기관 평가,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평가를 실시한다.

㈎ 학업 성취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교과별, 학년(군)별 학생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는 교육과정의 적절성 확보와 그 개선에 활용한다.

㈏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교육청의 교육과정 지원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학교와 관련 교육청에 대한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지원 체제의 적절성과 실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한다.

이 교육과정의 질 관리를 위한 평가 활동의 실시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변화가 문서 수준의 수사적 변화에 머무르지 않고 교육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 있다.

첫째, 국가에서 의도한 교육과정이 구체적으로 시·도 교육청과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계속 평가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학생의 학력 평가, 학교와 교육 기관 평가,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평가를 하도록 교육과정 기준에 제시되어 있다.

둘째, 학생의 학업 성취도 평가는 전수 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구체적인 평가 대상 학년, 교과, 주기 등은 계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적절하게 정하도록 한다. 이러한 국가 수준의 학력 평가 결과는 학생 개인의 학력을 학부모에게 알려 주는 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교육과정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도록 하고 있다.

셋째, 모든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실태를 일정 주기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과정 평가의 주목적은 교육과정의 파행적인 운영을 예방하고,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실태 파악과 그것을 토대로 교육과정의 부분 수정을 위한 것으로 학교와 교육 기관 평가로 이루어져 있다. 학교와 교육 기관 평가는 단위 학교와 교육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로서 일정한 주기로 모든 학교와 교육청을 대상으로 평가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학교와 교육청에 행정적,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넷째, 교육과정의 질 관리의 하나로 교육과정에 따른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평가를 한다. 이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 대한 학생들의 학업 성취 정도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새 교과 교육과정의 내용을 성취 기준 형태로 제시함으로써 향후 학력 평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3) 국가 수준의 '평가 기준' 개발 제공

> ⑶ 국가 수준에서는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정신을 구현한 평가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서 학교 현장에 제공해 주어야 한다.
>
> ㈎ 교과별로 '평가 기준'을 개발, 보급하여 학교가 교과 교육과정의 목표에 부합되는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
> ㈏ 교과별 평가 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평가 방법, 절차, 도구 등을 개발하여 학교에 제공한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의하면 국가 수준에서는 단위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정신을 구현한 평가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학교 현장에 제공하기로 되어 있다.

우선 교과별로 '평가 기준'을 개발하여 학교에 보급하게 되어 있다. 제7차 교육과정을 기본으로 하여 교육과정을 개정·고시한 이후 지속적으로 교과별 '성취기준'과 '평가기준'을 개발·보급하고 있는 바,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교과별 '평가 기준'을 개발·보급하고 있다. 그리고 이 기준을 시·도 교육청에서는 자율적으로 수정·보완하여 각 단위 학교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단위 학교가 2009 개정 교육과정 정신을 구현하는 평가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국가는 평가 문항 은행을 구축하도록 2009 개정 교육과정은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국가에서는 여러 경로를 통하여 교과별로 많은 문제들을 개발하는 과제를 수행하였고, 개발된 수많은 교과별 문항들을 문제 은행식으로 보관하고 있어 단위 학교에서는 이를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이 고시되었으므로 기존의 교과별 문제 은행의 문제들을 갱신하여 보급하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문항들을 개발, 저장함으로써 현장 학교가 새로운 교육과정에 맞는 새로운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준비

하고 있다.

셋째,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질이 잘 관리되게 하기 위하여 국가 수준에서는 교과별로 다양한 종류의 평가 방법, 절차, 도구 등을 개발하여 학교에 제공하고 있다.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평가 활동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평가 도구의 개발·보급이 필수적이다. 물론, 현재에도 다양한 도구들이 제공되고 있으며,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맞는 새로운 평가 도구들이 다양하게 개발·보급되고 있다.

나. 교육청 수준 지원 사항

이 교육과정의 원활한 편성·운영을 위하여 교육청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원한다.

1) 교육과정 위원회 구성

⑴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에 관한 조사 연구와 자문 기능을 담당할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이 위원회에는 교원, 교육 행정가, 교육학 전문가, 교과 교육 전문가, 학부모, 지역 사회 인사, 산업체 인사 등이 참여할 수 있다.

시·도 교육청에서는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관련하여 업무를 담당할 교육과정 위원회, 예를 들면 '○○시(도) 교육과정 편성·운영 위원회' 또는 '○○시(도) 교육과정 심의회'에 관한 사항을 교육규칙으로 정하여 구성·운영하고 있다. 시·도 교육청별로 명칭은 다를 수 있지만 그 기능은 비슷하여 조직 안에 조사·연구·심의·자문 등을 위한 분과와 교과별 분과, 학교급별 분과 등을 조직하고 이들 조직을 상호 연결, 교류하여 시·도 교육청 별로 일관성과 계열성을 유지하고, 시·도 교육청에서는 지역적 특성이나 교육 중점 등에 관한 연구가 학교급별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교육과정 위원회의 기능별, 교과별, 학교급별 조직은 대체로 국가 수준 교육과정 개발의 절차를 고려한 것이며, 시·도 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적절히 구성·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작성을 위하여 별도의 연구팀을 조직·운영하거나 '교육과정 지원 장학 협의단'이나 '교육과정 컨설팅 지원단'

등을 활용하여 지침(안)에 대한 검토 및 심의를 하며, 이 위원회의 교과별·학교급별 분과 및 심의 분과에서 그 업무를 담당할 수도 있다.

시·도 교육청 수준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관리와 관련하여 구성·운영되는 위원회에 교육 전문직의 참여도 필요하지만 교원, 교육 행정가, 교육과정 전문가, 교과 교육 전문가, 학부모, 지역 사회 인사 등 다양한 교육 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교육실태를 반영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작성

⑵ 지역의 특수성, 교육의 실태, 학생·교원·주민의 요구와 필요 등을 반영하여 교육 중점을 설정하고,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작성한다.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작성을 위한 시·도 교육청 수준의 교육과정 위원회 또는 별도의 기구가 구성되면, 먼저 국가 수준 교육과정 기준에 대한 세밀한 분석·검토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시·도 교육청별로 지역의 특수성에 대한 세밀한 조사·연구가 있어야 한다. 자연·산업·역사·문화·의식 등은 물론, 학부모의 요구, 지역 사회의 필요와 단위학교별로 학생의 학력 실태, 교원의 지도 실태, 시설·환경 및 재정 등 기초적인 조사를 충실히 하고, 이를 분석하여 교육에 반영하여야 할 시사점을 추출한다. 또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분석 결과와 기초 조사를 통해 교육 현황을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해당 지역의 교육에 대한 교육 중점을 설정하게 된다. 이러한 기초 조사·연구는 시·도 교육청뿐 만이 아니라 교육 연구 기관, 연수 기관, 각종 학회와 교원 양성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유지하면서 추진되어야 한다.

기초 실태 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항목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지역의 교육 현황 조사

- 학교 현황(학교 수, 학교 규모, 학급 규모, 지역별 학교 분포 등)
- 교원 현황(남녀 교원, 전담 교사, 연령별, 자격별 등)
- 학생 현황(남녀 학생 수, 학급당 학생 수, 지역별 학생 수 등)

② 지역의 특수성 조사

- 자연환경(위치, 지형, 기후, 면적, 개발 계획 등)
- 인문환경(교통, 통신, 문화, 보건, 생활 모습, 전통문화 등)
- 사회환경(인구, 취락, 인구 이동, 행정, 재정, 산업 발달 등)

③ 지역별 교육과정에 대한 요구 조사

- 학생, 교원, 학부모의 의견 및 요구
- 교원 현황
- 지역 사회의 요구 및 필요
- 학부모의 교육관 및 기대 수준

④ 시·도 교육청의 강조 사항

- 교육 중점 과제의 선정·운영 실태
- 21세기 지향 교육 방향 설정(단기·중기·장기 계획 등)

⑤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실태

- 교육 중점 실태(학교장의 교육적인 신념 및 교훈 등)
-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 실태
- 교원 현황
- 편제와 시간 배당 실태
- 교과 교육과정 운영 실태
-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 운영 실태

⑥ 교육 시설·설비 및 자료 활용 현황

- 교과서 이외의 학습 자료 활용
- 실험·실습의 시설 및 설비
- 교육 기자재 보유·활용 현황

⑦ 교원 연수 및 연구 활동

- 교원 연구 모임 현황(종류, 활동 실태 조사 등)
- 교원 연수 현황(학교별 연수, 지역별 연수 등)

⑧ 지역 사회의 시설·환경

- 지역 사회의 시설 활용 현황

- 지역 사회의 교육 환경 현황

⑨ 교육과정 평가

- 학생의 학업 성취도
- 학교 교육과정 운영 평가
- 학교와 교육 기관과의 협조 체제

이상과 같은 각종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수준의 교육과정 반영 시사점을 추출하고, 시·도 교육청의 교육 중점이나 강조점이 모색되어야 한다. 특히, 시·도 교육청에서 지향하는 교육 방향에 대한 단기·중기·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지침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연구학교 및 연구교사 지원

⑶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개선을 위한 연구학교를 운영하고, 수업 개선을 위한 연구 교사를 두어 교과별 연구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이 효율적으로 적용되려면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적절한 도움 자료의 개발·보급과 함께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연구학교 운영과 교과별 연구회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교육청에서는 관내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개선을 위하여 연구학교를 운영·지원하고, 교과별·연구 영역별 수업 연구 교사 및 교원 연구회 활동을 지원한다. 교원 연구 모임을 지원하는 방안의 하나는 교원들이 교과별, 학년별, 주제별, 학교별로 자발적이고 집단적인 연구 풍토를 조성하고, 교과 및 비교과 관련 관심 분야, 학생의 발달 특성, 학생의 개인차에 따른 수준별 수업 운영, 수업 방법, 평가 방법 등을 계속해서 연구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4) 교육과정 컨설팅 및 각종 자료 지원

⑷ 학년군, 교과군 도입을 통한 단위학교 교육과정 자율 편성과 창의적 체험활동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교육과정 컨설팅 등 지원 기구를 조직하여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한 각종 자료를 연구, 개발하여 보급한다.

교육청 차원에서는 학교마다 다양하고 차별화된 교육과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준비에서부터 평가까지 전 과정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지원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이전 교육과정에서도 국가 수준 교육과정과 학교 교육과정의 매개적인 역할을 시·도 교육청에서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 단위 학교의 교육모습과 그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졌던 전례가 있었다.

모든 교육청이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그 결과가 단위학교마다 학업성취도를 비롯한 국가 수준의 각종 평가 기준에 도달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지원 활동이 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컨설팅' 등을 위한 전문적인 지원 조직 구성·운영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2009 개정 교육과정은 이전과 달리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자율화에 대한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지원활동이 요구된다.

또한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개발·보급 및 활용 방안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구별 장학 협의회, 교과 교육 연구회 등 지역의 자원 인사나 교원, 학부모의 도움이 필요하다. 즉, 학교나 개별 교사가 실천한 각종 교수·학습 자료, 우수 사례 등을 모아 책자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거나 일반화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5) 교원에 대한 연수 계획 수립·시행

⑸ 교원의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능력 향상과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한 지도 능력 제고를 위하여 각급 학교 교원에 대한 연수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시·도 교육청 수준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의 적용을 위해서는 먼저 교장, 교감 및 교사를 대상으로 교육과정에 대한 전문성 신장과 이해도 제고를 위한 연수가 우선 요구된다. 이 연수 과정에서는 연구에 실제로 참여했던 연구진이 지침의 성격, 그 개발 과정 및 검토되었던 쟁점들, 지침의 기본 이념 및 지침 적용 시 주의를 요하는 사항 등을 상세하게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 연수에서는 무엇보다 각 학교에서 작성해야 할 '학교 교육과정'의 성격 및 그 작성 요령에 대한 교육도 강조되어야 한다.

또한 현장 교원에 대한 연수 외에도 시·도 교육청, 지역 교육청, 직속 기관 등에 소속된 교육 전문직 대상의 교육과정 연수도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교육 전문직이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제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업 개선에 대한 전문적인 지도·조언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시·도 교육청과 지역 교육청 등에 소속된 일반직, 학교 운영 위원, 학부모, 지역 인사 등에 대한 연수도 실시해야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행·재정적인 지원과 학교 교육에 대한 지역 사회의 지원과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2009 개정 교육과정에는 교과 이외의 활동으로서 교과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으며 앎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나눔과 배려를 할 줄 아는 창의성과 인성을 겸비한 미래지향적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창의적 체험활동이 신설되었다. 이에 대한 지도능력 제고를 위하여 단위학교별로 관련 자료의 준비·편성·검토·수정과 보완 및 확정의 모든 과정에 전 교직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참신한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등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창의적 체험활동 편성·운영을 위한 연수가 특별히 이루어져야 하겠다.

6) 교육과정 편성·운영 자료 개발 및 보급

⑹ 각급 학교가 새 학년도 시작에 앞서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교육과정 편성·운영 자료를 개발·보급하고, 교원의 전보를 적기에 시행한다.

실천 중심의 장학 자료 개발·보급에 관한 역할은 제7차 교육과정 적용 시부터 지역 교육청에 분담되어 있었지만, 단위학교에서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

립하는데 있어서 시·도 교육청에서의 장학자료 지원 없이는 어려운 일이다. 이에 시·도 교육청에서는 각 학교가 새 지침을 효율적으로 적용하는데 필요한 교육과정 편성 예시 자료 및 교수·학습 자료, 창의적 체험활동 예시 자료 등을 조기에 개발·보급하고, 매 학년도 개시 이전에 새 학년도 학교 교육과정 편성에 따른 교원 수급 계획을 면밀히 세워 교원의 전보도 적절한 시기에 시행되어야 한다.

7) 행·재정적인 지원체제 확립

⑺ 학교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을 위한 교육 시설, 설비, 자료 등의 정비 확충에 필요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한다.

시·도 교육청에서는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한 교육 시설, 설비, 자료 등의 정비 확충에 필요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교육과정의 결정 주체는 단위 학교이므로 학교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계획을 바탕으로 교원·학생·학부모·지역 사회 등의 요구가 반영된 교육 시설과 설비 등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행·재정적 요구를 시·도 교육청에 요구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개정 교육과정에서 새로이 도입된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제반 문제점을 파악하여 지속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예컨대 창의적 체험활동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매뉴얼 개발·보급과 교수·학습자료 개발 지원은 물론, 필요하다면 외부 강사비 지원과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설비 지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하여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현장 지원반을 구성·운영하는 등의 행·재정적 지원도 필요하다.

아울러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지역 사회의 다양한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소규모 학교가 많은 읍·면 지역의 경우는 지역 사회의 다른 학교와 긴밀히 협조하여 교육과정을 공동 운영할 수 있는 만큼 인근에 있는 각급 학교와의 협조를 통하여 학교 간 시설과 설비의 공동 활용과 자료의 공동 개발 및 활용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공동으로 개발, 활용하는 과정에서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하며,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 조성에

도 힘써야 한다.

8) ‘지역 자원 목록’ 작성 제공

⑻ 학교가 지역사회의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연계·협력해서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관내 학교가 활용 가능한 ‘지역 자원 목록’을 작성하여 제공하는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시·도 교육청과 지역 교육청은 교육의 다양성은 물론 내실화를 유도해 나가기 위해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학교 여건에 따라 그 내용이나 방법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학교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연계한 ‘지역자원 목록’을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특히 교과활동은 주로 학교 교육과정 속에서 주도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창의적 체험활동과 같은 비교과활동은 학교가 활용 가능한 인적·물적 ‘지역 자원 목록’ 등을 지원받아 학교 교육활동과 연계시켜 내실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9) ‘특별 보충 수업’ 운영 지원

⑼ 수준별 수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지원하며, 학습 결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특별 보충 수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한다.

학교는 수준별 수업의 적용에 따라 특별 보충 수업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등 수많은 수업 개선 자료를 필요로 한다. ‘특별 보충 수업’의 운영 방법은 단위학교에서 결정하도록 되어있는 바, 시·도 교육청에서는 수준별 수업을 적용하는 교과의 학습 결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특별 보충 수업’ 운영 학교를 위하여 학습 결손 정도 및 원인을 정확히 진단할 수 있는 별도의 진단 평가 문항을 제공하고 평가 후에는 학습 결손 판정을 받은 학생에게 적용할 적절한 교수·학습 자료의 제공은 물론, 이에 따른 강사

료 지원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또한, 학교에 실제로 투입될 수 있는 실천 중심의 장학 자료, 예컨대 수준별 수업 운영 모형이나 각종 수준별 수업 프로그램, 워크북이나 워크시트, 수준별 수업 개선 자료, 수업 개선 아이디어 모음집 등을 작성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학교에 제시해 주어야 한다.

10)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⑾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재능을 보이는 학생과 학습 장애가 있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 기회를 마련하고 지원한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은 학생의 개인차에 따른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학생의 능력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끌어 올리고 학생의 능력에 따라 재능을 발휘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이에 시·도 교육청은 정상적인 수업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이나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재능을 보이는 학생들을 위해 각 학교에 별도의 과정을 설치하여 대상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11) 귀국자 및 다문화 가정 자녀의 교육 기회 마련

⑿ 귀국자 및 다문화 가정 자녀의 교육 경험의 특성과 배경을 고려하여 이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한다.

시·도 교육청에서는 귀국자 및 다문화 가정의 자녀를 위한 교육 기회를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단위 학교가 귀국자 및 다문화 가정의 자녀 교육을 위한 특수한 과정을 설치·운영하기가 어려울 때에는 이를 지역 교육청별 또는 지구별 단위에서 공동으로 개설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즉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개별 학교보다 지역 교육청별 또는 지구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법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

여기서 귀국 학생 교육은 장기간의 해외 체류로 인하여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거나 국내 학교 교육에의 적응이 곤란한 귀국 자녀를 대상으로 할 수 있으며, 일정 기간 집

중적인 한국어 지도와 학습 결손 또는 부진 과목의 보충 지도 및 생활 지도를 실시하여 장기 해외 체류로 발생되는 학습 장애와 심리적 갈등의 요인을 해소하고, 국내 생활 및 학습 적응을 용이하게 해 줌으로써, 국내 학교로의 순조로운 복귀를 도와야 한다. 또한 귀국 학생 교육을 통하여, 귀국 학생들이 해외에서 터득한 언어적, 문화적 특성을 신장시키며, 외국에서 얻은 국제성을 유지·신장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해당 학생의 경쟁력 확보에도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도 교육청은 특정 학교에 특별 학급을 지정·설치하여 귀국 학생이 입학, 전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도록 별도의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고, 지구별로 공동 운영할 경우, 학교 간 연합을 통해 귀국 학생 교실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역시 시·도 교육청에서는 해외에서의 학습 경험을 살릴 수 있는 학습 교재를 개발하여 활용하거나 학생의 능력에 알맞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최대한의 인적·물적 지원을 전개하여야 한다.

또한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다문화 가정 자녀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학교 및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하여 시·도 교육청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아울러 학생들의 언어 및 문화장벽 해소와 사회적 귀속감 증대를 위하여 각각의 능력에 맞도록 개별화 지도 방안을 강구하고, 학생의 문화적 배경 차이에 따른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도 개발하여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12) 미이수 과목 이수기회 보장 및 학교 밖 이수과목의 인정

⑬ 전·입학, 귀국 등에 따라 공통 교과를 이수하지 못한 학생들이 해당 교과를 이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마련해 주고, 학생들이 지역 사회의 공공성 있는 사회 교육 시설을 통해 이수한 과정을 인정해 주는 방안을 마련한다.

전·편입학, 복학 또는 귀국 학생 등의 경우 각 학교 간 및 입학년도 간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차이로 인하여 공통 교과를 이수하지 못한 학생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학생들의 이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단위학교에서 학기 중 또는 별도의 이수 시기를 정하여 이수기회를 제공하거나, 일정 지역의 학교들을 연합하여 미 이수 교과목을

개설 운영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에서는 행·재정적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이에, 단위학교에서는 소속 교사의 수업 시수 과다로 인하여 미이수 과목 개설이 어려운 교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겸임 교사를 활용하거나 기간제 교사, 강사 등을 채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또한 지역 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지원 체제를 확립해야 한다. 특정 과목에서 지역 사회의 공공성 있는 사회 교육 시설에서의 학습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시·도 교육청에서는 각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용 가능한 사회 교육 시설을 지정하고 이를 안내하는 차원의 '지역 자원 목록'을 제시해 주어야 하며, 지정한 시설에서 일정한 기준을 이수하였을 경우 이를 '이수' 또는 학교 성적 등으로 인정해 주는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13) 신설 과목의 설치 운영

⑮ 교육과정에 제시되지 않은 교과목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교육청은 관련 지침을 학교에 제시해 주고, 학교로 하여금 필요한 사전 절차를 밟도록 지원한다.

학교는 급변하는 산업의 발달, 학문적 추세,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특성화된 교육을 추구하고, 이의 실현을 위하여 국가 수준에서 제시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과목을 신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에서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과목을 신설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승인 절차를 상세히 제시해 주어야 한다. 여기에는 신청 시기, 신청 양식, 심사 요령 및 결과 통보 시기 등을 자세하게 안내하여야 하며, 특히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융통성을 부여하기 위해 신청 절차를 가급적 단순화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 학교에서 해당 신설 과목에 대한 표시과목 교사 수급을 요구할 것에 대비하여 담당 교사 확보 계획, 교재 개발 계획 및 교과 교육과정 운영 방안 등을 수립하여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14) 학교 및 인접 교육청 간의 협조 체제 구축

⑰ 학교 교육과정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학생의 배정, 교원의 순회 및 수급, 학교 간 시설과 설비의 공동 활용, 자료의 공동 개발 활용에 관하여 학교 간 및 인접 교육청 간의 협조 체제를 구축한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고등학교 3년 과정 모두가 선택 교육과정으로 전환 된 바, 중학교 교육과정은 고등학교의 선택 교육과정에 대비하여 학생의 능력, 적성, 필요, 관심 등을 반영하여 학생 스스로 자신의 진로를 개척해 나가야 한다. 또한 자율학교의 증가로 인해 새로운 과목의 신설도 다양해 질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시·도 교육청에서는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인근학교 겸임(순회) 교사 발령은 물론, 교원 양성, 부전공 연수 등의 장기적인 교원 수급 계획을 수립하여 학교가 교육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학생의 배정과 교원의 원활한 교류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시·도 교육청에서는 모든 학교가 필요한 시설을 개별적으로 갖추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지역 교육청과 연계하여 관내 학교 간의 시설과 설비의 공동 활용과 자료의 공동 개발 활용에 관하여 학교 및 인접 교육청 간의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역 교육청은 인근 학교 간 시설과 설비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며, 인접 교육청과의 협조를 통하여 관할 지역 내에 있는 학교가 교육과정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 간에 시설과 설비의 공동 활용, 자료의 공동 개발 및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이다.

15) 인정도서의 개발 보급

⑱ 학생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교과용 도서의 인정, 개발, 보급을 위해 노력한다.

학교는 급변하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특성화된 교육을 추구하고, 이의 실현을 위하여 국가 수준에서 제시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과목을 신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 제시된 과목의 경우는 국가가 교과용 도서 개발이나 교과 운영을 담당할 교사 양성 등을 책임지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새로운 교육과정이

고시되면 국가에서는 교과용 도서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 등을 개발 보급하고 있다. 따라서 시·도교육청에서는 국정·검정 도서가 없는 경우나 단위학교에서 개발하기 곤란한 경우나 혹은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시·도 교육감이 인정하는 '인정 도서' 등을 개발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과 함께 학생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교과용 도서 보급에도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21 세기 지식 정보화 사회의 학교 교육에서 사용되는 교과서의 모습은 서적 위주의 '교과용 도서'로서의 협소한 개념이 아니라 디지털 매체를 이용한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가 함께 활용되는 '교육과정 자료'로의 전환이 이루어진 만큼, 수업에서는 학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교과서나 지도서 등과 같은 교과용 도서 외에 교육 방송, 시청각 기자재, 각종 학습 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교과서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교육 정보망, 멀티미디어 등 컴퓨터를 활용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학습 매체의 개발·보급에도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16) 학교 교육과정의 정기적 파악 및 질 관리

⑳ 학교에 대한 교육과정 운영 지원 실태와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효과적인 교육과정의 운영과 개선 및 질 관리에 필요한 적절한 지원을 한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질 관리 중심의 교육과정 평가 체제를 도입하였다. 시·도 교육청에서는 시·도 지침에서 의도한 교육과정이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지속적으로 평가함으로써 교육과정의 질 관리에 주안점을 두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서 교과별 교육 목표 성취의 기준을 설정하고, 주기적인 학업 성취도 평가, 학교 평가, 학교 교육과정 평가 체제를 도입하도록 하였다.

17) 학교 교육과정의 평가

(21)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한 질 관리 및 교육과정 편성·운영 체제의 적절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업 성취도 평가, 교육과정 편성·운영 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특별히 강조된 교육과정의 평가와 질 관리와 관련하여 시·도 교육청에서는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작성하여 지역 교육청과 학교에 지시할 때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평가와 질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의 '목표-내용-방법-평가'의 일관성 있는 실천 과정을 확인하고 실증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교육의 질 관리에 활용하여야 한다.

또한 지역 교육청에서는 '실천 중심의 장학 자료'를 작성하여 학교에 제시할 때 '학교 교육과정의 평가와 질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의 실천 과정을 확인·평가하여 교육의 질 관리에 활용하여야 한다.

2. 특수한 학교에서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1) 초·중·고등학교에 준하는 학교의 교육과정

가. 초·중·고등학교에 준하는 학교의 교육과정은 이 교육과정에 따라서 편성·운영한다.

중학교에 준하는 학교에서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은 시·도 교육청에서 제시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따르게 되어 있다. 특히, 교육과정의 개선 연구를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지정한 교육과정 연구학교가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기준과는 다른 방식으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수업 일수) 제2항에는 매 학년 220일 이상의 수업 일수를 운영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주 5일 수업실시 또는 연구학교 등에서는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수업 일수를

감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수업 일수 규정과 관련하여 교육과정의 개선 연구를 위해 새로운 방식으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연구의 목적을 수행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중학교에 준하는 학교는 시·도 교육청에서 제시하는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준용하여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해야 하며, 시·도 교육청은 중학교에 준하는 학교의 범주를 상세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2) 교육과학기술부 직할 학교의 교육과정

> 나. 국가가 설립 운영하는 학교의 교육과정은 해당 시·도 교육청의 편성·운영 지침을 참고하여 학교장이 편성한다.

교육과학기술부 직할 학교의 경우 시·도 교육청의 관할에 속하지 않지만, 해당 중학교는 해당 학교 소재지 관할 시·도 교육청의 편성·운영 지침을 준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기타 특수한 학교의 교육과정

> 다. 공민학교, 고등 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근로 청소년을 위한 특별 학급 및 산업체 부설 학교, 기타 특수한 학교는 이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학교의 실정과 학생의 특성에 알맞은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시·도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운영한다.

근로 청소년을 위한 특별 학급 및 산업체 부설 학교의 경우, '산업체의근로청소년의교육을위한특별학급등의설치기준령시행규칙'에 의거하여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에 관하여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제7차 교육과정 적용부터는 학교의 실정과 학생의 특성에 알맞은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시·도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전적으로 시·도 교육청에 교육과정 편성·운영권을 부여하였다. 이에,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이러한 취지를 계승하여 근

로 청소년을 위한 특별 학급 및 산업체 부설 학교, 기타 특수한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권을 시·도 교육청에 부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시·도 교육청에서 제시하는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승인에 따른 절차 및 서식, 일정, 유의점 등에 대해 상세하게 기술되어야 한다. 또한 총 수업시수와 필수 과목의 운영, 실험·실습 시간의 확보, 창의적 체험활동의 운영 방안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야간 수업을 하는 학교의 교육과정

> 라. 야간 수업을 하는 학교의 교육과정은 이 교육과정을 따르되, 다만 단위 수업 시간을 40분으로 단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야간에 수업을 편성·운영하는 학교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특수한 학교로 분류되지 않았다. 따라서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제시된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의 내용을 모두 지도해야 한다. 다만 시간 운영의 융통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1시간 수업을 45분 원칙에서 40분으로 단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도 교육청은 야간에 수업을 하는 학교의 경우 창의적 체험활동 등의 실시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5) 특성화 학교, 자율학교의 교육과정

> 바. 특성화 학교, 자율학교 등 법령에 의거하여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이 부여되는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설립 목적 및 특성에 따른 교육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권을 부여하고,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른다.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 및 특정 목적 하에 학교 운영의 특례 등이 부여되고 있는 특성화 학교 및 자율 학교 등으로 지정된 중학교의 경우 그 학교의 설립 이념 및 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융통성 있는 운용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기본적으로 이 교육과정에 따라 편성·운영하도록 하지만 그 학교의 설립 목적 및 특

성에 따른 교육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권을 일정 정도 부여하였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6조(특성화 중학교)에 따라 교육과정의 운영 등을 특성화하기 위한 학교를 특성화 중학교로 지정하여 그 학교의 목적 및 특성에 맞는 교육을 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5조(학교운영의 특례)에 의한 자율 학교의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61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의 규정에 따라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를 받아 학교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들 유형에서 중학교가 학교의 특성을 반영하여 융통성 있는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먼저 지침의 시간 배당 기준에 의거하여 교과(군)별 기준 수업시수를 최대 20%까지 증감하되, 총 수업시간 수가 3,366시간 이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선택 과목군은 단위 학교별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고 특성화 중학교 및 자율학교 등은 각기 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택과목을 편성·운영할 수 있으므로 시·도 교육청은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2009년 6월 학교 자율화 조치의 일환으로 발표한 '자율학교 20% 이상 확대 지정' 조치에 의거 자율학교가 대폭 늘어날 것에 대비하여 시·도 교육청에서는 자율학교 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지침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6) 교육과정 연구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 사. 교육과정의 연구를 위해 새로운 방식으로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고자 하는 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 교육과정의 기준과는 다르게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교육과정의 개선 연구를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또는 시·도 교육감이 지정한 교육과정 연구학교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기준과는 다르게 새로운 방식으로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또는 시·도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지침의 취지는 현행 교육과정 틀을 초월하여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는 데 현행 교육과정 틀을 초월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이것이 가능하

도록 융통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학교 현장에서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을 수행할 경우 현행의 교육과정의 틀을 초월한 교육과정 편성·운영이 필요할 때가 있기 때문이다.

<부록1> 2009 개정 교육과정 총론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 - 41 호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하여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23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1.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은【별책 1】과 같습니다.
2. 초등학교 교육과정은【별책 2】와 같습니다.
3. 중학교 교육과정은【별책 3】과 같습니다.
4. 고등학교 교육과정은【별책 4】와 같습니다.
5. 국어과 교육과정은【별책 5】와 같습니다.
6. 도덕과 교육과정은【별책 6】과 같습니다.
7. 사회과 교육과정은【별책 7】과 같습니다.
8. 수학과 교육과정은【별책 8】과 같습니다.
9. 과학과 교육과정은【별책 9】와 같습니다.
10. 실과(기술·가정) 교육과정은【별책 10】과 같습니다.
11. 체육과 교육과정은【별책 11】과 같습니다.
12. 음악과 교육과정은【별책 12】와 같습니다.
13. 미술과 교육과정은【별책 13】과 같습니다.
14. 외국어과 교육과정은【별책 14】와 같습니다.

15. 중학교 선택 과목 교육과정은【별책 16】과 같습니다.

16. 한문, 교양 선택 과목 교육과정은【별책 17】과 같습니다.

17.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은【별책 18】과 같습니다.

18. 외국어 계열 전문 교과 교육과정은【별책 27】과 같습니다.

19. 국제 계열 전문 교과 교육과정은【별책 28】과 같습니다.

부 칙

1. 이 교육과정은 학교 급별, 학년별로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가. 2011년 3월 1일 : 초등학교 1, 2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나. 2012년 3월 1일 : 초등학교 3, 4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다. 2013년 3월 1일 :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라. 단, 고등학교 보통 교과 중 화법과 작문Ⅰ·Ⅱ, 독서와 문법Ⅰ·Ⅱ, 문학Ⅰ·Ⅱ, 한국지리, 세계지리, 동아시아사, 세계사,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윤리와 사상, 생활과 윤리, 물리Ⅰ·Ⅱ, 화학Ⅰ·Ⅱ, 생명과학Ⅰ·Ⅱ, 지구과학Ⅰ·Ⅱ, 운동과 건강 생활, 스포츠 문화, 스포츠 과학, 음악 실기, 음악과 사회, 음악의 이해, 미술과 삶, 미술 감상, 미술 창작, 농업 생명 과학, 공학 기술, 가정 과학, 창업과 경영, 해양 과학, 정보, 독일어Ⅰ·Ⅱ, 프랑스어Ⅰ·Ⅱ, 스페인어Ⅰ·Ⅱ, 중국어Ⅰ·Ⅱ, 일본어Ⅰ·Ⅱ, 러시아어Ⅰ·Ⅱ, 아랍어Ⅰ·Ⅱ, 한문Ⅰ·Ⅱ는 2012년부터 적용하며, 고등학교 보통 교과 중 '*'표가 된 과목의 경우는 2011년 3월 1일부터 2014년 2월 28일까지 적용합니다.

교육과정의 성격

이 교육과정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하여 고시한 것으로, 초·중등학교의 교육 목적과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며, 초·중등학교에서 편성, 운영하여야 할 학교 교육과정의 공통적,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이 교육과정의 성격은 다음과 같다.

가. 국가 수준의 공통성과 지역, 학교, 개인 수준의 다양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교육과정이다.

나. 학습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신장하기 위한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이다.

다. 교육청과 학교, 교원·학생·학부모가 함께 실현해 가는 교육과정이다.

라. 학교 교육 체제를 교육과정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한 교육과정이다.

마. 교육의 과정과 결과의 질적 수준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교육과정이다.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Ⅰ.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

1. 추구하는 인간상

우리나라의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 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 이념을 바탕으로, 이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은 다음과 같다.

가. 전인적 성장의 기반 위에 개성의 발달과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
나. 기초 능력의 바탕 위에 새로운 발상과 도전으로 창의성을 발휘하는 사람
다. 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품격있는 삶을 영위하는 사람
라. 세계와 소통하는 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의 정신으로 공동체 발전에 참여하는 사람

2. 교육과정 구성의 방침

추구하는 인간상을 구현하기 위한 이 교육과정 구성의 방침은 다음과 같

다.

가.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창의적인 인재를 기를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한다.

나. 이 교육과정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공통 교육과정과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선택 교육과정으로 편성한다.

다.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경직성을 탈피하고, 학년 간 상호 연계와 협력을 통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유연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학년군을 설정한다.

라. 공통 교육과정의 교과는 교육 목적상의 근접성, 학문 탐구 대상 또는 방법상의 인접성, 생활양식에서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교과군으로 재분류한다.

마. 선택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의 기초영역 학습 강화와 진로 및 적성 등을 감안한 적정 학습이 가능하도록 4개의 교과 영역으로 구분하고, 필수이수단위를 제시한다.

바. 학기당 이수 교과목 수 축소를 통한 학습부담의 적정화와 의미 있는 학습활동이 전개 될 수 있도록 집중이수를 확대한다.

사. 기존의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을 통합하여 배려와 나눔의 실천을 위한 '창의적 체험활동'을 신설한다.

아. 학교 교육과정 평가, 교과 평가의 개선, 국가 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 실시 등을 통해 교육과정 질 관리 체제를 강화한다.

Ⅱ.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1. 초등학교

가. 초등학교 교육목표

초등학교의 교육은 학생의 학습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 능력 배양과 기본 생활 습관을 형성하는 데 중점을 둔다.

⑴ 풍부한 학습 경험을 통해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균형 있게 자랄 수 있도록 하며, 다양한 일의 세계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한다.
⑵ 학습과 생활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기초 능력을 기르고, 이를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상상력을 키운다.
⑶ 우리 문화에 대해 이해하고, 문화를 향유하는 올바른 태도를 기른다.
⑷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다양하게 표현하며 타인과 공감하고 협동하는 태도를 기른다.

나. 편제와 시간 배당

⑴ 편제

㈎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한다.

① 교과(군)는 국어, 사회/도덕, 수학, 과학/실과, 체육, 예술(음악/미술), 영어로 한다. 다만, 초등학교 1, 2학년의 교과는 국어, 수학, 바른 생활, 슬

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로 한다.

②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으로 한다.

⑵ 시간 배당 기준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1~2학년</th><th>3~4학년</th><th>5~6학년</th></tr>
<tr><td rowspan="7">교
과
(군)</td><td>국어</td><td rowspan="7">국 어
448
수 학
256
바른 생활
128
슬기로운 생활
192
즐거운 생활
384</td><td>408</td><td>408</td></tr>
<tr><td>사회/도덕</td><td>272</td><td>272</td></tr>
<tr><td>수학</td><td>272</td><td>272</td></tr>
<tr><td>과학/실과</td><td>204</td><td>340</td></tr>
<tr><td>체육</td><td>204</td><td>204</td></tr>
<tr><td>예술(음악/미술)</td><td>272</td><td>272</td></tr>
<tr><td>영어</td><td>136</td><td>204</td></tr>
<tr><td colspan="2">창의적 체험활동</td><td>272</td><td>204</td><td>204</td></tr>
<tr><td colspan="2">학년군별 총 수업시간 수</td><td>1,680</td><td>1,972</td><td>2,176</td></tr>
</table>

① 이 표에서 1시간 수업은 40분을 원칙으로 하되, 기후 및 계절, 학생의 발달 정도, 학습 내용의 성격 등과 학교 실정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② 학년군 및 교과(군)별 시간 배당은 연간 34주를 기준으로 한 2년간의 기준수업시수를 나타낸 것이다.

③ 학년군별 총 수업시간 수는 최소 수업 시수를 나타낸 것이다.

④ 3~4학년의 국어과 기준수업시수는 주5일 수업에 따라 감축된 시간 수이므로 학교에서는 442시간을 기준수업시수로 운영할 수 있다

⑤ 실과의 수업 시간은 5~6학년 과학/실과의 수업시수에만 포함된 것이다.

다.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중점

⑴ 학교는 1학년 학생들의 입학 초기 적응 교육을 위해 창의적 체험활동의 시수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입학 초기 적응 프로그램 등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⑵ 학교는 모든 교육 활동을 통해 학생의 인성과 기본 생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한다.

⑶ 각 교과의 기초적, 기본적 요소들이 체계적으로 학습되도록 계획하고, 정확한 국어사용 능력을 신장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특히, 기초적 국어사용 능력과 수리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위해 별도의 프로그램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⑷ 학교의 특성, 학생·교사·학부모의 요구 및 필요에 따라 학교가 자율적으로 교과(군)별 20% 범위 내에서 시수를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⑸ 초등학교에서는 학교의 여건과 교과(군)별 특성을 고려하여 학년, 학기별로 집중 이수를 통해 학기당 이수 교과 수를 감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⑹ 정보통신활용교육, 보건교육, 한자교육 등은 관련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체계적인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⑺ 전입 학생이 특정 교과목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교육청과 학교에서는 '보충 학습 과정' 등을 통해 학습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⑻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복식 학급을 편성, 운영하는 경우에는 교육 내용의 학년별 순서를 조정하거나 공통 주제를 중심으로 교재를 재구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⑼ 학교는 학생이 학년군별로 이수해야 할 학년별, 학기별 교과목을 편성하여

안내 한다.

⑽ 예술(음악/미술)은 음악과 미술 교과를 중심으로 편성·운영한다.

2. 중학교

가. 중학교 교육목표

중학교의 교육은 초등학교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학습과 일상 생활에 필요한 기본 능력을 배양하며, 다원적인 가치를 수용하고 존중하는 민주시민의 자질 함양에 중점을 둔다.

⑴ 심신의 건강하고 조화로운 발달을 추구하며, 다양한 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익혀 적극적으로 진로를 탐색한다.
⑵ 학습과 생활에 필요한 기초 능력과 문제 해결력을 바탕으로 창의적 사고력을 기른다.
⑶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 대한 경험을 토대로 다양한 문화와 가치에 대한 이해를 넓힌다.
⑷ 다양한 소통능력을 기르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태도를 갖춘다.

나. 편제와 시간 배당 기준

⑴ 편제

㈎ 중학교 교육과정은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한다.

① 교과(군)는 국어, 사회(역사 포함)/도덕, 수학, 과학/기술・가정, 체육, 예술(음악/미술), 영어, 선택으로 한다. 선택은 한문, 정보, 환경, 생활 외국어(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보건, 진로와 직업 등 선택 과목으로 한다.

②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으로 한다.

(2) 시간 배당 기준

구 분		1~3학년
교과(군)	국어	442
	사회(역사 포함)/도덕	510
	수학	374
	과학/기술・가정	646
	체육	272
	예술(음악/미술)	272
	영어	340
	선택	204
창의적 체험활동		306
총 수업 시간 수		3,366

① 이 표에서 1시간 수업은 45분을 원칙으로, 기후 및 계절, 학생의 발달 정도, 학습 내용의 성격 등과 학교 실정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② 학년군 및 교과(군)별 시간 배당은 연간 34주를 기준으로 한 3년간의 기준수업시수를 나타낸 것이다.

③ 총 수업시간 수는 3년간의 최소 수업 시수를 나타낸 것이다.

다. 중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중점

⑴ 학교는 학생들이 이수해야 할 3년간의 교과목을 학년별, 학기별로 편성하여 안내한다.

⑵ 교과(군)의 이수 시기와 수업 시수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⑶ 학교의 특성, 학생·교사·학부모의 요구 및 필요에 따라 학교가 자율적으로 교과(군)별 수업 시수를 20% 범위 내에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⑷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학생의 학기당 이수 교과목 수를 8개 이내로 편성하도록 한다.

⑸ 예술(음악/미술)은 음악과 미술 교과를 중심으로 편성·운영한다.

⑹ 선택과목을 개설할 경우, 학교는 2개 이상의 과목을 개설함으로써 학생들의 선택권이 보장되도록 한다.

⑺ 학교는 필요한 경우 새로운 선택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새로운 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도 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의거하여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⑻ 학교는 학생의 직업 및 진로에 대한 탐색과 선택을 돕기 위해 진로 교육을 강화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한다.

⑼ 전입 학생이 특정 교과목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교육청과 학교에서는 '보충 학습 과정' 등을 통해 학습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고등학교

가. 고등학교 교육목표

고등학교 교육은 중학교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 개척 능력과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데 중점을 둔다.

⑴ 성숙한 자아의식을 토대로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기능을 익혀 진로를 개척하며 평생학습의 기본 역량과 태도를 갖춘다.
⑵ 학습과 생활에서 새로운 이해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비판적, 창의적 사고력과 태도를 익힌다.
⑶ 우리의 문화를 향유하고 다양한 문화와 가치를 수용할 수 있는 자질과 태도를 갖춘다.
⑷ 국가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태도를 기른다.

나. 편제와 단위 배당 기준

⑴ 편제

㈎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한다.

㈏ 교과는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로 한다.

① 보통 교과 영역은 기초, 탐구, 체육・예술, 생활・교양으로 구성하며, 교과(군)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역사/도덕 포함), 과학, 체육, 예술(음악/미술), 기술・가정/제2외국어/한문/교양으로 한다.

② 전문 교과는 농생명 산업, 공업, 상업 정보, 수산・해운, 가사・실업, 과학, 체육, 예술, 외국어, 국제에 관한 교과로 한다.

㈐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으로 한다.

⑵ 단위 배당 기준

【표 1】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rowspan="2">교과
영역</th><th rowspan="2">교과(군)</th><th colspan="2">필수 이수 단위</th><th rowspan="2">학교자율과정</th></tr>
<tr><th>교과(군)</th><th>교과
영역</th></tr>
<tr><td rowspan="9">교

과
(군)</td><td rowspan="3">기초</td><td>국어</td><td>15
(10)</td><td rowspan="3">45
(30)</td><td rowspan="9">학생의 적성과
진로를 고려하여
편성</td></tr>
<tr><td>수학</td><td>15
(10)</td></tr>
<tr><td>영어</td><td>15
(10)</td></tr>
<tr><td rowspan="2">탐구</td><td>사회
(역사/도덕 포함)</td><td>15
(10)</td><td rowspan="2">35
(20)</td></tr>
<tr><td>과학</td><td>15
(10)</td></tr>
<tr><td rowspan="2">체육・예술</td><td>체육</td><td>10
(5)</td><td rowspan="2">20
(10)</td></tr>
<tr><td>예술
(음악/미술)</td><td>10
(5)</td></tr>
<tr><td>생활・교양</td><td>기술・가정/
제2외국어/
한문/
교양</td><td>16
(12)</td><td>16
(12)</td></tr>
<tr><td colspan="2">소 계</td><td colspan="2">116(72)</td><td>64</td></tr>
<tr><td colspan="3">창의적 체험활동</td><td colspan="3">24</td></tr>
<tr><td colspan="3">총 이수 단위</td><td colspan="3">204</td></tr>
</table>

① 1단위는 50분을 기준으로 하여 17회를 이수하는 수업량이다.

② 1시간의 수업은 50분을 원칙으로 하되, 기후 및 계절, 학생의 발달 정도, 학습 내용의 성격 등과 학교 실정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③ 필수이수단위의 교과(군) 및 교과 영역 단위 수는 해당 교과(군) 및 교과 영역의 '최소 이수 단위'를 가리킨다.

④ 필수이수단위의 ( ) 안의 숫자는 전문교육을 주로 하는 학교, 예체능 등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권을 인정받은 학교가 이수할 것을 권장한다.

⑤ 총 이수 단위 수는 교과(군)과 창의적 체험 활동의 이수 단위를 합한 것으로, 고등

학교 졸업에 필요한 '최소 이수 단위'를 가리킨다.

(3) 보통 교과

【표 2】

교과 영역	교과(군)	과목
기초	국어	국어*, 화법과 작문 I, 화법과 작문II, 독서와 문법 I, 독서와 문법II, 문학 I, 문학II
	수학	수학*, 수학의 활용, 수학 I, 미적분과 통계기본, 수학II, 적분과 통계, 기하와 벡터
	영어	영어*, 영어 I, 영어II, 실용 영어 회화, 심화 영어 회화, 영어 독해와 작문, 심화 영어 독해와 작문
탐구	사회 (역사/도덕 포함)	사회*, 한국사*, 한국 지리, 세계 지리, 동아시아사, 세계사,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도덕*,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과학	과학*, 물리 I, 물리II, 화학 I, 화학II, 생명과학 I, 생명과학II, 지구과학 I, 지구과학II
체육·예술	체육	체육*, 운동과 건강 생활, 스포츠 문화, 스포츠 과학
	예술 (음악/미술)	음악*, 음악 실기, 음악과 사회, 음악의 이해 미술*, 미술과 삶, 미술 감상, 미술 창작
생활·교양	기술·가정/제2외국어/한문/교양	기술·가정*, 농업 생명 과학, 공학 기술, 가정 과학, 창업과 경영, 해양 과학, 정보 독일어 I, 독일어II, 프랑스어 I, 프랑스어II, 스페인어 I, 스페인어II, 중국어 I, 중국어II, 일본어 I, 일본어II, 러시아어 I, 러시아어II, 아랍어 I, 아랍어II 한문 I, 한문II 생활과 철학, 생활과 논리, 생활과 심리, 생활과 교육, 생활과 종교, 생활 경제, 안전과 건강, 진로와 직업, 보건, 환경과 녹색성장

① 각 과목의 기본 단위 수는 5단위이며, 각 과목별로 1단위 범위 내에서 증감 운영이 가능하며, 가능한 한 한 학기에 이수하도록 한다.

② *표 한 과목은 교과(군)별 학습의 위계를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이 과목은 4단위 범위 내에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위 표에 제시된 과목 이외에 전문교과의 과목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⑷ 전문 교과

【표 3】

교과	과목				기준 학과
농생명 산업	농업 이해	농업 기초 기술	농업 정보 관리	농업 경영	식물 자원과
	생물 공학 기초	재배	작물 생산 기술	숲과 인간	동물 자원과
	산림 자원 기술	원예	생활 원예	생산 자재	농업 토목과
	원예 기술 Ⅰ	원예 기술 Ⅱ	동물 자원	사육 기술 Ⅰ	식품 가공과
	사육 기술 Ⅱ	누에와 비단	조경	조경 기술 Ⅰ	농업 기계과
	조경 기술 Ⅱ	농업과 물	농촌과 농지 개발	농업 토목 기술 Ⅰ	조경과
	농업 토목 기술 Ⅱ	농업 기계	농업 기계 공작	농업 기계 기술 Ⅰ	농산물유통정
	농업 기계 기술 Ⅱ	식품 과학	식품 위생	식품 가공 기술 Ⅰ	보과
	식품 가공 기술 Ⅱ	농산물 유통	농산물 유통 관리 Ⅰ	농산물 유통 관리 Ⅱ	환경·관광
	환경 보전	환경 관리 Ⅰ	환경 관리 Ⅱ	농업과 관광	농업과
					생물 공학과
공업	공업 입문	기초 제도	정보 기술 기초	전문 제도	기계과
	기계 일반	전기 일반	공업 영어	기계 설계	전자 기계과
	기계 공작법	원동기	유체 기기	공기 조화 설비	금속 재료과
	기계 기초 공작	공작 기계 Ⅰ	공작 기계 Ⅱ	산업 설비	전기과
	금형 제작	전자 기계 이론	전자 기계 회로	전자 기계 공작	전자과
	전자 기계 제어	로봇 기초	로봇 제작	재료 일반	통신과
	금속 제조	재료 가공	주조	금속 처리	컴퓨터 응용과
	전기 응용	전기 회로	전기 기기	전력 설비 Ⅰ	토목과
	전력 설비 Ⅱ	전기·전자 측정	자동화 설비	전자 기기	건축과
	전자·전산 응용	전자 회로	계측 제어	통신 일반	디자인과
	정보 통신	통신 시스템	컴퓨터 구조	시스템 프로그래밍	화학 공업과
	프로그래밍	디지털 논리 회로	측량	역학	환경 공업과
	토목 설계	토목 일반	토목 재료·시공	수리·토질	세라믹과
	지적 전산	지적 실무	건축 구조	건축 계획 일반	식품 공업과
	건축 목공	건축 시공 Ⅰ	건축 시공 Ⅱ	디자인 일반	섬유과
	색채 관리	조형	제품 디자인	공예	인쇄과
	시각 디자인	컴퓨터 그래픽	공업 화학	단위 조작·공정 제어	자동차과
	제조 화학	분석 화학	기능성 세라믹	세라믹 원리·공정	조선과
	구조 세라믹	세라믹 디자인	발효 공업	식품 제조 기계	항공과
	식품 분석	식품 공업 기술	섬유 재료	방적·방사	컴퓨터 게임과

	제포 · 봉제 평판 인쇄 자동차 · 건설 기계 건설 기계 구조 · 정비 선박 건조 항공기 장비 대기 · 소음 방지 컴퓨터 게임 그래픽 영화 · 방송 제작	염색 · 가공 특수 인쇄 자동차 기관 자동차 차체 수리 항공기 일반 항공기 전자 장치 폐기물 처리 만화 · 애니메이션 기초 촬영 · 조명	인쇄 일반 사진 · 전자 제판 자동차 새시 선박 이론 항공기 기체 환경 공업 일반 컴퓨터 게임 기획 애니메이션 제작 방송 시스템	인쇄 · 사진 재료 사진 자동차 전기 · 전자 제어 선박구조 항공기 기관 수질 관리 컴퓨터 게임 프로그램 만화 창작	만화·애니메이션과 영상 제작과
상업 정보	상업 경제 경영과 법 커뮤니케이션 실무 세무 회계 전자 무역과 국제 상무 프로그래밍 실무 멀티미디어 기획 인터넷 쇼핑몰 관리	컴퓨터 일반 마케팅과 광고 원가 회계 금융과 생활 유통 정보 관리 소프트웨어 개발 멀티미디어 실무 전자 상거래 실무	회계 원리 경영 정보 시스템 기업 회계 국제화와 기업 경영 물류 관리 사무 관리 실무 웹 프로그래밍 인터넷 마케팅	기업과 경영 기업 자원 관리 전산 회계 무역 영어 자료 처리 멀티미디어 일반 전자 상거래 일반 창업 일반	경영 정보과 회계 정보과 무역 정보과 유통 경영과 정보 처리과 멀티미디어과 전자 상거래과 응용디자인과 관광경영과
수산 · 해운	수산 일반 수산 생물 양식 생물 질병 해양 오염 열기관 잠수 기술 해사 영어 전자 통신 운용 해양 정보 관리	해사 일반 수산 경영 일반 수산 가공 냉동 일반 선박 보조 기계 항해 선화 운송 생선회 실무	해양 일반 해양 생산 기술 수산물 유통 냉동 기계 선박 전기 · 전자 선박 운용 전자 통신 공학 해양 레저 · 관광	수산 · 해운 정보처리 수산 양식 해양 환경 냉동 공조 실무 기계 설계 · 공작 해사 법규 전자 통신 기기 항만 물류 일반	해양 생산과 수산 양식과 자영 수산과 수산 식품과 해양 환경과 냉동 공조과 동력 기계과 항해과 전자 통신과 해양 레저과 항만 물류과 해양 정보과
가사 · 실업	인간 발달 동양 조리 패션 디자인 주거 영·유아 교육 원리 관광 일반 관광 영어 보건 간호 헤어 미용	식품과 영양 서양 조리 한국 의복 구성 실내 디자인 영유아 교육 프로그램 관광 경영 실무 관광 일본어 기초 간호 임상 실무 피부 관리	급식 관리 제과 제빵 서양 의복 구성 가구 디자인 영·유아 놀이 교육 관광 서비스 실무 관광 중국어 기초 복지 서비스 메이크업	한국 조리 의복 재료 · 관리 자수와 편물 디스플레이 영·유아 생활 지도 관광 외식 · 조리 간호의 기초 노인 생활 지원 공중 보건	조리과 의상과 실내 디자인과 유아교육과 관광과 간호과 복지 서비스과 미용과
과학	물리 실험 과학사 고급 수학 고급 지구 과학 현대 과학과 기술	화학 실험 전자 과학 고급 물리 과제 연구 Ⅰ 원서 강독	생명 과학 실험 정보 과학 Ⅰ 고급 화학 과제 연구 Ⅱ 워크숍	지구 과학 실험 정보 과학 Ⅱ 고급 생명 과학 환경 과학 과학 철학	
체육	스포츠 개론 체조 운동 투기 운동	스포츠 경기 과학 수상 운동 빙상 · 설상 운동	체육과 진로 탐구 개인 · 대인 운동 표현 · 창작 운동	육상 운동 단체 운동 체력 운동	스포츠경기과 체육지도과

	전문 스포츠 경기 체력 전문 스포츠 경기 실습 스포츠 경영·행정	전문 스포츠 경기 초급 스포츠 교육 전공 실기	전문 스포츠 경기 중급 코칭론 전공 실습	전문 스포츠 경기 고급 건강 관리	
예술	음악 이론 합창 교양 실기	음악사·감상 합주	시창·청음 연주	음악 전공 실기 컴퓨터와 음악	음악과 미술과 무용과 문예창작과 연극영화과 사진과
	미술 이론 기초 조소 미술 감상과 비평	미술사 기초 디자인·공예	소묘 미술 전공 실기	기초 회화 영상 매체와 미술	
	무용의 이해 무용 전공 실기	기초 한국 무용 무용 음악	기초 발레 안무	기초 현대 무용 무용 감상과 비평	
	문학의 이해 시 창작	문장론 소설 창작	고전 문학의 감상과 비평 희곡 창작	현대 문학의 감상과 비평 매체와 문학	
	연극의 이해 연극 감상과 비평 영화 제작 실습	무대 기술 영화의 이해 영화 감상과 비평	연기 영화 기술	연극 제작 실습 영화 창작과 표현	
	사진의 이해 사진 편집	기초 촬영 디지털 사진 촬영	중급 촬영 디지털 사진 표현 기법	암실 실기 사진 감상과 비평	
외국어	심화 영어 영어 독해 영어 문법	영어 청해 영어 작문	영어 회화 Ⅰ 영어권 문화 Ⅰ	영어 회화 Ⅱ 영어권 문화 Ⅱ	영어과 독일어과 프랑스어과 스페인어과 중국어과 일본어과 러시아어과 아랍어과
	기초 독일어 독일어 독해 독일어 문법	독일어 청해 독일어 작문	독일어 회화 Ⅰ 독일어권 문화 Ⅰ	독일어 회화 Ⅱ 독일어권 문화 Ⅱ	
	기초 프랑스어 프랑스어 독해 프랑스어 문법	프랑스어 청해 프랑스어 작문	프랑스어 회화 Ⅰ 프랑스어권 문화 Ⅰ	프랑스어 회화 Ⅱ 프랑스어권 문화 Ⅱ	
	기초 스페인어 스페인어 독해 스페인어 문법	스페인어 청해 스페인어 작문	스페인어 회화 Ⅰ 스페인어권 문화 Ⅰ	스페인어 회화 Ⅱ 스페인어권 문화 Ⅱ	
	기초 중국어 중국어 독해 중국어 문법	중국어 청해 중국어 작문	중국어 회화 Ⅰ 중국 문화 Ⅰ	중국어 회화 Ⅱ 중국 문화 Ⅱ	
	기초 일본어 일본어 독해 일본어 문법	일본어 청해 일본어 작문	일본어 회화 Ⅰ 일본 문화 Ⅰ	일본어 회화 Ⅱ 일본 문화 Ⅱ	
	기초 러시아어 러시아어 독해 러시아어 문법	러시아어 청해 러시아어 작문	러시아어 회화 Ⅰ 러시아 문화 Ⅰ	러시아어 회화 Ⅱ 러시아 문화 Ⅱ	
	기초 아랍어 아랍어 독해 아랍어 문법	아랍어 청해 아랍어 작문	아랍어 회화 Ⅰ 아랍 문화 Ⅰ	아랍어 회화 Ⅱ 아랍 문화 Ⅱ	
국제	영어 강독 중국어 강독 국제 정치 Ⅰ 세계 문제 국제법 한국의 현대 사회 예능 실습	독일어 강독 일본어 강독 국제 정치 Ⅱ 비교 문화 Ⅰ 지역 이해 한국어	프랑스어 강독 러시아어 강독 국제 경제 Ⅰ 비교 문화 Ⅱ 인류의 미래 사회 과제 연구 Ⅰ	스페인어 강독 아랍어 강독 국제 경제 Ⅱ 정보 과학 한국의 전통 문화 과제 연구 Ⅱ	

① 전문 교육을 주로 하는 고등학교에서는 【표 3】에서 필요한 전문 과목을 80단위 이상

이수한다.

② 전문 교육을 주로 하는 고등학교에서는 다음 과목을 필수로 이수한다.

㉮ 농생명 산업 계열 : 농업 이해, 농업 기초 기술, 농업 정보 관리

㉯ 공업 계열 : 공업 입문, 기초 제도, 정보 기술 기초

㉰ 상업 정보 계열 : 상업 경제, 회계 원리, 컴퓨터 일반

㉱ 수산·해운 계열 : 해양 일반, 수산·해운 정보 처리, 수산 일반 (수산 계열), 해사 일반 (해운 계열)

㉲ 가사·실업 계열 : 인간 발달, 컴퓨터 일반

㉳ 체육, 외국어, 국제계열은 시·도교육감이 정한 지침에 따르되, 과학, 예술 계열은 필수 이수과목을 별도로 정하지 않는다.

다.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중점

(1) 공통 지침

㈎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총 이수 단위는 204단위이며 교과(군) 180단위, 창의적 체험활동 24단위로 나누어 편성한다.

㈏ 교과의 이수 시기와 단위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학생의 학기당 이수 과목 수를 8개 이내로 편성하도록 한다.

㈑ 선택 과목 중에서 위계성을 갖는 과목의 경우 계열적 학습이 되도록 편성한다. 단, 학교의 실정 및 학생의 요구, 과목의 성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선택 과목은 학교의 실정과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편성하되, 학교는 필요에 따라 이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과목 외에 새로운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새로운 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도 교육청의 교육

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의거하여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일정 규모 이상의 학생이 이 교육과정의 편제에 있는 특정 선택 과목의 개설을 요청할 경우, 학교는 이를 개설해야 한다.

㈆ 학교에서 개설하지 않은 선택 과목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 그 과목을 개설한 다른 학교에서의 이수를 인정하도록 한다.

㈇ 학교 및 학생의 필요에 따라 지역 사회의 학습장에서 행하는 학습을 이수 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시·도 교육청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 학교는 필요에 따라 대학과목 선이수제의 과목을 개설할 수 있고,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교육과정과 과목을 선택 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 교육청의 지침에 따른다.

㈉ 학교는 필요에 따라 교과의 총 이수 단위를 증배 운영할 수 있다. 단, 전문교육을 주로 하는 학교는 전문 교과에 한하여 증배 운영할 수 있다.

㈊ 학교는 학생이 3년간 이수해야 할 학년별, 학기별 과목을 편성하여 안내해야 한다.

(2) 일반계 고등학교

㈎ 교과(군)의 이수 단위 180단위 중 필수 이수 단위는 116단위 이상으로 한다.

㈏ 학생의 진로 과정을 고려하여 교과(군)별 최소 필수 이수 단위 수로 편성할 수 있으나, 교과 영역별로 제시된 단위 수를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체육, 음악, 미술 등의 과정을 개설하거나 자율 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경우 교과(군) 최소 이수 단위인 72단위로 편성·운

영할 수 있다.

㈑ 학교는 학생의 요구 및 흥미, 적성 등을 고려하여 진로를 적절히 안내할 수 있는 진로 집중 과정을 편성·운영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학교는 이 교육과정에 제시하는 '학교자율과정'에서 진로 집중 과정과 관련된 과목의 심화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편성·운영한다.

㈒ 과학, 수학, 사회, 영어, 예술, 체육 등 교과를 중심으로 중점 학교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교자율과정의 50% 이상을 관련 교과목으로 편성할 수 있다.

㈓ 체육, 음악, 미술 등의 과정을 개설하는 학교의 경우, 필요에 따라 지역 내 중점 학교 및 지역 사회 학습 장 등을 활용할 수 있다.

㈔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직업에 관한 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세부 지침은 시·도교육청에서 정한다.

㈕ 학교에서 제2외국어 과목을 개설할 경우, 2개 이상의 과목을 동시에 개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3) 전문교육을 주로 하는 고등학교

㈎ 교과(군)의 이수 단위 180단위 중 보통 교과 필수 이수 단위는 72단위 이상으로 편성 하며, 전문 교과의 과목은 80단위 이상 편성한다.

㈏ 전문 교과의 각 과목에 대한 이수 단위는 시·도 교육감이 정하되, 외국어와 국제에 관한 교과의 각 과목별 이수 단위는 5단위를 기본으로 하되, 3단위 범위 내에서 증감 편성할 수 있다.

㈐ 전문 교과의 기초가 되는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할 경우, 이를 해당 보통 교과의 이수로 간주할 수 있다.

㈑ 내용이 유사하거나 관련되는 보통 교과의 과목과 전문 교과의 과목은 교체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농생명산업, 공업, 상업정보, 수산·해운, 가사·실업 계열의 고등학교는 다음과 같이 편성·운영 할 수 있다.

① 전문 교과는 필요한 경우 다른 계열의 전문 과목을 선택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② 학과별 필수 과목은 필요한 경우 학교장이 정할 수 있으며, 2개 이상의 계열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학과가 속한 계열의 필수 과목을 이수한다.

③ 교육과정 내용과 관련이 있는 현장 실습을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양한 형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 교육청이 정한 지침에 따른다.

㈑ 국제계열 고등학교는 전공 관련 교과군과 외국어에 관한 교과의 과목에서 80단위 이상 이수하되, 전공 관련 교과군에서 50% 이상 편성한다.

㈒ 외국어 계열 고등학교에서는 전문 교과 총 이수 단위의 60% 이상을 전공 외국어로 하고, 전공 외국어 포함 2개 외국어로 전문 교과를 편성해야 한다.

㈓ 이 교육과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계열의 교육과정은 유사 계열의 교육과정에 준한다. 부득이 새로운 계열의 설치 및 그에 따른 교육과정을 편성할 경우와 학교의 실정에 따라 새로운 과목을 설정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도 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의거하여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4. 학교급별 공통 사항

가. 편성·운영

⑴ 학교는 이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학교 실정에 알맞은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한다.

⑵ 학교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계획을 바탕으로 학년 및 교과목별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다.

⑶ 학교 교육과정은 모든 교원이 전문성을 발휘하여 참여하는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을 거쳐 편성·운영한다.

⑷ 교육과정의 합리적 편성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교원, 교육과정(교과 교육) 전문가,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학교 교육과정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며, 이 위원회는 학교장의 교육과정 운영 및 의사 결정에 관한 자문의 역할을 담당한다.

⑸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함에 있어서는 교원의 조직, 학생의 실태, 학부모의 요구, 지역 사회의 실정 및 교육 시설·설비 등 교육 여건과 환경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한다.

⑹ 학교는 동학년 모임, 교과별 모임, 현장 연구, 자체 연수 등을 통해서 교사들의 교육 활동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⑺ 학교가 종교 과목을 개설할 때에는 종교 이외의 과목을 포함, 복수로 과목을 편성하여 학생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⑻ 각 교과의 기초적, 기본적 요소들이 체계적으로 학습되도록 계획하고, 이를 일관성 있고 지속성 있게 지도한다.

⑼ 각 교과목별 학습 목표를 모든 학생이 성취하도록 지도하고, 능력에 알맞은 성취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학습의 기회와 방법을 제공하며, 이를 위한 계획적인 배려와 지도를 하여 학습 결손이 누적되거나 학습 의욕이 저하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⑽ 공통 교육과정에서는 학생의 능력과 적성, 진로를 고려하여 교육 내용과 방법을 다양화 한다. 특히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교과에서는 수준별

수업을 권장한다.

⑾ 수준별 수업 운영을 위한 학습 집단은 학교의 여건이나 학생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편성할 수 있으며, 학습 결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특별 보충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특별 보충 수업의 편성·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⑿ 교과 수업은 탐구적인 활동을 통하여 개념 및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새로운 사태에 적용하는 기회를 많이 가지게 한다. 특히 여러 가지 자료를 활용한 정보 처리 능력을 가지도록 하는 데 힘쓴다.

⒀ 개별적인 학습 활동과 더불어 소집단 공동 학습 활동을 중시하여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많이 가지게 한다.

⒁ 각 교과 활동에서는 학습의 개별화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발표·토의 활동과 실험, 관찰, 조사, 실측, 수집, 노작, 견학 등의 직접 체험 활동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유의한다.

⒂ 학교는 창의적 체험활동이 실질적 체험학습이 되도록 지역사회의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연계·협력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⒃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 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계획적으로 활용한다.

⒄ 창의적 체험활동에 배당된 시간 수는 학생의 요구와 학교의 실정에 기초하여 융통성 있게 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⒅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의 내용 배열은 반드시 학습의 순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예시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에 지역의 특수성, 계절 및 학교의 실정과 학생의 요구, 교사의 필요에 따라 각 교과목의 학년별 목표에 대한 지도 내용의 순서와 비중, 방법 등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⒆ 심신 장애 학생을 위한 특수 학급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 학생의 장애 정도

와 능력을 고려하여 이 교육과정을 조정·운영하거나, 특수학교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⑳ 학습부진아, 장애를 가진 학생, 귀국 학생, 다문화 가정 자녀 등이 학교에서 충실한 학습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와 지원을 하도록 한다.

(21) 교육 활동 전반을 통하여 남녀의 역할에 관한 편견을 가지지 않도록 지도한다.

(22) 범교과 학습 주제는 관련되는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육 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다루어지도록 하고 지역 사회 및 가정과의 연계 지도에도 힘쓴다.

> 민주 시민 교육, 인성 교육, 환경 교육, 경제 교육, 에너지 교육, 근로 정신 함양 교육, 보건 교육, 안전 교육, 성 교육, 소비자 교육, 진로 교육, 통일 교육, 한국 정체성 교육, 국제 이해 교육, 해양 교육, 정보화 및 정보 윤리 교육, 청렴·반부패 교육, 물 보호 교육, 지속 가능 발전 교육, 양성 평등 교육, 장애인 이해 교육, 인권 교육, 안전·재해 대비 교육, 저출산·고령 사회 대비 교육, 여가 활용 교육, 호국·보훈 교육, 효도·경로·전통 윤리 교육, 아동·청소년 보호 교육, 다문화 교육, 문화 예술 교육, 농업·농촌 이해 교육, 지적 재산권 교육, 미디어 교육, 의사소통·토론 중심 교육, 논술 교육, 한국 문화사 교육, 한자 교육, 녹색 교육 등

(23) 학교에서는 교육과정에 제시되지 않은 사회 현안에 대해 학생들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계기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기 교육 지침에 따른다.

(24) 교과용 도서 이외의 교수·학습 자료는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개발한 것 등을 사용할 수 있다.

(25) 각 교과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과 교실제 운영을 활성화 한다.

(26) 실험·실습이나 실기 지도에 있어서는 시설 및 기계·기구, 약품 사용의

안전에 유의하도록 한다.

(27)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바탕으로 방과 후 학교 또는 방학 중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나. 평가 활동

(1) 학교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의 적합성, 타당성, 효과성을 자체 평가하여 문제점과 개선점을 추출하고, 다음 학년도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그 결과를 반영한다.

(2) 학교에서 실시하는 평가 활동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서 이루어지도록 한다.

(가) 평가는 모든 학생들이 교육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교육의 과정으로 실시한다.

(나) 학교는 다양한 평가 도구와 방법으로 성취도를 평가하여 학생의 목표 도달도를 확인하고, 수업의 질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

(다) 교과의 평가는 선택형 평가보다는, 서술형이나 논술형 평가 그리고 수행평가의 비중을 늘려서 교과별 특성에 적합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한다.

(라) 실험·실습의 평가는 교과목의 성격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세부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실시한다.

(마) 정의적, 기능적, 창의적인 면이 특히 중시되는 교과의 평가는 타당한 평정 기준과 척도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바) 학교와 교사는 학교에서 가르친 내용과 기능을 평가하도록 한다. 학생이 학교에서 배울 기회를 마련해 주지 않고, 학교 밖의 교육 수단을 통해서 익힐 수밖에 없는 내용과 기능은 평가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한 평가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내용과 특성을 감안하여 평가의 주안점을 학교에서 작성, 활용한다.

Ⅲ. 학교 교육과정 지원

1.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가. 국가 수준 지원 사항

이 교육과정의 원활한 편성·운영을 위하여 국가 수준에서는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지원한다.

⑴ 시·도 교육청의 교육과정 지원 활동과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활동이 상호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⑵ 이 교육과정의 질 관리를 위하여 국가 수준에서는 주기적으로 학업 성취도 평가, 학교와 교육 기관 평가,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평가를 실시한다.

㈎ 학업 성취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교과별, 학년(군)별 학생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는 교육과정의 적절성 확보와 그 개선에 활용한다.

㈏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교육청의 교육과정 지원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학교와 관련 교육청에 대한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지원 체제의 적절성과 실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한다.

⑶ 국가 수준에서는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정신을 구현한 평가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서 학교 현장에 제공해 주어야 한

다.

㈎ 교과별로 '평가 기준'을 개발, 보급하여 학교가 교과 교육과정의 목표에 부합되는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 교과별 평가 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평가 방법, 절차, 도구 등을 개발하여 학교에 제공한다.

나. 교육청 수준 지원 사항

이 교육과정의 원활한 편성·운영을 위하여 교육청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원한다.

⑴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에 관한 조사 연구와 자문 기능을 담당할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이 위원회에는 교원, 교육 행정가, 교육학 전문가, 교과 교육 전문가, 학부모, 지역 사회 인사, 산업체 인사 등이 참여할 수 있다.

⑵ 지역의 특수성, 교육의 실태, 학생·교원·주민의 요구와 필요 등을 반영하여 교육 중점을 설정하고,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작성한다.

⑶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개선을 위한 연구학교를 운영하고, 수업 개선을 위한 연구 교사를 두어 교과별 연구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⑷ 학년군, 교과군 도입을 통한 단위학교 교육과정 자율 편성과 창의적 체험활동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교육과정 컨설팅 등 지원 기구를 조직하여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한 각종 자료를 연구, 개발하여 보급한다.

⑸ 교원의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능력 향상과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한 지도 능력 제고를 위하여 각급 학교 교원에 대한 연수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⑹ 각급 학교가 새 학년도 시작에 앞서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계획을 세

울 수 있도록 교육과정 편성·운영 자료를 개발·보급하고, 교원의 전보를 적기에 시행한다.

⑺ 학교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을 위한 교육 시설, 설비, 자료 등의 정비 확충에 필요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한다.

⑻ 학교가 지역사회의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연계·협력해서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관내 학교가 활용 가능한 '지역 자원목록'을 작성하여 제공하는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⑼ 수준별 수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지원하며, 학습 결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특별 보충 수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한다.

⑽ 개별학교의 희망과 여건을 반영하여 지역내 학교간 개설할 집중과정을 조정하고, 그 편성·운영을 지원한다. 특히, 소수 학생이 지망하는 집중과정을 개설할 학교를 지정하고, 원활한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⑾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재능을 보이는 학생과 학습 장애가 있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 기회를 마련하고 지원한다.

⑿ 귀국자 및 다문화 가정 자녀의 교육 경험의 특성과 배경을 고려하여 이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한다.

⒀ 전·입학, 귀국 등에 따라 공통 교과를 이수하지 못한 학생들이 해당 교과를 이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마련해 주고, 학생들이 지역 사회의 공공성 있는 사회 교육 시설을 통해 이수한 과정을 인정해 주는 방안을 마련한다.

⒁ 지역 사회와 학교의 여건에 따라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학교에서 돌볼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하고, 이에 대해 교육청은 특별한 배려와 지원을 하도록 한다.

⒂ 교육과정에 제시되지 않은 교과목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교육

청은 관련 지침을 학교에 제시해 주고, 학교로 하여금 필요한 사전 절차를 밟도록 지원한다.

⑯ 복식 학급 운영 등 소규모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교원의 배치, 학생의 교육받을 기회의 확충 등에 필요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한다.

⑰ 학교 교육과정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학생의 배정, 교원의 순회 및 수급, 학교 간 시설과 설비의 공동 활용, 자료의 공동 개발 활용에 관하여 학교 간 및 인접 교육청 간의 협조 체제를 구축한다.

⑱ 학생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교과용 도서의 인정, 개발, 보급을 위해 노력한다.

⑲ 전문교육을 주로 하는 고등학교는 개설 전공과 유사한 산업체와 협력하여 특성화된 교육과정과 실습과목을 편성·운영할 수 있으며, 학생의 현장 실습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⑳ 학교에 대한 교육과정 운영 지원 실태와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효과적인 교육과정의 운영과 개선 및 질 관리에 필요한 적절한 지원을 한다.

(21)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한 질 관리 및 교육과정 편성·운영 체제의 적절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업 성취도 평가, 교육과정 편성·운영 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2. 특수한 학교에서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가. 초·중·고등학교에 준하는 학교의 교육과정은 이 교육과정에 따라서 편성·운영한다.

나. 국가가 설립 운영하는 학교의 교육과정은 해당 시·도 교육청의 편성·운

영 지침을 참고하여 학교장이 편성한다.

다. 공민학교, 고등 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근로 청소년을 위한 특별 학급 및 산업체 부설 학교, 기타 특수한 학교는 이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학교의 실정과 학생의 특성에 알맞은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시·도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운영한다.

라. 야간 수업을 하는 학교의 교육과정은 이 교육과정을 따르되, 다만 단위 수업 시간을 40분으로 단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마. 방송 통신 고등학교는 이 교육과정에 제시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따르되, 시·도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이 교육과정의 편제와 단위 배당 기준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편제와 단위 배당 기준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준하되, 162단위 이상 이수하도록 한다.

(2) 교육은 방송 통신에 의한 수업, 출석 수업 및 첨삭 지도의 방법에 의한 수업으로 한다.

(3) 학교 출석 수업 일수는 연간 20일 이상으로 한다.

바. 특성화 학교, 자율학교 등 법령에 의거하여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이 부여되는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설립 목적 및 특성에 따른 교육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권을 부여하고,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른다.

사. 교육과정의 연구를 위해 새로운 방식으로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고자 하는 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 교육과정의 기준과는 다르게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부록2> 중학교 교육과정 총론 신·구 비교

2007 개정 교육과정(구)	2009 개정 교육과정(신)
교육과정의 성격	<좌동>
이 교육과정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하여 고시한 것으로, 초·중등학교의 교육 목적과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며, 초·중등학교에서 편성, 운영하여야 할 학교 교육과정의 공통적,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이 교육과정의 성격은 다음과 같다.	<좌동>
가. 국가 수준의 공통성과 지역, 학교, 개인 수준의 다양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교육과정이다. 나. 학습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신장하기 위한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이다. 다. 교육청과 학교, 교원·학생·학부모가 함께 실현해 가는 교육과정이다. 라. 학교 교육 체제를 교육과정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한 교육과정이다. 마. 교육의 과정과 결과의 질적 수준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교육과정이다.	<좌동>
Ⅰ.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	<좌동>

2007 개정 교육과정(구)	2009 개정 교육과정(신)
1. 추구하는 인간상 우리나라의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 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 이념을 바탕으로, 이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은 다음과 같다.	<좌동>
가. 전인적 성장의 기반 위에 개성을 추구하는 사람	가. 전인적 성장의 기반 위에 개성의 발달과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
나. 기초 능력을 토대로 창의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	나. 기초 능력의 바탕 위에 새로운 발상과 도전으로 창의성을 발휘하는 사람
다. 폭넓은 교양을 바탕으로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	다. 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품격있는 삶을 영위하는 사람
라.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의 토대 위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	라. 세계와 소통하는 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의 정신으로 공동체 발전에 참여하는 사람
마. 민주 시민 의식을 기초로 공동체의 발전에 공헌하는 사람	<삭제>
2. 교육과정의 구성 방침	**2. 교육과정 구성의 방침**
이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을 구현하기 위한 구성 방침은 다음과 같다.	추구하는 인간상을 구현하기 위한 이 교육과정 구성의 방침은 다음과 같다.
가. 사회적 변화의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기본 능력을 길러 줄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한다.	가.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창의적인 인재를 기를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한다.

2007 개정 교육과정(구)	2009 개정 교육과정(신)
나.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과 선택 중심 교육과정 체제를 도입한다.	나. 이 교육과정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공통 교육과정과 고등 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선택 교육과정으로 편성한다.
다. 교육 내용의 양과 수준을 적정화하고, 심도 있는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경직성을 탈피하고, 학년 간 상호 연계와 협력을 통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유연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학년군을 설정한다.
라. 학생의 능력, 적성, 진로를 고려하여 교육 내용과 방법을 다양화한다.	라. 공통 교육과정의 교과는 교육 목적상의 근접성, 학문 탐구 대상 또는 방법상의 인접성, 생활양식에서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교과군으로 재분류한다.
마.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에 있어서 현장의 자율성을 확대한다.	마. 선택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의 기초영역 학습 강화와 진로 및 적성 등을 감안한 적정 학습이 가능하도록 4개의 교과 영역으로 구분하고, 필수이수단위를 제시한다.
바. 교육과정 평가 체제를 확립하여 교육에 대한 질 관리를 강화한다.	바. 학기당 이수 교과목 수 축소를 통한 학습 부담의 적정화와 의미 있는 학습활동이 전개 될 수 있도록 집중이수를 확대한다.
<신설>	사. 기존의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을 통합하여 배려와 나눔의 실천을 위한 '창의적 체험활동'을 신설한다.
<신설>	아. 학교 교육과정 평가, 교과 평가의 개선, 국가 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 실시 등을 통해 교육과정 질 관리 체제를 강화한다.
Ⅱ. 학교급별 교육 목표	**Ⅱ.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2007 개정 교육과정(구)	2009 개정 교육과정(신)
	1. 초등학교
(생략)	
	2. 중학교
1. 중학교 교육 목표	가. 중학교 교육목표
중학교 교육은 초등학교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학습과 일상 생활에 필요한 기본 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둔다.	중학교의 교육은 초등학교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학습과 일상 생활에 필요한 기본 능력을 배양하며, 다원적인 가치를 수용하고 존중하는 민주 시민의 자질 함양에 중점을 둔다.
가.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추구하고, 자기 발견의 기회를 가진다.	(1) 심신의 건강하고 조화로운 발달을 추구하며, 다양한 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익혀 적극적으로 진로를 탐색한다.
나. 학습과 생활에 필요한 기본 능력과 문제 해결력을 기르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경험을 가진다.	(2) 학습과 생활에 필요한 기초 능력과 문제 해결력을 바탕으로 창의적 사고력을 기른다.
다.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기능을 익혀 적극적으로 진로를 탐색하는 경험을 가진다.	(3)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 대한 경험을 토대로 다양한 문화와 가치에 대한 이해를 넓힌다.
라. 우리의 전통과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지니고, 이에 발전시키려는 태도를 가진다.	(4) 다양한 소통능력을 기르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태도를 갖춘다.

2007 개정 교육과정(구)	2009 개정 교육과정(신)
마. 자유 민주주의의 기본적 가치와 원리를 이해하고, 민주적인 생활 방식을 익힌다.	
Ⅲ. 편제와 시간(단위) 배당 기준	나. 편제와 시간 배당 기준
1. 편 제	⑴ 편제
나.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은 교과, 재량 활동, 특별 활동으로 편성한다.	㈎ 중학교 교육과정은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한다.
⑴ 교과는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실과(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외국어(영어)로 한다. 다만, 초등학교 1, 2학년의 교과는 국어, 수학,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및 우리들은 1학년으로 한다.	① 교과(군)는 국어, 사회(역사 포함)/도덕, 수학, 과학/기술・가정, 체육, 예술(음악/미술), 영어, 선택으로 한다. 선택은 한문, 정보, 환경, 생활 외국어(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보건, 진로와 직업 등 선택 과목으로 한다.
⑵ 재량 활동은 교과 재량 활동과 창의적 재량 활동으로 한다. ⑶ 특별 활동은 자치 활동, 적응 활동, 계발 활동, 봉사 활동, 행사 활동으로 한다.	②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으로 한다.
	⑵ 시간 배당 기준(별표 2 참고)
<신설>	다. 중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중점
<신설>	⑴ 학교는 학생들이 이수해야 할 3년간의 교과목을 학년별, 학기별로 편성하여 안내한다.
<신설>	⑵ 교과(군)의 이수 시기와 수업 시수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2007 개정 교육과정(구)	2009 개정 교육과정(신)
<신설>	(3) 학교의 특성, 학생·교사·학부모의 요구 및 필요에 따라 학교가 자율적으로 교과(군)별 수업 시수를 20% 범위 내에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4)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학생의 학기당 이수 교과목 수를 8개 이내로 편성하도록 한다.
<신설>	(5) 예술(음악/미술)은 음악과 미술 교과를 중심으로 편성·운영한다.
㈐ 선택 과목을 개설할 경우, 학교는 2개 이상의 과목을 동시에 개설함으로써 학생들의 선택권이 보장되도록 유의한다.	(6) 선택 과목을 개설할 경우, 학교는 2개 이상의 과목을 개설함으로써 학생들의 선택권이 보장되도록 한다.
㈑ 이 교육 과정에 예시된 과목 이외의 과목을 설치,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의 교육 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의거하여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7) 학교는 필요한 경우 새로운 선택 과목을 신설할 수 있다. 새로운 과목을 신설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도 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의거하여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전·편입학, 귀국 등에 따라 국민 공통 기본 교과를 이수하지 못한 학생이나, 각 고등학교가 개설하지 못하는 과목을 선택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해당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마련해 주고, 학생들이 지역 사회의 공공성 있는 사회 교육 시설을 통해 이수한 과정을 인정해 주는 방안을 마련한다.	(8) 학교는 학생의 직업 및 진로에 대한 탐색과 선택을 돕기 위해 진로 교육을 강화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한다.

2007 개정 교육과정(구)	2009 개정 교육과정(신)
<신설>	(9) 전입 학생이 특정 교과목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교육청과 학교에서는 '보충 학습 과정' 등을 통해 학습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고등학교
(생략)	
	4. 학교급별 공통 사항
	가. 편성·운영
㈎ 학교는 이 교육과정과 시·도 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지역 교육청의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장학 자료를 바탕으로, 학교 실정에 알맞은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한다.	(1) 학교는 이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학교 실정에 알맞은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한다.
㈐ 학교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계획을 바탕으로 학년, 학급, 교과목별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다.	(2) 학교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계획을 바탕으로 학년 및 교과목별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다.
㈎ 학교 교육과정은 모든 교원이 전문성을 발휘하여 참여하는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을 거쳐 편성, 운영한다.	(3) 학교 교육과정은 모든 교원이 전문성을 발휘하여 참여하는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을 거쳐 편성·운영한다.
㈏ 교육과정의 합리적 편성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교원, 교육과정(교과 교육) 전문가,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학교 교육과정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며, 이 위원회는 학교장의 교육과정 운영 및 의사 결정에 관한 자문의 역할을 담당한다.	(4) 교육과정의 합리적 편성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교원, 교육과정(교과 교육) 전문가,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학교 교육과정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며, 이 위원회는 학교장의 교육과정 운영 및 의사 결정에 관한 자문의 역할을 담당한다.

2007 개정 교육과정(구)	2009 개정 교육과정(신)
㈑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함에 있어서는 교원의 조직, 학생의 실태, 학부모의 요구, 지역 사회의 실정 및 교육 시설·설비 등 교육 여건과 환경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한다.	(5)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함에 있어서는 교원의 조직, 학생의 실태, 학부모의 요구, 지역 사회의 실정 및 교육 시설·설비 등 교육 여건과 환경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한다.
㈒ 학교는 동학년 모임, 교과별 모임, 현장 연구, 자체 연수 등을 통해서 교사들의 교육 활동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6) 학교는 동학년 모임, 교과별 모임, 현장 연구, 자체 연수 등을 통해서 교사들의 교육 활동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⑧ 학교가 종교 과목을 개설할 때에는 종교 이외의 과목을 포함, 복수로 과목을 편성하여 학생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7) 학교가 종교 과목을 개설할 때에는 종교 이외의 과목을 포함, 복수로 과목을 편성하여 학생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각 교과의 기초적, 기본적 요소들이 체계적으로 학습되도록 계획하고, 이를 일관성 있고 지속성 있게 지도한다.	(8) 각 교과의 기초적, 기본적 요소들이 체계적으로 학습되도록 계획하고, 이를 일관성 있고 지속성 있게 지도한다.
② 각 교과목별 학습 목표를 모든 학생이 성취하도록 지도하고, 능력에 알맞은 성취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학습의 기회와 방법을 제공하며, 이를 위한 계획적인 배려와 지도를 하여 학습 결손이 누적되거나 학습 의욕이 저하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9) 각 교과목별 학습 목표를 모든 학생이 성취하도록 지도하고, 능력에 알맞은 성취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학습의 기회와 방법을 제공하며, 이를 위한 계획적인 배려와 지도를 하여 학습 결손이 누적되거나 학습 의욕이 저하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2)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에서는 학생의 능력과 적성, 진로를 고려하여 교육 내용과 방법을 다양화 한다. 특히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교과에서는 수준별 수업을 권장한다.(2006. 8. 29,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6-75호)	(10) 공통 교육과정에서는 학생의 능력과 적성, 진로를 고려하여 교육 내용과 방법을 다양화 한다. 특히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교과에서는 수준별 수업을 권장한다.

2007 개정 교육과정(구)	2009 개정 교육과정(신)
② 수준별 수업 운영을 위한 학습 집단은 학교의 여건이나 학생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편성할 수 있다.	⑾ 수준별 수업 운영을 위한 학습 집단은 학교의 여건이나 학생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편성할 수 있으며, 학습 결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특별 보충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특별 보충 수업의 편성·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② 수준별 수업을 적용할 경우, 학습 결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특별 보충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특별 보충 수업의 편성·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2006. 8. 29,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6-75호)	
③ 교과 수업은 탐구적인 활동을 통하여 개념 및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새로운 사태에 적용하는 기회를 많이 가지게 한다. 특히 여러 가지 자료를 활용한 정보 처리 능력을 가지도록 하는 데 힘쓴다.	⑿ 교과 수업은 탐구적인 활동을 통하여 개념 및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새로운 사태에 적용하는 기회를 많이 가지게 한다. 특히 여러 가지 자료를 활용한 정보 처리 능력을 가지도록 하는 데 힘쓴다.
④ 개별적인 학습 활동과 더불어 소집단 공동 학습 활동을 중시하여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많이 가지게 한다.	⒀ 개별적인 학습 활동과 더불어 소집단 공동 학습 활동을 중시하여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많이 가지게 한다.
⑤ 각 교과 활동에서는 학습의 개별화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발표·토의 활동과 실험, 관찰, 조사, 실측, 수집, 노작, 견학 등의 직접 체험 활동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유의한다.	⒁ 각 교과 활동에서는 학습의 개별화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발표·토의 활동과 실험, 관찰, 조사, 실측, 수집, 노작, 견학 등의 직접 체험 활동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유의한다.
<신설>	⒂ 학교는 창의적 체험활동이 실질적 체험학습이 되도록 지역사회의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연계·협력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2007 개정 교육과정(구)	2009 개정 교육과정(신)
⑦ 교과와 재량 활동, 특별 활동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 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계획적으로 활용한다.	⑯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 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계획적으로 활용한다.
③ 지역 및 학교 실정과 활동 내용의 특성에 따라 집중 연속적인 이수를 할 수 있으며, 다양한 방법으로 융통성 있게 운영하도록 한다.	⑰ 창의적 체험활동에 배당된 시간 수는 학생의 요구와 학교의 실정에 기초하여 융통성 있게 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 교과와 특별 활동의 내용 배열은 반드시 학습의 순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예시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에 지역의 특수성, 계절 및 학교의 실정과 학생의 요구, 교사의 필요에 따라 각 교과목의 학년별 목표에 대한 지도 내용의 순서와 비중, 방법 등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⑱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의 내용 배열은 반드시 학습의 순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예시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에 지역의 특수성, 계절 및 학교의 실정과 학생의 요구, 교사의 필요에 따라 각 교과목의 학년별 목표에 대한 지도 내용의 순서와 비중, 방법 등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심신 장애 학생을 위한 특수 학급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 학생의 장애 정도와 능력을 고려하여 이 교육과정을 조정, 운영하거나, 특수학교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⑲ 심신 장애 학생을 위한 특수 학급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 학생의 장애 정도와 능력을 고려하여 이 교육과정을 조정·운영하거나, 특수학교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 특수아, 귀국자 및 다문화 가정의 자녀를 위한 교육 기회를 마련하여 운영한다.	⑳ 학습부진아, 장애를 가진 학생, 귀국 학생, 다문화 가정 자녀 등이 학교에서 충실한 학습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와 지원을 하도록 한다.
⑨ 교육 활동 전반을 통하여 남녀의 역할에 관한 편견을 가지지 않도록 지도한다.	(21) 교육 활동 전반을 통하여 남녀의 역할에 관한 편견을 가지지 않도록 지도한다.

2007 개정 교육과정(구)	2009 개정 교육과정(신)
㈀ 민주 시민 교육, 인성 교육, …, 의사소통·토론 중심 교육, 논술 교육 등 범교과적 학습 주제는 관련되는 교과, 재량 활동, 특별 활동 등 학교 교육 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다루어지도록 하고, 지역 사회 및 가정과의 연계 지도에도 힘쓴다.	(22) 범교과 학습 주제는 관련되는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육 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다루어지도록 하고 지역 사회 및 가정과의 연계 지도에도 힘쓴다. 민주 시민 교육, 인성 교육, …, 한국 정체성 교육, …,의사소통·토론 중심 교육, 논술 교육, 한국 문화사 교육, 한자 교육, 녹색 교육 등
㈁ 학교에서는 교육과정에 제시되지 않은 사회 현안에 대해 학생들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계기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기 교육 지침에 따른다.	(23) 학교에서는 교육과정에 제시되지 않은 사회 현안에 대해 학생들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계기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기 교육 지침에 따른다.
① 교과용 도서 이외의 수준별 교수·학습 자료는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개발한 것을 사용할 수 있다.	(24) 교과용 도서 이외의 교수·학습 자료는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개발한 것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5) 각 교과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과 교실제 운영을 활성화 한다.
⑧ 실험·실습이나 실기 지도에 있어서는 실습 시설 및 기계·기구 사용시 안전에 특히 유의하도록 한다.	(26) 실험·실습이나 실기 지도에 있어서는 시설 및 기계·기구, 약품 사용의 안전에 유의하도록 한다.
㈂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바탕으로 방과 후 학교 또는 방학 중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27)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바탕으로 방과 후 학교 또는 방학 중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2007 개정 교육과정(구)	2009 개정 교육과정(신)
<신설>	나. 평가 활동
㈐ 학교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의 적합성, 타당성, 효과성을 자체 평가하여 문제점과 개선점을 추출하고, 다음 학년도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그 결과를 반영한다.	(1) 학교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의 적합성, 타당성, 효과성을 자체 평가하여 문제점과 개선점을 추출하고, 다음 학년도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그 결과를 반영한다.
라. 학교에서 실시하는 평가 활동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2) 학교에서 실시하는 평가 활동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서 이루어지도록 한다.
(1) 평가는 모든 학생들이 교육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교육의 과정으로 실시한다.	㈎ 평가는 모든 학생들이 교육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교육의 과정으로 실시한다.
(2) 학교는 다양한 평가 도구와 방법으로 성취도를 평가하여 학생의 목표 도달도를 확인하고, 수업의 질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	㈏ 학교는 다양한 평가 도구와 방법으로 성취도를 평가하여 학생의 목표 도달도를 확인하고, 수업의 질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
(3) 교과의 평가는 선다형 일변도의 지필 검사를 지양하고, 서술형 주관식 평가와 표현 및 태도의 관찰 평가가 조화롭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 교과의 평가는 선택형 평가보다는, 서술형이나 논술형 평가 그리고 수행 평가의 비중을 늘려서 교과별 특성에 적합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한다.
(4) 실험·실습의 평가는 교과목의 성격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세부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실시한다.	㈑ 실험·실습의 평가는 교과목의 성격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세부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실시한다.
(5) 정의적, 기능적, 창의적인 면이 특히 중시되는 교과의 평가는 타당한 평정 기준과 척도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 정의적, 기능적, 창의적인 면이 특히 중시되는 교과의 평가는 타당한 평정 기준과 척도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2007 개정 교육과정(구)	2009 개정 교육과정(신)
(6) 학교와 교사는 학교에서 가르친 내용과 기능을 평가하도록 유의한다. 학생이 학교에서 배울 기회를 마련해 주지 않고, 학교 밖의 교육 수단을 통해서 익힐 수밖에 없는 내용과 기능은 평가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 학교와 교사는 학교에서 가르친 내용과 기능을 평가하도록 한다. 학생이 학교에서 배울 기회를 마련해 주지 않고, 학교 밖의 교육 수단을 통해서 익힐 수밖에 없는 내용과 기능은 평가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7) 초등학교의 교과 활동 평가는 학생의 활동 상황과 특징, 진보의 정도 등을 파악하여, 그 결과를 서술적으로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삭제>
(8) 재량 활동에 대한 평가는 교과 재량 활동과 창의적 재량 활동의 특성과 학생의 특성을 감안하여 평가의 주안점을 학교에서 작성, 활용한다. 다만, 창의적 재량 활동의 평가는 그 결과를 문장으로 기록하도록 한다.	㈑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한 평가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내용과 특성을 감안하여 평가의 주안점을 학교에서 작성, 활용한다.
	Ⅲ. 학교 교육과정 지원 등
	1.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가. 국가 수준 지원 사항
<신설>	이 교육과정의 원활한 편성·운영을 위하여 국가 수준에서는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지원한다.
<신설>	(1) 시·도 교육청의 교육과정 지원 활동과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활동이 상호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2007 개정 교육과정(구)	2009 개정 교육과정(신)
가. 이 교육과정 질 관리를 위하여 국가 수준에서는 주기적으로 학생 학력 평가, 학교와 교육 기관 평가,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평가를 실시한다.	(2) 이 교육과정의 질 관리를 위하여 국가 수준에서는 주기적으로 학업 성취도 평가, 학교와 교육 기관 평가,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평가를 실시한다.
(1) 학업 성취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교과별, 학년별 학생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는 교육과정의 적절성 확보와 그 개선에 활용한다.	㈎ 학업 성취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교과별, 학년(군)별 학생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는 교육과정의 적절성 확보와 그 개선에 활용한다.
(2)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교육청의 교육과정 지원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학교와 관련 교육청에 대한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교육청의 교육과정 지원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학교와 관련 교육청에 대한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3)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지원 체제의 적절성과 실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한다. 이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첫 해부터 다양한 절차를 거쳐 해당 학교, 학년, 학생에게 적절한지를 조사하여 평가하되, 교육과정 평가 연구는 교육과정의 편제, 시간(단위) 배당, 편성·운영 지침의 적절성과 그 적용 효과에 중점을 둔다.	㈐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지원 체제의 적절성과 실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한다.
나. 국가 수준에서는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정신을 구현한 평가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서 학교 현장에 제공해 주어야 한다.	(3) 국가 수준에서는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정신을 구현한 평가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서 학교 현장에 제공해 주어야 한다.
(1) 교과별로 '절대 평가 기준'을 개발, 보급하여 학교가 교과 교육과정의 목표에 부합되는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 교과별로 '평가 기준'을 개발, 보급하여 학교가 교과 교육과정의 목표에 부합되는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2007 개정 교육과정(구)	2009 개정 교육과정(신)
(2) 국가 수준의 평가 문항 은행을 구축하여 에듀넷 등 통신망을 통해 학교가 평가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삭제>
(3) 교과별 평가 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평가 방법, 절차, 도구 등을 개발하여 학교에 제공한다.	㈏ 교과별 평가 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평가 방법, 절차, 도구 등을 개발하여 학교에 제공한다.
	나. 교육청 수준 지원 사항
<신설>	이 교육과정의 원활한 편성·운영을 위하여 교육청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원한다.
㈏ 시·도 교육청은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에 관한 조사 연구와 자문 기능을 담당할 교육과정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이 위원회에는 교원, 교육 행정가, 교육과정 전문가, 교과 교육 전문가, 학부모, 지역 사회 인사, 산업체 인사 등이 참여할 수 있다.	(1)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에 관한 조사 연구와 자문 기능을 담당할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이 위원회에는 교원, 교육 행정가, 교육학 전문가, 교과 교육 전문가, 학부모, 지역 사회 인사, 산업체 인사 등이 참여할 수 있다.
㈐ 시·도 교육청은 지역의 특수성, 교육의 실태, 학생·교원·주민의 요구와 필요 등을 반영하여 시·도의 교육 중점을 설정하고,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작성한다.	(2) 지역의 특수성, 교육의 실태, 학생·교원·주민의 요구와 필요 등을 반영하여 교육 중점을 설정하고,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작성한다.
㈑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개선을 위한 연구·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수업 개선을 위한 연구 교사를 두어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3)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개선을 위한 연구학교를 운영하고, 수업 개선을 위한 연구 교사를 두어 교과별 연구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2007 개정 교육과정(구)	2009 개정 교육과정(신)
<신설>	(4) 학년군, 교과군 도입을 통한 단위학교 교육과정 자율 편성과 창의적 체험활동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교육과정 컨설팅 등 지원 기구를 조직하여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한 각종 자료를 연구, 개발하여 보급한다.
㈏ 교원의 교과, 재량 활동, 특별 활동에 대한 지도 능력 향상을 위하여 각급 학교 교원에 대한 연수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5) 교원의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능력 향상과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한 지도 능력 제고를 위하여 각급 학교 교원에 대한 연수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 시·도 교육청은 각급 학교가 새 학년도 시작에 앞서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교육과정 편성·운영 자료를 개발, 보급하고, 교원의 전보를 적기에 시행한다.	(6) 각급 학교가 새 학년도 시작에 앞서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교육과정 편성·운영 자료를 개발·보급하고, 교원의 전보를 적기에 시행한다.
㈑ 교과, 재량 활동, 특별 활동 운영을 위한 각종 교수·학습 자료를 연구, 개발하여 보급하고, 교육 시설, 설비, 자료 등의 정비 확충에 필요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한다.	(7) 학교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을 위한 교육 시설, 설비, 자료 등의 정비 확충에 필요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한다.
<신설>	(8) 학교가 지역사회의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연계·협력해서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관내 학교가 활용 가능한 '지역 자원목록'을 작성하여 제공하는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2007 개정 교육과정(구)	2009 개정 교육과정(신)
㈏ 각 학교가 수준별 수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한다. (2006. 8. 29,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6-75호)	(9) 수준별 수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지원하며, 학습 결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특별 보충 수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한다.
<신설>	(10) 개별학교의 희망과 여건을 반영하여 지역 내 학교간 개설할 집중과정을 조정하고, 그 편성·운영을 지원한다. 특히, 소수 학생이 지망하는 집중과정을 개설할 학교를 지정하고, 원활한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재능을 보이는 학생과 학습 장애가 있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 기회를 마련하고 지원한다.	(11)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재능을 보이는 학생과 학습 장애가 있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 기회를 마련하고 지원한다.
㈑ 귀국자 자녀의 교육 경험의 특성과 배경을 고려하고, 이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한다.	(12) 귀국자 및 다문화 가정 자녀의 교육 경험의 특성과 배경을 고려하여 이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한다.
㈒ 전·편입학, 귀국 등에 따라 국민 공통 기본 교과를 이수하지 못한 학생이나, 각 고등학교가 개설하지 못하는 과목을 선택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해당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마련해 주고, 학생들이 지역 사회의 공공성 있는 사회 교육 시설을 통해 이수한 과정을 인정해 주는 방안을 마련한다.	(13) 전·입학, 귀국 등에 따라 공통 교과를 이수하지 못한 학생들이 해당 교과를 이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마련해 주고, 학생들이 지역 사회의 공공성 있는 사회 교육 시설을 통해 이수한 과정을 인정해 주는 방안을 마련한다.
<신설>	(14) 지역 사회와 학교의 여건에 따라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학교에서 돌볼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하고, 이에 대해 교육청은 특별한 배려와 지원을 하도록 한다.

2007 개정 교육과정(구)	2009 개정 교육과정(신)
㈐ 중등학교에서 이 교육과정에 제시된 선택 과목 이외의 과목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이를 위한 지침을 학교에 제시해 주고, 학교로 하여금 필요한 사전 절차를 밟도록 지원한다.	⑸ 교육과정에 제시되지 않은 교과목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교육청은 관련 지침을 학교에 제시해 주고, 학교로 하여금 필요한 사전 절차를 밟도록 지원한다.
㈑ 소규모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교원의 배치, 학생의 교육받을 기회의 확충에 필요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한다.	⑹ 복식 학급 운영 등 소규모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교원의 배치, 학생의 교육받을 기회의 확충 등에 필요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한다.
㈒ 학교 교육과정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학생의 배정, 교원의 원활한 교류, 학교 간 시설과 설비의 공동 활용, 자료의 공동 개발 활용에 관하여 학교 간 및 인접 교육청 간의 협조 체제를 구축한다.	⑺ 학교 교육과정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학생의 배정, 교원의 순회 및 수급, 학교 간 시설과 설비의 공동 활용, 자료의 공동 개발 활용에 관하여 학교 간 및 인접 교육청 간의 협조 체제를 구축한다.
<신설>	⑻ 학생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교과용 도서의 인정, 개발, 보급을 위해 노력한다.
<신설>	⑼ 전문교육을 주로 하는 고등학교는 개설 전공과 유사한 산업체와 협력하여 특성화된 교육과정과 실습과목을 편성·운영할 수 있으며, 학생의 현장 실습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 시·도 교육청은 관내의 지역 교육청에서의 교육과정 운영 지원 실태와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효과적인 교육과정의 운영과 개선 및 질 관리에 필요한 적절한 지원, 지도, 조언을 한다.	⑽ 학교에 대한 교육과정 운영 지원 실태와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효과적인 교육과정의 운영과 개선 및 질 관리에 필요한 적절한 지원을 한다.

2007 개정 교육과정(구)	2009 개정 교육과정(신)
다. 시·도 교육청에서는 관내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한 질 관리 및 지역 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체제의 적절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업 성취도 평가, 교육과정 편성·운영 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21)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한 질 관리 및 교육과정 편성·운영 체제의 적절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업 성취도 평가, 교육과정 편성·운영 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4. 특수한 학교에서의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2. 특수한 학교에서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가. 초·중·고등학교에 준하는 학교의 교육과정은 이 교육과정에 따라서 편성한다.	가. 초·중·고등학교에 준하는 학교의 교육과정은 이 교육과정에 따라서 편성·운영한다.
나. 교육과학기술부 직할 학교의 교육과정은 해당 시·도 교육청의 편성·운영 지침을 참고하여 학교장이 편성한다.	나. 국가가 설립 운영하는 학교의 교육과정은 해당 시·도 교육청의 편성·운영 지침을 참고하여 학교장이 편성한다.
다. 공민학교, 고등 공민학교, 고등 기술학교(3년제 과정), 근로 청소년을 위한 특별 학급 및 산업체 부설 학교, 기타 특수한 학교는 이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학교의 실정과 학생의 특성에 알맞은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시·도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운영한다.	다.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근로 청소년을 위한 특별 학급 및 산업체 부설 학교, 기타 특수한 학교는 이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학교의 실정과 학생의 특성에 알맞은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시·도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운영한다.
라. 야간 수업을 하는 학교의 교육과정은 이 교육과정을 따르되, 다만 단위 수업 시간을 40분으로 단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좌동>

2007 개정 교육과정(구)	2009 개정 교육과정(신)
마. 방송 통신 고등학교는 이 교육과정에 제시된 고등학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을 따르되, 시·도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이 교육과정의 편제와 단위 배당 기준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마. 방송 통신 고등학교는 이 교육과정에 제시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따르되, 시·도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이 교육과정의 편제와 단위 배당 기준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편제와 단위 배당 기준은 고등학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에 준하되, 170단위 이상 이수하도록 한다.	(1) 편제와 단위 배당 기준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준하되, 162단위 이상 이수하도록 한다.
(2) 교육은 방송 통신에 의한 수업, 출석 수업 및 첨삭 지도의 방법에 의한 수업으로 한다.	<좌동>
(3) 학교 출석 수업 일수는 연간 20일 이상으로 한다.	<좌동>
바. 특성화 학교, 자율 학교 등 법령에 의거하여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이 부여되는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설립 목적 및 특성에 따른 교육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권을 부여한다.	바. 특성화 학교, 자율학교 등 법령에 의거하여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이 부여되는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설립 목적 및 특성에 따른 교육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권을 부여하고,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른다.
(1) 국민 공통 기본 교과에 배당된 총 이수 시간의 범위 내에서 교과별 수업 시간수를 증감하여 학교 재량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단, 교과별 수업 시간 수를 연간 68시간미만으로는 감축 운영할 수 없다.	<삭제>

2007 개정 교육과정(구)	2009 개정 교육과정(신)
⑵ 고등학교의 경우 국민 공통 기본 교과 외의 선택 과목은 단위 학교별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삭제>
⑶ 특성화 학교의 경우 보통 교과 및 전문 교과의 총 이수 단위 수를 조정 운영할 수 있다.	<삭제>
⑷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 교육청의 지침에 따른다.	<삭제>
사. 교육과정의 연구를 위해 새로운 방식으로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고자 하는 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 교육과정의 기준과는 다르게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할 수 있다.	<좌동>

<부록3>

교육과정의 법적 근거

국가 교육과정과 지역 수준 교육과정, 그리고 학교 수준 교육과정과 관련되는 주요 법규는 다음과 같다.

① 대한민국헌법 〔1987. 10. 29. 헌법 10호〕
② 교육기본법 [2008. 3. 21. 법률 제8915호]
③ 초·중등교육법 [2008. 3. 21. 법률 제8917호]
④ 초·중등교육법시행령 [2009. 11. 5. 대통령령 제21809호]
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2008. 2. 29. 법률 8852호]
⑥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2009. 1. 30. 대통령령 제21282호]
⑦ 교육과정심의회규정 [2008. 2. 29. 대통령령 제20740호]
⑧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2010. 1. 6. 대통령령 제21978호]
⑨ 조기진급및조기졸업에관한규정 [1999. 7. 23. 대통령령 제16479호]
⑩ 학교보건법 [2007. 8. 3. 대통령령 제8578호]
⑪ 학교보건법시행령 [2008. 8. 4. 대통령령 제20949호]
⑫ 과학교육진흥법 [2008. 2. 29. 법률 제8852호]
⑬ 과학교육진흥법시행령 [2008. 2. 29. 대통령령 제20740호]
⑭ 영재교육진흥법 [2008. 2. 29. 법률 제8852호]
⑮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2008. 10. 14. 대통령령 제21081호]
⑯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2008. 2. 29. 법률 제8852호]
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2009. 12. 31. 대통령령 제21962호]
⑱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2008. 6. 12. 교육과학기술부령 제5호]
⑲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2009. 1. 30. 법률 제9401호]
⑳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2009. 2. 3. 대통령령 21291호]
㉑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 [2009. 5. 8. 법률 제9643호]

이 밖에도 교육과정 관련 법규에는 교육 조직, 시설·설비, 학사, 장학·학술 연구, 과학·기술·직업 교육, 사회·유아·특수·청소년·체육 교육 및 국경일·휴일·기념일,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 등과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예규 등이 있다.

가.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지며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등이 보장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 헌법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 교육기본법

제3조(학습권)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4조(교육의 기회 균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의 자주성 등) ① 국기 및 지방 자치 단체는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지역의 실정에 맞는 교육의 실시를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 운영의 자율성은 존중되며,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 주민 등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제6조(교육의 중립성) ①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에서는 특정한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헌법 제 31 조 제 1 항에 명시된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는 우리 교육의 이상이며, 국가 교육과정 기준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근거가 된다. 개인의 능력에 적합한 교육, 즉 개인차가 고려되는 교육은 시대에 따라 그 표

현 방식이나 강조점이 다소 달랐을 뿐 우리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추구되어 온 교육의 이상이다. 또, 교육이란 개인을 보다 유능한 인간으로 성장되게 하는 동시에, 개인의 교육적 경험과 교육의 질 등에 따라 결과적으로는 개인 간에 차이가 나게 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헌법에서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강조한 것은 국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소양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 필수의 교육'을 의미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국민 각자가 가지고 태어난 잠재 능력을 계발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의 질적 기회 균등'의 장을 국가가 마련해 주어야 함을 뜻한다.

최소의 필수 교육이 평등(equality)의 이념을 강조한다면, 개인의 능력에 따라 다양한 선택이 가능한 교육은 공평(equity)의 이념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교육 수요자의 요구가 다양하게 분출되는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기계적인 평등 논리보다는 학습자의 개인차를 인정하는 공평의 논리가 더 설득력이 있게 된다. 이와 같은 개인차를 반영하는 교육은 교육 공급자의 관점이 아니라 교육 수요자, 즉 학생의 입장에서 교육의 가치를 생각하는 것이며, 이는 학습자의 능력 수준 및 요구, 개인적 특성 등에 맞추어 가장 합당한 교육적 처치를 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헌법 제31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은 학생의 개성과 창의성을 존중하고, 전인적 발달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을 국가 관리 체제로 하는 공교육 제도에서 국가는 부모의 자녀 교육에 대한 권리를 위탁받아 법에 따라 학교 교육을 운영한다. 따라서 국가는 부모와 교사의 지배나 간섭, 또는 포기로부터 침해받을 수도 있는 학생의 교육 받을 권리를 보장하여 인간다운 삶의 기본 조건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것은 현대 복지 국가가 국민의 권리 보호자로서 책무를 가지고 있음을 뜻하는 것으로 국민 복지에 대한 국가의 기능이다.

특히, 보통 교육 단계의 성장 과정에 있는 학생은 아직 가치 판단력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특정한 정치적 선동이나 왜곡된 진리에 대해서는 비판 능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외부의 제 가치의 수용에 대한 가소성이 있다. 그러므로 초·중등의 보통 교육은 정치적, 종교적, 개인적 편견에 치우침이 없이 학생에게 보편적인 가치와 원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교육 내용의 기준을 국가

가 설정하고 운영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헌법상의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규정은 학생에 대한 보편적 가치와 진리를 배울 권리의 보장, 교육 내용의 전문적 수준 확보, 공교육에 대한 기준 설정과 운영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권리, 교육 내용의 중립성 보장의 준거가 된다.

또한, 교육 기본법 제3조에는 모든 국민이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을 받을 학습권이 제시되어 있고, 제4조에는 교육의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며, 제5조에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보장 및 학교 운영의 자율성 존중에 관한 사항이, 제6조에는 교육의 중립성이 각각 제시되어 있다. 이와 같은 규정들은 국가 교육과정 기준과 지역 지침,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지침이 되는 동시에 법적인 기준이 된다.

나. 교육 이념

우리나라의 교육 이념은 교육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다.

■ 교육기본법

제2조(교육이념)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 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오랜 세월에 걸쳐 홍익인간(弘益人間), 전인(全人)의 육성 등이 교육의 이상으로 자리잡아 왔으며,[14] 광복 이후 우리 교육에서 가장 포괄적인 수준의 교육 이념으로 제시된 것 또한 바로 홍익인간의 교육 이념이다.

교육 기본법 제2조에 제시된 교육 이념은 '인격 도야, 자주적 생활 능력, 민주

14) "널리 인간을 유익하게 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홍익인간'의 이념은 1949년에 제정된 교육법 제1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그 근원은 『삼국유사 』에 수록되어 있는 단군 신화로 거슬러 올라간다. '전인 교육'의 방향은 고종이 1895년에 작성한 교육입국 조서에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다. 홍익인간의 교육 이념은 광복 직후 결성된 조선교육심의회에서 제안하여 교육법에 명기하게 되었으며, 홍익인간의 정신은 이 민주주의의 이념과 상통한다는 점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시민의 자질'이라는 개인적 차원의 이념과, '민주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국가 차원의 이념, 그리고 '인류 공영의 이상 실현'이라는 세계적 차원의 이념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이러한 교육 이념은 우리나라의 교육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맥락에서 지속적으로 재음미되어 왔다. 즉, 홍익인간의 교육 이념은 그 적절성과 의미 있는 역할에 대한 논의를 거듭하면서 1949년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포괄적인 교육 이념으로 자리 잡고 있다.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에서는 이러한 교육 이념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교육의 방향을 더욱 분명하게 제시해 줄 수 있는 교육 이념을 찾게 되었고, 그것이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을 설정하는 바탕이 되었다.

교육 기본법에 제시된 교육 이념은 우리나라 교육 전반에 걸쳐 추구해 나가야 할 교육의 지표가 되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 추구하는 인간상과 각급 학교의 교육 목적 및 교육 목표 설정의 기저가 된다.

다. 중학교의 교육 목적

■ 초·중등교육법

제 41 조 : 중학교는 초등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 위에 중등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초·중등교육법 제 41 조에는 고등학교의 교육 목적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이에 따른 교육 중점과 교육 목표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고시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각급 학교의 교육 목적을 규정한 조항은 각각 해당 학교급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은 학년별 또는 단계 개념에 기초하여 일관성 있게 구성되었으나, 교육과정이 학교급별 단위로 운영되는 현실과 초·중등교육법에 학교급별 교육 목적이 명시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에도 학교급별로 교육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라. 교육과정 및 교과

■ 초·중등교육법

제 23 조(교육과정 등) ①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 안에서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③ 학교의 교과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43조(교과)

1. 초등학교 및 공민학교 :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실과, 체육, 음악, 미술 및 외국어(영어)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
2. 중학교 및 고등공민학교 :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및 외국어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

초·중등교육법 제 23 조 제 1 항은 각 학교는 소정의 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는 규정으로, 이는 단위 학교 수준에서 지역이나 학교의 실정에 알맞게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는 법적 근거가 된다.

또한, 동법 제 23조 제 2항의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다.”라는 규정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기준 설정을 위한 근거가 된다.

국가 수준에서 교육과정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① 교육의 질적 기회 균등 보장, ② 교육 내용의 일관성과 체계성 유지, ③ 공교육의 일정 수준 확보, ④ 교육의 중립성 확보, ⑤ 교육 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의 책임 등에서 그 필요성을 찾을 수 있다. 이와 같은 국가 수준의 기준은 관련 법규에 따라 법적인 구속력을 지니기 때문에 교육 내용에는 국가의 관여를 통한 전문적 지도 조언과 융통성 있는 운영이 동시에 요구된다.

그러나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은 전국 공통의 일반적 기준이기 때문에 각 시·도의 특수성이나 실정, 필요, 요구가 충분히 고려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정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범위 안에서 지역별로 그 지역의 특성과 역사, 전통, 자연, 산업, 사회, 문화 등과 지역의 교육 실태, 학생·교

원・주민의 요구와 필요 등을 반영하여 각 시・도의 교육 중점을 특색 있게 설정하고, '학교 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작성하여 그 지역의 학교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 시・도 교육감이 이러한 지역 수준의 지침을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초·중등교육법 제 23 조 제 2 항에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학교는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때 동법 제 23 조 제 2 항에 따른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기준과 지역 수준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따라야 한다.

동법 제23조 제3항은 학교의 교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3조에는 중학교의 교과로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및 외국어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를 제시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고시하는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명시되어 있다.

마. 수업, 학기, 수업일수 등

■ 초·중등교육법

제 24조(수업 등) : ① 학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 수업은 주간·전일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야간 수업, 계절 수업, 시간 수업 또는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등을 할 수 있다.
③ 학교의 학기, 수업 일수, 학급 편성 및 휴업일과 반의 편성·운영 기타 수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44 조 (학기) : 학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 1 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 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 2 학기는 제 1 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 45 조 (수업 일수) : 학교의 수업 일수는 학교의 장이 정한다.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유치부 제외) : 매 학년 220일 이상. 다만,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주 5일 수업의 실시,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자율 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 일수를 감축할 수 있으며, 수업 일수를 감축한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46 조 (학급 편성) : 학교의 학급 편성은 같은 학년, 같은 학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2개 학년 이상의 학생을 1 학급으로 편성할 수 있

다.

제 47 조(휴업일 등) : ① 법 제 24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휴업일은 학교의 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 운영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관공서의 공휴일 및 여름·겨울 휴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비상 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48 조(수업 운영 방법 등) : ②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 또는 학과 등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지정하는 방송 프로그램을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정보 통신 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⑤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 체험 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 체험 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 49 조(수업 시각) :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학교에서는 초·중등교육법 제 24 조의 규정에 따라 학사 일정이 운영된다. 학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하며(제1항), 수업은 주간・전일제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제2항).

학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어 운영하도록 시행령 제 44 조에 제시되어 있다. 매 학년도의 법정 수업 일수는 220일 이상으로 되어 있으나,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10의 범위에서 수업 일수를 감축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이 제시되어 있다(시행령 제45조).

시행령 제46조에는 학급 편성에 대해 규정되어 있는데, 학교의 학급 편성은 같은 학년, 같은 학과로 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교육과정 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2개 이상의 학생을 1학급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어촌이나 도서 벽지 등에는 소규모의 소인수 학교 또는 학급인 경우 2 개 학년 이상의 학생을 1 학급에 수용하는 복식 학급 운영의 근거가 되고 있다. 그 외에도 수준별 수업을 위한 학습 집단을 편성하는 경우,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무학년제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적용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창의적 체험 활동의 운영에서도 활동 주제의 특성, 동아리 활동 부서의 선택과 활동 내용에 따라서는 학년이나 학급의 벽을 탈피하여 무학년제에 의한 통합적인 운영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또한, 주제 탐구 활동, 소집단 공동 연구, 통합적인 범교과 학습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은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협력 수업을 선택적으

로 운영할 수도 있다.

학교의 휴업일은 관공서의 공휴일, 여름·겨울 및 학기말의 휴가, 개교기념일 등이며(시행령 제47조), 비상 재해 등 긴급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학교장은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15]

수업 운영 방법 등에 관하여는 시행령 제48조에 규정되어 있다. 수업에서는 학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교과서나 지도서 등과 같은 교과용 도서 외에 교육방송, 시청각 기자재, 각종 학습 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교과서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교육 정보망, 멀티미디어 등 컴퓨터를 활용한 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한다(시행령 제48조 제3항, 제4항). 국가 수준 교육과정 기준에서는 모든 학습 활동에서 학생의 직접적인 체험 학습을 강조하고 있다. 도시와 농·어촌의 교환, 교류 학습이나 학부모의 책임 아래 여행, 현장 견학, 답사 등과 같은 체험 학습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보고서를 제출하면, 이를 수업 일수로 인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교외 체험 학습에 필요한 사항을 학교 규칙으로 정해 두어야 한다(시행령 제48조 제5항).

또한, 하루의 수업을 시작하고 끝나는 시각은 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시행령 제49조).

바. 학년제,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수업 연한

15) 학교의 수업 일수를 결정할 경우에는 국경일에 관한 법률(법률 제7771호, 2005. 12. 29)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9674호, 2006. 9. 6.)에 의한다.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① 일요일, ②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③ 1월 1일, ④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⑤ (삭제), ⑥ 석가 탄신일(음력 4월 8일), ⑦ 5월 5일(어린이날), ⑧ 6월 6일(현충일), ⑨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⑩ 12월 25일(기독 탄신일), ⑩의 2. 공직 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⑪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 초·중등교육법

제 26조(학년제) : ① 학생의 진급 또는 졸업은 학년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교의 장은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학년제 외의 제도를 채택할 수 있다.

제27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등) ①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은 재능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제23조·제26조·제39조·제42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업연한의 단축에 의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상급학교 조기입학을 위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급학교로의 조기입학을 위한 자격을 부여받아 상급학교에 입학한 경우에는 조기졸업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능이 우수한 자의 선정과 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자격의 부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42조(수업년한) : 중학교의 수업년한은 3년으로 한다.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50 조(수료 및 졸업 등) :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 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 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② 학생의 각 학년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 일수는 제 45 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 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③ 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53조(조기진급·조기졸업 등) 법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기진급·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부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초·중등교육법 제26조에 의하면 학생의 진급이나 졸업은 원칙적으로 학년제에 의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학년제 외의 다른 제도를 채택할 수도 있도록 하였다.

또한, 법 제42조에는 중학교의 수업년한은 3년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재능이 우수한 학생에 대한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법 제27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초·중등교육법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는 교과목별 조기 이수 대상자의 선정, 교과목별 조기 이수자의 학력 인정, 교과목별 조기 이수 인정,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에 관한 제도의 시행 등과 관련된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시행령 제 50 조에서는 교육과정의 이수 정도에 따라 수료 또는 졸업을 학교의 장이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각 학년의 수료는 수업 일수의 2/3

이상 출석으로 하고 있으며, 졸업은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의미한다.

사. 교과용 도서의 사용

■ 초·중등교육법

제 29조(교과용도서의 사용) ① 학교에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한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교과용 도서의 범위·저작·검정·인정·발행·공급·선정 및 가격 사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55조(교과용도서의 사용) 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과용도서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초·중등교육법 제 29조는 학교에서는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교과용 도서는 교과서 및 지도서를 의미한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저작권을 가진 교과용 도서는 '국정 도서', 민간에서 저작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검정을 받은 교과용 도서는 '검정 도서', 국정·검정 도서가 없는 경우나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 혹은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교과용 도서는 '인정 도서'로 구분하고 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용 도서 개발의 기본 방향은 창의적인 '산 지식'을 제공하고 학습자 친화적인 미래형 교과서를 편찬하는 데 있다. 교과서는 기본적으로 교육과정 구현을 위한 다양한 자료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기준에 제시된 추구하는 인간상, 교육과정 구성의 방침, 고등학교 교육목표, 편제와 단위 배당 기준,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중점, 그리고 해당 교과의 성격, 목표, 내용, 방법, 평가의 기준을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학습자 중심의 다양하고 질 높은 교과서를 편찬하려면 국정, 검정, 인정 도서를 막론하고 교과서 편찬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학생의 창의력과 사고력, 탐구력을 중시하고 교수·학습 현장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또

한, 학생들의 자율 학습이나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유도할 수 있도록 쉽고, 재미있고, 친절하며, 활용하기에 편리한 교과서를 편찬하겠다는 기본적인 신념과 구성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다양한 편집, 새로운 디자인 기법을 도입하여 가독성을 보다 증진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21 세기 지식 정보화 사회의 학교 교육에서 사용되는 교과서의 모습은 서책 위주의 '교과용 도서'로서의 협소한 개념이 아니라 디지털 매체를 이용한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가 함께 활용되는 '교육과정 자료'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시행령 제55조에 의한 교과용도서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인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에 명시되어 있다.

아. 학교 운영 위원회의 기능

■ 초·중등교육법

제 32 조(기능) ① 국·공립학교에 두는 학교 운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 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 학습 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 기간 중의 교육 활동 및 수련 활동에 관한 사항
② 사립학교의 장은 제1항의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제 31조에는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공립 및 사립의 모든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 운영 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위원회에서는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또는 자문하도록 하고 있다.

단위 학교 수준의 교육 목표와 교육 중점, 교육 내용, 방법, 평가에 관한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권한은 해당 학교의 장에게 있지만, 학교의 교과·창의적 체험 활동을 어떻게 운영하고 지원하여야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일은 지역 사회와 학교, 교원, 학부모 모두가 함께 실현해 나가야 할 과제이다. 그러므로 학교 운영 위원회에서는 지역의 특수성과 학교의 실정에 알맞은 학교 교

육과정의 운영 방안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여, 학교장의 학교 경영을 지원해 줌으로써 교육의 다양성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또한, 학교 운영 위원회에서는 학교의 교육 여건을 고려하여 학부모, 명예 교사, 지역 사회 전문가 등 다양한 인적 자원과 학교 밖의 시설 자원을 잘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교육적인 경험의 폭을 넓혀주고, 교실 안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학교의 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데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 방법과 관련하여 학교 운영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수준별 수업을 권장하는 교과의 경우, 학습 결손을 보충하기 위한 '특별 보충 과정'의 운영과 지원 방안
② 교과, 창의적 체험 활동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 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계획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③ 교과용 도서 이외에 교육 정보망, 멀티미디어 등 컴퓨터를 활용한 교육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는 방안
④ 독서 교육을 활성화하고, 도서관(실)을 확충하는 방안
⑤ 체육 대회, 합창 대회, 축제 등의 교육적인 학교 행사의 운영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방안
⑥ 도시와 농·어촌 및 다른 나라 학교와의 교류 체험 학습, 현장 학습 등과 관련한 효율적인 지원 방안
⑦ 귀국자 자녀 특별 학급이나 심신 장애 학생을 위한 특수 학급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대책

학교 운영 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학교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을 모색하고자 할 때 특별히 유의해야 할 점은,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은 교원의 전문적이고도 고유한 업무이기 때문에 교원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이를 침해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 방법에 대해 심의를 할 때는 학교장의 교육과정 운영 및 의사 결정에 관한 자문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는 사항도 국가 수준의 기본 지침에 규정되어 있음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자. 장학 지도, 학교 규칙, 학생 자치 활동

■ 초·중등교육법

제 7 조(장학 지도)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에 대하여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 방법 등에 대한 장학 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제 8 조(학교 규칙) : ① 학교의 장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도·감독 기관의 인가를 받아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할 수 있다.

② 학칙의 기재 사항 및 제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17 조(학생 자치 활동) : 학생의 자치 활동은 권장·보호되며,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초·중등교육법 제 7 조에는 교육과학기술부 및 시·도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장학 지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시되어 있다. 장학은, '교육 활동의 개선을 위한 모든 지도·조언 활동'이라고 볼 수 있으며, 장학의 궁극적 목적은 '수업 개선(improvement of instruction)'에 있으므로 초·중등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학 지도는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에 초점이 있다고 하겠다. 장학 지도 실시 세부 계획 수립에 관하여서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8 조에 규정되어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 17 조에는 학생의 자치활동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다. 자치활동은 학교의 규정에 따라 교육적 활동을 조직하고, 학생들이 담당할 역할을 분담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학생 자치 활동뿐 아니라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전반을 위해서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초·중등교육법 제8조에 따라 학교 규칙을 제정하여야 하며, 학교 규칙의 기재 사항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9 조에 명시되어 있다.[16]

차. 평가 및 학교생활 기록

16) 학교 규칙의 기재 사항은 ① 수업 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② 학급 편제 및 학생 정원, ③ 교과·수업일수 및 고사와 과정 수료의 인정, ④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휴학·퇴학·수료 및 졸업, ⑤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⑥ 수업료·입학금 및 기타의 비용 징수, ⑦ 학생 포상 및 학생 징계, ⑧ 학생 자치 활동의 조직 및 운영, ⑨ 학칙 개정 절차, ⑩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등이다.

■ 초·중등교육법

제 9 조(평가) : ①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교육 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 자치 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기타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지방 교육 행정 기관과 학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 25 조(학교생활 기록) :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업 성취도 및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학생 지도 및 상급 학교의 학생 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제 7 차 교육과정에서와 마찬가지로 '교육과정의 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수준에서 주기적으로 학생의 학력에 대한 평가, 학교와 교육 기관 평가,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하였다. '질 관리 중심의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개정에서 추구하는 변화가 문서 수준의 수사적 변화에 머무르지 않고 교육 현장에서의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이다. 그러므로 국가나 시·도 교육청에서 의도한 교육과정이 구체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계속해서 평가하기 위해 주기적인 학생 학력 평가, 학교 평가, 교육과정 평가 체제가 확립되어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제 9 조는 학생의 학업 성취도 평가, 지방 교육 행정 기관과 학교에 대한 국가 수준의 평가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러한 평가의 기준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12 조에 제시되어 있는데, 그 핵심적 사항은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이다.[17] 특히, 학교 평가를 시행할 때에는 시책이나 사무 중심의 문서에 의한 형식적 평가에서 벗어나 교육과정의 내실화를 통한 '수업 개선'이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는 질 관리 중심의 평가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 25 조는 평가 결과 기록 방법의 개선과 평가 자료의 활용에 관한 규정이다. 이 규정과 관련하여 교육과학기술부 훈령인 「학교생활 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을 적용할 때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기준에 어긋남이 없어야 한다.

---

17)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10 조 ~ 제 13 조에는 학생의 평가, 평가 대상, 평가 기준, 평가 절차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부록 4]

중학교 교육과정의 변천

1945년 광복 후 제1차 교육과정이 제정, 공포되기 전에 있었던 교육에 대한 긴급 조치와 교수 요목기 부터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각 시기별 특징을 중심으로 중학교 교육과정의 변천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II-13> 중학교 교육과정의 변천

구분	법적 근거	공포(고시)	시행	특징
교육에 대한 긴급 조치 (1945~1946)	·일반 명령 제6호 ·법령 제4호	·1945. 9. 17. ·1945. 9. 29.	·1945. 9. 29.	◦ 조선 국호 사용 - 교수 용어 국어사용 - 한국의 이익에 반하는 교과의 교수와 실습 금지 - 교과 : 공민, 국어, 지리·역사, 수학, 물리·화학·생물, 가사, 재봉, 영어, 체육, 음악, 습자, 도화, 수예, 실업
교수 요목의 시기 (1946~1954)	·중학교 교수 요목	·1946. 9. 1. 시달	·1946. 9. 1.	◦ 교수 요목: 학생들이 학습해 나갈 코스, 교사가 학생에게 가르칠 교수 내용의 주제 또는 제목 ◦ 초급 중학교 교육과정 발표(1946. 9. 20.) - 공민, 역사, 지리 통합: 사회생활 - 체육, 보건 통합: 체육·보건 - 필수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구분
제1차 교육과정의 시기 (1954~1963)	·문교부령 제35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사범학교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령'	·1954. 4. 20. 제정 공포	·1954학년도	◦ 교육과정: '각 학교의 교과목 및 기타 교육 활동의 편제' - 편제 : 교과, 특별 활동 - 교과 ·필수: 국어, 수학, 사회생활, 과학, 체육, 음악, 미술, 실업 가정 ·선택: 실업 가정, 외국어 - 연간 시간으로 제시하면서 주당 시간 수는 괄호 안에 제시 - 반공 교육, 도의 교육, 실업 교육 강조
	·문교부령	·1955. 8. 1.	·공포한	◦ 교과 중심 교육과정

	제45호 ‘중학교 교과과정’	제정 공포	날로부터 시행	- 교과별 목표와 내용으로 구성 - 반공 교육, 도의 교육, 실업 교육 강조
제2차 교육과정의 시기 (1963~1973)	·문교부령 제120호 ‘중학교 교육과정’	·1963. 2. 15. 개정 공포	·1965. 3. 1.	◦ 생활(경험)중심 교육과정 - 교육과정 : ‘학생들이 학교의 지도 하에 경험하는 모든 학습 활동의 총화’ - 자주성, 생산성, 유용성, 합리성, 지역성의 강조 - 편제: 교과 활동, 반공·도덕 생활, 특별 활동 - 교과: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음악, 체육, 미술, 실업·가정, 외국어 - 연간 35주 기준, 1시간의 45분 단위 - 주당 수업 시간량 제시
	·문교부령 제251호	·1969. 9. 4. 부분 개정 공포	·1970. 3. 1.	◦ 국민 교육 헌장 이념 구현 ◦ 한글 전용: 국어과에서 한자, 한문 지도 내용 삭제 ◦ 반공·도덕: 주당 1시간→2시간으로 증배 ◦ 남녀 공통 필수 기술 과목 신설
	·문교부령 제300호	·1972. 5. 8. 부분 개정 공포	·1973. 3. 1.	◦ 한문 교과 신설: 주당 1~2시간
제3차 교육과정의 시기 (1973~1981)	·문교부령 제325호 ‘중학교 교육과정’	·1973. 8. 31. 개정 공포	·1974. 3. 1.	◦ 학문 중심 교육과정 - 지식의 구조, 기본 개념과 원리 중시 ◦ 국민 교육 헌장의 이념 구현 - 국민적 자질의 함양, 인간 교육의 강화, 지식·기술 교육의 쇄신 - 자아실현, 국가 발전, 민주적 가치의 강조 - 편제: 교과 활동, 특별 활동 - 교과 수 : 12 교과 - 도덕 교과 신설 - 국사: 교과로 독립 - 35주 기준 연간 수업 시간 수 제시
	·문교부 고시 제424호 ‘중학교 교육과정’	·1979. 3. 1. 고시	·1979. 3. 1.	◦ 교육과정 문서 결정 체제의 개선 - 문교부령(법규 문서)으로 공포되는 교육과정을 문교부 고시(공고 문서)형태로 개선 - 지속적인 연구·개발 및 부분 개선의

				필요에 대처
제4차 교육과정의 시기 (1981~1987)	·문교부 고시 제442호 '중학교 교육과정'	·1981. 12. 31. 개정 고시	·1984. 3. 1.	◦ 단일 교육 사조와 이론의 지배 탈피 - 개인적, 사회적, 학문적, 적합성의 조화 - 교과, 경험, 학문 중심 교육 사조의 균형과 조화 - 교육과정: '학교에서 전개되고 실현될 교육 실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일정 학생에게 무엇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를 국가수준에서 규정하는 의도되고 문서화된 계획' ◦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 - 건전한 심신의 육성 - 지력과 기술의 배양 - 도덕적인 인격의 형성 - 민족 공동체 의식의 고양 ◦ 교육에서 길러야 할 인간상 - 건강한 사람, 심미적인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도덕적인 사람, 자주적인 사람 ◦ 체제 및 편제상의 특징 - 편제 : 교과 활동, 특별 활동 - 교과 수 : 12교과 - 실업·가정 ·생활 기술(남), 가정(여) : 필수로 1, 2학년 이수 ·농업, 공업, 상업, 수산업, 가사 : 3학년에서 선택 이수 - 자유 선택: 주당 0~1시간
제5차 교육과정의 시기 (1987~1992)	·문교부 고시 제87-7호 '중학교 교육과정'	·1987. 3. 31. 개정 고시	·1989. 3. 1.	◦ 홍익인간의 이념 구현 - 건강한 사람, 자주적인 사람, 창조적인 사람, 도덕적인 사람 ◦ 체제, 구조의 개선 -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 - 교육 목표, 편제, 시간 배당 - 운영 지침 : 계획, 지도, 평가, 기타 - 교과 활동과 특별 활동의 목표, 내용, 유의점 - 교과 수 : 12교과 - 실업·가정 ·기술·가정 과목 신설 - 자유 선택: 주당 0~2시간, 학교장 재량 폭 확대

제6차 교육과정의 시기 (1992~1997)	·교육부 고시 제1992-11호 '중학교 교육과정'	·1992. 6. 30. 개정 고시	·1995. 3. 1.	◦ 21세기를 주도할 건강하고 자주적이며 창의적이고 도덕적인 한국인 육성 ◦ 교육과정 개정 중점 -교육과정 결정의 분권화 -교육과정 구조의 다양화 -교육과정 내용의 적정화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화 ◦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역할 분담 - 교육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기준 - 시·도 교육청 : 지역 수준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 - 학교 : 학교 수준의 학교 교육과정 ◦ 교육과정의 성격 - 초·중등학교의 교육 목적,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 학교에서 편성 · 운영하여야 할 교육과정의 공통적, 일반적 기준 ◦ 교육과정의 구성 방침 - 도덕성과 공동체 의식이 투철한 민주시민 육성 - 사회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창의적인 능력개발 - 학생의 개성, 능력, 요구를 고려하여 교육 내용과 방법 다양화 - 교육과정 편성·운영 체제를 개선하여 교육의 질 관리 강화 ◦ 교육과정 체제·구조의 개선 - 교육과정의 성격, 구성 방침, 편제, 시간 배당 기준 - 편성·운영의 기본 지침: 편성 · 운영, 평가, 기타 - 교과와 특별 활동 구성 체제 개선 :성격, 목표, 내용, 방법, 평가
				◦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강조 - 교과서 중심→교육과정 중심으로 전환·교과 편제의 합리적 조정 - 국사: 사회 교과로 통합 - 실업·가정 : 8개 과목을 가정, 기술·산업 2개 과목으로 조정, 남녀 공통 이수 ◦ 선택 교과제 도입

				- 한문, 컴퓨터, 환경
제7차 교육과정의 시기 (1997~2006)	·교육부 고시 제1997-15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1997. 12. 30. 개정 고시	·2001. 3. 1.	◦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한 학생 중심 교육과정 - 국가 수준의 공통성과 지역, 학교, 개인 수준의 다양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교육과정 - 학습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신장하기 위한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 교육청과 학교, 교원·학생·학부모가 함께 실현해 가는 교육과정 - 학교 교육 체제를 교육과정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한 교육과정 - 교육의 과정과 결과의 질적 수준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교육과정 ◦ 21세기의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한국인 육성 - 개성을 추구하는 사람 - 창의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 -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 -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 - 공동체의 발전에 공헌하는 사람 ◦ 교육과정 개정 중점 -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의 편성 - 고등학교 2, 3학년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도입 - 수준별 교육과정 도입 - 재량 활동의 신설 및 확대 - 교과별 학습량의 최적화와 수준의 조정 - 질 관리 중심의 교육과정 평가 체제 확립 - 정보화 사회에 대비 창의성, 정보 능력 배양
		· 2006. 8. 29 부분 개정 고시	· 영어, 수학 교육과정 시행 ·2009. 3. 1. - 1학년 ·2010. 3. 1. - 2학년 ·2011. 3. 1.	◦ 수준별 수업 권장, 강화 - 단계형, 심화보충형이라는 유형 삭제 - 교육과정에서의 기본 학습 내용 정선 - 수준별 교육 관련 지침 대강화 - 수학, 영어 교과서 내실화

			- 3학년	
2007 개정 교육과정 시기 (2007~2009)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2007. 2. 28. 개정 고시	·2010. 3. 1. - 1학년 ·2011. 3. 1. - 2학년 ·2012. 3. 1. - 3학년	◦ 제7차 교육과정의 기본 철학과 체제를 유지 ◦ 주요 개정 내용 - 월2회 주 5일 수업제 반영, 수업 시수 감축 : 중 1~3 학년 각 1,156시간→1,122시간으로 ○ 역사, 과학 교육 강화 요구 반영 - 중, 고 사회, 역사 과목 분리 ○ 재량 활동 운영의 학교 자율권 부여 중학교 : 주당 교과재량 3시간, 창의적 재량 1시간→ 재량활동 3시간으로 ○ 중·고등학교 학기, 학년 집중 이수 허용 조항 신설 ○ 범교과 학습 - 기존 16개 영역에 청렴·반부패 교육 등 19개 영역 추가 - 학교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 지도 강조 ○ 계기 교육 관련 조항 신설 - 사회 현안에 대한 이해 목적 - 별도 계기 교육 지침 준수 실시에 따라 제7차 교육과정보다 3 4시간씩 감축